

모두를위한페미니즘

벨혹스

벨혹스
모두를위한페미니즘
2000 년

차례

개정판에부쳐	3
서문: 페미니즘에한발더가까이	4
1 장: 페미니즘정치 — 우리가서있는곳	7
2 장: 의식화 — 꾸준한회심回心	11
3 장: 자매애는여전히강력하다	14
4 장: 비판의식을키우기위한페미니즘교육	17
5 장: 우리의몸, 우리자신 — 임신선택권	21
6 장: 내면의아름다움과외모의아름다움	24
7 장: 페미니즘계급투쟁	28
8 장: 글로벌페미니즘	32
9 장: 일터의여자들	35
10 장: 인종과젠더	38
11 장: 폭력종식하기	41
12 장: 페미니즘남성성	45
13 장: 페미니스트부모되기	48
14 장: 결혼과동반자관계를해방하기	52
15 장: 페미니즘성정치 — 상호자유의윤리학	55
16 장: 완전한행복 — 레즈비어니즘과페미니즘	60
17 장: 다시사랑하기위하여 — 페미니즘의심장	64
18 장: 페미니즘적영성	67
19 장: 페미니즘의미래	70

는다. 선구적인페미니즘은우리에게미래를향한희망을준다. 페미니즘사고는상호관계와상호의존의윤리를강조함으로써우리에게불평등이초래한결과를바꾸고동시에지배를종식할방법을제안한다. 상호성이일상인세계에서는때때로도두가평등하지않더라도그불평등의결과가반드시복종과식민지화, 비인간화는아닐것이다.

성차별주의와그에근거한착취와억압을끝장내기위한운동으로서의페미니즘은생생하게살아숨쉬고있다. 비록대중기반의운동역량은갖추지못했지만그러한방향으로운동을새롭게시작하는것이우리의첫번째목표다. 우리삶에서페미니즘운동이계속이어질수있도록선구적인페미니즘이론은우리가살아가는자리, 우리의현재를고심하게끔끊임없이생산되고재생산되어야한다. 여성과남성은젠더평등이라는목표에있어큰걸음을내디뎠다. 그리고자유를향한이러한전진은더멀리나갈힘을줄것이다. 우리는용감하게과거로부터교훈을얻고, 페미니즘원칙들이우리의공적사적삶의모든영역을아우름미래를위해노력할것이다. 페미니즘정치의목표는지배를종식하여우리가있는그대로자기자신으로살아가게끔우리를해방하는것이다. 얼마든지정의를사랑하고, 평화로운삶을누릴수있도록말이다. 페미니즘은모두를위한것이다.

리남성들이페미니즘의기치를들고가부장제에맞서야한다. 이지구에서안전하고영속적인삶을영위하려면남성들이페미니스트로전향해야한다.

페미니즘운동은연령과남녀를불문하고모든사람들이성차별주의를철폐하기위해노력해야진보한다. 이런노력을실천하기위해꼭어떤단체에가입할필요는없다. 우리가선그곳에서페미니즘을위한행동을하면된다. 우리는가정에서, 우리가사는지역에서, 우리자신과우리가사랑하는이들을가르치며페미니즘을위한노력을시작할수있다. 과거페미니즘운동은여성과남성개개인에게변화를위한청사진을제대로제시하지않았다. 페미니즘정치의취지와방향에대해서는확고한믿음을바탕으로하더라도, 페미니즘적변화를이끌어내는전략만큼은다양해야한다.

페미니즘으로가는길은하나가아니다. 사람마다살아온배경이천차만별이므로각자의삶에곧장말을건네는페미니즘이론이필요하다. 흑인여성페미니즘사상가로서나는페미니즘투쟁이흑인의삶을개선하는데매우중대한역할을한다는점을모든흑인이받아들일수있는구체적인관심사와전략을찾아내기위해서, 반드시흑인의삶에서의젠더역할을비판적으로검토해보아야한다고생각한다.

선구적인급진적페미니즘은우리모두에게제국주의-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내에서우리가어떤위치에서있는지정확하게판단할수있게끔젠더와인종, 계급의관점에서각자의삶을용감하게되돌아보라고격려한다. 오랜세월동안많은여성페미니스트들은젠더가어떤이의상황을결정하는유일한요소라는그릇된전제를고수했다. 이러한아집을깨뜨리는일도페미니즘정치를위한결정적전환점이었다. 덕분에여성들은인종과계급이라는장벽에가로막혀여성운동이대중화되지못했던과정을직시할수있게되었다.

우리는이제페미니즘투쟁을다시시작할준비를마쳤다. 페미니즘운동만큼가부장제가여성과남성의행복을얼마나위협하는지확실하게보여주는것도없기에반페미니즘역풍은여전히존재한다. 만일페미니즘운동이성차별주의와남성중심주의의영구화가어떤위험을내포하는지제대로알려주지않았다면페미니즘운동은실패했을것이다. 페미니즘에반대하는목소리가커질일도없었을것이다. 가부장제대중매체는페미니즘교실에서남성은환영받지못한다는거짓말을계속퍼뜨리고있지만, 실은페미니즘을공부하고그사상을받아들이는남자들이점점 늘어나고있다. 페미니즘운동에서의이런의미심장한변화가가부장제에더욱위협적으로작용한다. 앞서강조했다시피페미니즘운동이여성에게만집중했다면가부장제적현실은조금도흠집이나지않았을것이며, 가부장제를지지하는세력이페미니즘을가혹하게공격할필요도없었을것이다.

가부장제적대중매체와성차별주의지도자들은거듭해서페미니즘은죽었다고, 페미니즘은더이상아무의미가없다고말한다. 그러나현실로논을돌리면사방에서모든연령의여성과남성들이계속해서젠더평등에대해고민하고, 스스로를제한하거나구속하는게아니라자신을해방해줄새로운젠더역할을계속모색하고있다. 그리고그들은이러한문제에대한답을구하기위해계속해서페미니즘을찾

개정판에부쳐

40 년넘게페미니즘이론과실천을연구해온나는, 페미니즘운동에헌신하고가부장제에도전해변화를일궈내기위해해를거듭할수록더치열하게살아왔다고자부한다. 요즘들어나는그어느때보다도적극적으로, 여성이든남성이든, 변화를위해늘노력하고성차별주의 sexism 와그에근거한착취와억압의사슬을끊어내리라는희망을포기하지않는사람들의삶에페미니즘투쟁이선사한해방의기쁨을나누려애쓰고있다.

페미니즘운동에발을들었을때나는페미니즘운동을대중화하는일에가장열성적으로참여했다. 스무살의나는우리삶을바꾸기위해, 사회정의를바로세우는페미니즘운동에뛰어들기로다짐했고, 이에페미니즘이론과실천이지닌의미를더많은사람들, 즉대중에게전달할수있는다양한방법에대해고민했다. 나는주로페미니즘에대해한번도생각해본적없는사람들, 특히흑인친구들을위해글을 썼다. 하지만대체로학생시절이나강단에선후에야그런글들을썼음을고려하면내글이늘많은독자를만난것은아니라는점을쉽게짐작할수있다. 독자들이‘이런책이있다’는사실을알려면, 무엇보다서점에서책을실제로보거나서평을읽을기회가있어야한다. 그런데반체제적이고급진적인책일수록주류의서평을많이못받을가능성도커진다.

그런점에서는운 좋게도, 내책들은서평을받는일은드물었지만독자들을만날수는있었다. 확실히, 강의교재로채택되니주류의눈에는들지않았어도독자들이생겨났다. 물론“이책이제인생을구했어요”라고독자가찬사를보낼만한책을쓰면입소문때문에책이날개돋친듯팔릴것이다. 페미니즘이론서를써온지난 40 년을되돌아보면, 독자들이여전히내책을찾으며비판의식을키우는교재로여전히활용되고있다는사실에경외감마저든다.

지난수년간페미니즘이론과문화비평이여성과남성의다양한목소리에점점더귀를기울여온만큼, 학술적인논의의공간은페미니즘이전파되는기본적인장으로자리매김했다. 이러한경향덕분에페미니즘적사고와실천이지닌의미와힘을배울기회가더생겼으니학생들의입장에서는긍정적인일이다. 하지만이는페미니즘운동에더많은대중을끌어들이는데는부정적으로작용했다.

학창시절받은여성학수업과거거시읽은책이나를바꿔놓아페미니즘에대해완전히각성하게됐다. 그러나딸이여섯이고아들이하나인집안에서태어난나는엄마와형제자매, 내가아는모든사람들이나처럼페미니즘사고에도취되기를원했다. 이책의표지속두여자는바로나와내가여대 1 학년시절에서권철친한친구 에이프릴이다. 노동계급문제에대해야기나누며가까워진우리사이엔종장

벽은들어설여지가없었다. 사진속우리는스무살을코앞에둔십대후반이었다. 내가페미니즘에흠뻑빠지면서에이프릴도함께페미니즘컨퍼런스에참가해페미니즘전반에대해배웠다. 그로부터 40 여년이흐른지금까지도우리는함께페미니즘강의를들으려다닌다. 인생이라는여정을함께배우고경험하면서우리는‘자매애는강력하다 sister is powerful’는진리를깨우쳤다.

무엇을쓸지고민스러울때면늘구체적인경험에서글감을찾아내인생은물론 주변남성과여성의삶에서일어난일들에대해서내려갔다. 오랫동안학교안팎에서만난사람들은내게페미니즘의이론과시천이무엇인지잘모르겠다고털어놓았다. 여성학수업을통해비판의식을키운학생들이가족친구들에게자신의새로운사고방식에대해설명하면서어려움을겪는경우도드물지않았다.

페미니즘이론이“너무학문적”이라거나“일반인이이해하기어려운단어투성이”라는불만을들다보니, 어떻게든모두에게페미니즘정치를이해시킬수없다면이운동은실패한것이다싶었다. 나는가가호호찾아다니며페미니즘적사고가무엇인지알려야한다고말하곤했다(물론실행에옮긴적은없다). 그런고민을하던차에이런생각이떠올랐다. 사람들에게페미니즘적사고에대해설명하면서페미니즘정치를받아들이도록구슬릴만한쉬운책을써보면어떨까.

단한번도페미니즘운동이여성들만의것이라고도, 그래야만한다고도생각해본적이없다. 여성이든남성이든, 소녀든소년이든모두가페미니즘에한발더다가오게설득하지못하면페미니즘운동이성공할수없다는사실을마음깊이확신했다. 나는내학생들에게페미니즘적사고에대해설명하고집에가져가서친척과부모님, 조부모님, 교회신자들과함께읽을만한책을쓸작정이라고말하곤했다.

『모두를위한페미니즘』이라는제목은이책의성격을한눈에보여주는일종의구호다. 명료하고, 간결하고, 쉽게읽히는책. 그런점에서내꿈이실현된책이다. 이책이야말로우리모두를페미니즘에한발더가까이초대하기때문이다.

서문: 페미니즘에한발더가까이

어디서든내가누구이며무슨일을하는지궁금해하는사람에게자랑스럽게이렇게대답한다. 나는작가이며페미니즘사상가, 문화비평가라고말이다. 그러고는여러매체에영화나대중문화에담긴메시지를분석한글을기고한다고덧붙인다. 그러면대개사람들은흥미로워하며좀더자세하게알고싶어한다. 누구나영화를보고, 텔레비전을시청하고, 잡지를뒤적이고, 그과정에서읽어낸메시지와직접본이미지에대해나를대로의견을갖는다. 그렇기에내가만나는이런저런사람들에게문화비평가라거나글쓰기에열정을품고있다는말을이해시키기는쉽다(많은이들이글을쓰고싶어하고실제로쓰는사람도많다). 하지만페미니즘사상가라

장제체제가온전하게남아있기를원한다. 그러나선구적인페미니즘사상가들은일찍이운동초기부터가부장제와결탁하거나하다못해페미니즘운동의일부주장에대한가부장제의지지(가령, 여성에게일을하라는요구)를받아들이다면결과적으로여성의입장이취약해질것이라보았다. 우리는삶을지배하는체제가근본적으로바뀌지않은상태에서획득한권리는다시쉽게빼앗길수있다는점을잘알게되었다. 그리고우리는임신선택권문제에서, 특히임신중단문제에서우려했던일이벌어지는현실을이미알고있다. 가부장제의틀안에서시민권을쟁취했다한들, 여성들로하여금우리가실제보다더잘지내고있으며지배구조가변했다고생각하게한다면이는위험한일이다. 실제로많은여성들이페미니즘에등을돌리면서이러한구조는다시공고해진다.

극단적인반페미니즘역풍도페미니즘운동을약화시켰다. 이역풍의주역은페미니즘을맹비난하며결국운동을훼손하기회주의적이고보수적인여성들이었다. 가령, 최근에출간된대니엘크리텐튼¹⁵은『우리어머니들이말해주지않은것들— 왜행복은현대여성을피해가는가』는, 여성은항상가정에서살림을하며건강한아이를낳아기르는어머니가되어야하며, 남녀의사고방식이근본적으로다름을인정해야하며, 무엇보다도여성들에게페미니즘이잘못됐다고주장한다. 페미니즘을비난하는사람들은현대여성이직면한불만은모두페미니즘운동탓이라고주장한다. 그들은절대가부장제나남성중심주의, 인종차별주의, 계급착취등에대해서언급하지않는다. 반페미니즘책들이쉬운말로쓰여광범한독자에게다가가는데반해, 그들의메시지에맞설만큼대중적인페미니즘이론서는전무한실정이다.

급진주의페미니스트들, 특히이제중년에들어서서른다섯에서예순다섯사이의우리같은여성들과이야기를해보면페미니즘이그들의삶에미친건설적인영향에대한놀라운증언을들게된다. 이들의이야기를기록으로남겨, 페미니즘은여성들의삶을더고단하게만들었울뿐이라는대중의오해를바로잡을수있도록해야한다. 여전히가부장제적사고와행동이근본적으로바뀌지않은상황에서살아가는여성들이페미니즘의사고와실천을받아들이는것은여성의삶을훨씬복잡하게만드는일인것이사실이간하다.

선구적인페미니스트들은늘남성들을변화시켜야한다고생각했다. 이세상의모든여성들은페미니스트가될수있지만남성들이성차별주의를버리지않는한우리의삶은여전히위축된채로남아있을것이다. 젠더전쟁은여전히일상적이다. 남성을투쟁의동지로받아들이기를거부했던페미니즘활동가들은, 그러니까남성이페미니즘정치로부터어떤식으로든혜택을본다면결국여성이패배하는것이라는비이성적인두려움을떨치지못한이들은, 대중이페미니즘을의심하고무시하도록영동하게거둔셈이되었다. 그리고남성을혐오하는여성들중에서는남자들과함께하느니차라리페미니즘이발전하지않는것이낫다는이들도있었다. 하루빨

¹⁵ Danielle Crittendon. 캐나다출신의언론인이자저술가.-역자주

심주의를 끝장내고가부장제를 종식해야한다고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이 나라 대다수 시민들은 여전히 남성 중심주의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남성 폭력 사이의 연관성을 잘 모른다. 그리고 계급을 막론하고 젊은 남성이 가족, 친구, 동급생 등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에 사회가 보이는 반응을 보면, 그 관계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대중매체는 왜 이런 폭력이 발생하는지를 가부장제적 사고와 연결 짓지 않은 채 그저 묻기만 한다.

비판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대중적인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계급 엘리트주의가 페미니즘적 사고의 방향을 짚다. 대부분의 페미니즘 사상가/이론가는 엘리트들로 둘러싸인 대학에서 연구할 뿐이다. 우리는 대부분 어린이책을 쓰지도, 초등학교에서 가르치지도, 공교육 교육 과정에 건설적인 영향을 미치게끔 적극적으로 비활동을 하지도 않는다. 나는 누구나 쉽게 납득하는 페미니즘 사상을 만드는 페미니즘 운동의 일부가 되고 싶었기에 어린이책을 쓰기 시작했었다. 읽거나 쓸 줄 모르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에는 오디오북도 좋다.

페미니즘의 메시지를 널리 전하기 위해 가가호호문을 두드리는 집단적인 노력은, 페미니즘 정치는 급진적일 수밖에 없다는 기본 전제와 더불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이 시작하는 운동에 필수불가결하다. 급진적인 면은 대개 음지로 밀려나게 마련이므로, 페미니즘의 메시지를 퍼뜨리고 싶다면 페미니즘을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지배와 억압을 끝내려는 운동이며 젠더 차별을 근절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투쟁이므로 근본적으로 급진적인 운동이다.

페미니즘 활동가들이 모든 방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주의를 몰아내기 위한 노력을 그만두고 오로지 개혁에만 집중하자 페미니즘 운동에 내재된 급진성을 둘러싸고 혼란이 빚어졌다. 수많은 ‘페미니즘들’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파워페미니스트’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집단 중에서도 지위와 특권 계급의 권력을 추구한 여성들의 보수적이고 자유주의적 인 정치적이 해에 부합한 것이었다. 이들은 페미니스트가 임신 중단에 반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 최초의 집단이기도 했다. 이는 또 하나의 그릇된 주장이다. 여성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페미니즘의 기본 원칙이다. 여성 개인이 임신 중단을 하느냐 마느냐는 순전히 선택의 문제다. 임신 중단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페미니즘의 원칙이다.

기생적인 계급 관계와 부와 권력을 향한 탐욕으로 여성들은 빈민, 노동자 계급 여성들의 이해를 배신하기에도 이르렀다. 한때 페미니즘 사상과 함께 했던 여성들이 이제 공공 복지에 반하는 정책을 지지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않는다. 이들은 단순히 각자 생각하는 페미니즘에 나름의 ‘브랜드’를 달았을 뿐이다. 페미니즘을 라이프 스타일이나 상품으로 여기게 되면 저절로 페미니즘 정치의 중요성은 희석된다. 오늘날 수많은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제외 한 시민권만을 원한다. 이들은 공적인 분야에서 평등을 갈망하는 순간조차 사적인 분야에서는 가부

는 지점에 이르면 질문이 뚝 끊긴다. 대신 사람들은 페미니즘의 폐해와 나쁜 페미니스트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얼마나 남자를 혐오하는 지에 대해, ‘그들’이 얼마나 만물의 본성, 즉신을 거스르는 지에 대해, ‘그들’은 전 부레즈비언이고, ‘그들’이 일 자리를 몽땅 채가는 바람에 백인 남자들이 기회를 빼앗겨 얼마나 살기 어려워졌는 지 아느냐고 늘어놓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묻는다. 페미니즘에 관해 어떤 책이나 잡지를 읽어봤는가. 페미니즘 담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페미니즘 활동가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면, 그들이 아는 페미니즘은 심중팔구 누구에게 전해들은 것일 뿐이며 페미니즘 운동이 실제로 무엇인지 거기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자세히 알아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대개 사람들은 페미니즘 하면 남자처럼 되고 싶은 한 무리의 성난 여자들을 떠올린다. 그들은 페미니즘에 권리에 관한 것이라고, 다시 말해 여자들도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아는 페미니즘에 대해 조곤조곤 이야기해주면 그들은 기꺼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이야기를 마칠 즈음 곧장 이런 반응을 보인다. 당신은 남성을 혐오하고 늘 화가나 있는 ‘진짜’ 페미니스트 같지 않다고, 당신은 다른 것 같다고 말이다. 이에 나는 아야말로 누구보다 진자고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이며, 페미니즘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덮어놓고 짐작했던 모습과는 다를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상대방에게 추천할 만한 책은 없으면 좋겠다 싶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페미니즘이 뭔지, 페미니즘 운동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권하게 말이다. 그 순간에 축약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잘 읽히는 책이 손에 쥐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령부득한 학술 용어만 가득한 두껍고 난해한 책이 아니라, 간결하고 명확해서 이해되는 부분만 대충 건너뛰면서 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쉬운 책 말이다. 페미니즘 사상과 페미니즘 정치, 그리고 그 실천이 내 인생을 바꾼 순간부터 나는 그런 책을 원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책을 권해 내 정치적 삶의 근본인 페미니즘의 대의와 내가 깊이 신봉하는 이 페미니즘 정치에 대해 더 잘 이해시키고 싶었다.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해 사람들이 공포나 환상에 비릇하지 않은 해답을 얻기 바랐다. 사람들이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끝내려는 운동이다’라는 간결한 정의를 읽고 또 읽어서 그 의미를 깨우치기를 바랐다. 나는 이런 식으로 페미니즘을 정의하는 게 마음에 들어 10 년도 더 전에 쓴 『페미니즘 — 주변에서 중심으로』¹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정리했다. 페미니즘 운동이 남성을 혐오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못박는 정의라 마음에 든다. 또한 이 정의는 성차별주의가 문제라고 분명하게 밝힌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해주는 덕에 여자든 남자든 태어날 때부터 성차별주의적 사고와 행동 양식을 받아들이게끔 사회화되

¹ 원제는 Feminist Theory: From Margin to Center 로원서초판은 1984년에 출간됐다. 한국어판은 2010년 모티브북에서 출간되었다. -역자주

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사회화 때문에 여자도 남자만큼이나 성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남성 중심주의를 두둔하거나 정당화한 다기보다 페미니즘 사상가들이 이 운동을 단순히 남녀 대립 구도로 인식하는 건 순진하고 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제도화된 성차별주의의 또 다른 이름인) 가부장제를 철폐하기 위해 우리의 사고 방식과 정신부터 바꾸지 않는 한, 다시 말해 성차별주의적 사고와 행동을 버리고 그 자리에 페미니즘적 사고와 행동을 들이지 않는 한, 우리 모두가 성차별주의를 영구화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가부장제,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우수하므로 여자를 지배해야 한다는 전제에 수혜자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남자들은 가부장제의 열매를 모두 챙기는 대신 그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여성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도록 요구받는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가장으로서의 삶이 녹록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들에게는 끼는 증오와 공포, 여성을 향한 남성의 폭력 모두를 혼란스러워한다. 심지어 이런 폭력을 영구화하는 남자들이조차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작 손에 쥔 이득을 포기하려 들지는 않는다. 그들은 가부장제가 다른 무언가로 변하면 자신에게 친숙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불안해한다. 그래서 머리와 가슴으로는 남성 중심주의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저항적으로 이를 지지하는 편이 더 낫다고 여긴다. 남자들은 몇 번이고 내게 페미니스트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그들이 변화하고 성장할 능력을 갖췄음을 믿는다. 그리고 그들이 페미니즘을 더 잘 알게 되면 더 이상 페미니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 그들 역시 가부장제의 속박에서 풀려나리라는 희망을 보게 될 테니 말이다.

이런 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 까하고 20 년 넘게 생각만 하다가 결국 이 얇은 안내서를 직접 쓰며 염두에 둔 독자가 바로 앞서 언급한 젊고 늙은 남성들, 그리고 우리 모두다. 이런 책을 계속 기다렸지만 아무도 써주지 않았기에 결국 내가 쓸 수밖에 없었다. 매일 같이 반 페미니즘의 역풍이 휘몰아치고, 잘 알지 못하는 페미니즘 운동을 증오하고 그에 저항하라는 메시지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책이 없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 수 없다. 페미니즘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쉽고 짧은 입문서가 쏟아져 나와야 한다. 그래서 지식을 얻은 사람들이 페미니즘에 관한 글이나 전문서도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책도 페미니즘 정치를 대변하는 열정에 찬 또 하나의 목소리에 불과해질 것이다. 이 세상에 페미니즘을 더 많이 알려야 한다. 옥외 광고판을 세워야 하고, 잡지에도 광고를 실어야 하며, 버스와 지하철, 기차에서도 광고해야 한다. 텔레비전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야 한다.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노력을 통해 페미니즘을 널리 알려야 하고, 이 운동이 모두의 머리에 닿고 마음을 울리게 해야 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이 미우리 일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는다면 긍정적 인 측면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들이 자신이 속한 정체성이라 생각하는 같은 민족이나 인종 집단에 보이는 보살핌의 윤리는, 그들이 공감할 수 없고 동질성이나 연대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않았다. 특권층 여성들은 (예외도 있었지만 대부분 백인이었다) 노동자 계급과 빈곤층 여성들의 종속이 지속되도록 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재빠르게 동참했다.

선구적인 페미니즘은 모든 여성의 운명을 바꾸고 그들이 각자 개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을 근본적인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이 목표를 이루려면 운동은 젠더 평등의 제를 뛰어넘어, 모든 여성들, 특히 빈곤층 여성들을 꺼안을 수 있는 문맹 퇴치 운동 같은 기본적인 활동부터 시작해야 했다. 이 세상에는 페미니즘 학교도, 페미니즘 대학도 없다. 그리고 이런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적도 없었다. 여성들이 일 자리를 얻고 경력을 쌓게 하는 차별 철폐 조치의 주요 수혜자들인 교육받은 백인 여성들은, 기존 체제의 단물을 모두 빼먹었기에 페미니즘 원리를 설립이념으로 삼는 교육 기관의 창설에는 의욕이 없었다. 이런 교육 기관이 월급을 많이 줄지 않을 터였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부유한 페미니즘 활동가들조차 사재를 털어서라도 기본적인 기술 조차 배우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만들려 하지 않았다.

선구적인 페미니즘 사상가들은 광범위한 페미니즘 운동, 그러니까 소녀와 소년, 여성과 남성, 모든 계급을 가로지르는 운동의 필요성을 통감했지만, 정작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였거나 입에서 입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선구적인 페미니즘 이론조차 창립하지 못했다. 요즘 학계에서 가장 광범한 페미니즘 이론은 대부분 자기들만 아는 은어 같은 어려운 학술 용어로 쓰여서 수준 높은 교육 받은 사람이나 읽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페미니즘에 대해 기초적인 것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이해할 만한 페미니즘 입문서도, 다채롭고 풍부한 자료로 구성된 페미니즘 책도 구할 수 없다. 그런 게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운동을 재건하고 싶다면 이런 책부터 만들어야 한다.

페미니즘 옹호자들은 텔레비전 방송국을 소유하거나 기존 방송 사고 정교너를 잡아서 페미니즘을 소개할 만큼 자금을 만들지 못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은 아무리 봐도 페미니즘과 관련해서는 어디서도 다루지 않는다. 우리가 페미니즘에 대한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려고 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사람들이 여성 젠더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것이 설령 페미니즘적 관점을 전혀 담고 있지 않더라도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지레 짐작한다는 것이다. 젠더 문제를 부각하는 라디오 프로그램과 몇몇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 정도로 페미니즘을 집중 조명한다고는 할 수 없다. 역설적이게도 현대 페미니즘이 거둔 성과 중 하나가 누구나 젠더 문제나 여성 문제를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 이긴 하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게 꼭 페미니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페미니즘 운동은 우리 사회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성의 폭력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문화 혁명을 일으켰다.

대중매체가 가정 폭력 장면을 연이어서 보여주고 그에 관한 논의 또한 처에서 진행중이지만, 대중은 남성이 저지르는 이러한 폭력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남성 중

러내고, 신성한여성성에대한경외심을회복하면서우리는영적인삶의중요성을 긍정하거나재긍정하는법을찾을수있었다. 모든형태의지배와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영적탐사와동일시함으로써우리는정의와해방을위한투쟁과영적인실천을하나로이어주는영성으로되돌아갈수있다. 영적인충만함에대한페미니즘의 비전은자연스럽게진정한영적삶의토대가된다.

19 장: 페미니즘의미래

진정으로선구적이려면우리의상상은구체적현실에단단히뿌리내리고있어야하고동시에그현실을넘어설미래를그릴줄도알아야한다. 현대페미니즘의가장큰장점은그형태와방향을바꾸어가는방식에있다. 진부한사고방식과행동패턴을고수하는사회운동은실패하기마련이다. 선구적인페미니즘의뿌리는 1960년대초로거슬러올라간다. 여성해방운동이갓시작되었을당시, 급진적/혁명적 정치운동을꿈꾼선구적인페미니스트사상가들이출현했다. 그들은운동을이끌며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시스템의힘을약화하고이를전복하기위한투쟁을전개하는한편, 기존체제하에서여성의시민권을쟁취하기위한개혁주의적싸움도지속했다. 그들은지배의문화에찌든이세상을공동체주의와사회민주주의가바탕이된참여적경제의세상으로, 인종과젠더에따른차별이없는세상으로, 상호성과상호의존에대한인정이지배적인정서를이루는세상으로, 지구의생명을지키며모든사람이평화와안녕을누릴수있는방법에대한전지구적인생태주의비전이실현된세상으로바꾸는꿈을꾸었다.

급진적/혁명적페미니즘의비전은운동이발전하면서더명확해지면서도더복합적으로바뀌어갔다. 하지만이비전은기존의사회질서를유지하면서체제내변화를이끌어낼때더안전하다고느끼는개혁주의페미니스트들의절대론으로인해 종종불투명해졌다. 어떤개혁주의페미니즘활동가들은젠더에근거한경제적불평등을뜯어고쳐특권계급남성과동등한권리를얻기위해정말열심히노력했지만, 어떤이들은운동의역량을개혁에집중하면여성의삶에더의미있고구체적인변화를만들어낼수있으리라간단히믿어버렸다. 그러나궁극적으로페미니즘투쟁의급진성을포기하면서페미니즘운동은주류인자본주의가부장제의공세에보다취약해지고말았다.

계급권력획득이나한층커진계급이동의가능성에현혹된개혁주의활동가들이기존의사회체제내에서일정한성과를거두자체제를해체하는활동에관심을기울이는여성들은더줄어들었다. 한쪽에서는캐럴길리건같은페미니즘사상가들이질리지않고여성이더다정하고더윤리적이라고말했지만, 여성들이자신보다더힘없는다른여성들에게하는행동을보면도무지그말에동의할수없다. 여성

내가처음으로남성중심주의에저항하고, 가부장제사고에반기를들었을때(또한내삶에서가장강하게가부장제를드러내는목소리였던어머니와맞섰을때) 나는자살충동과우울증에서달리며삶의의미와내자리를찾고싶었던십대였다. 내겐단단히딜고설수있는, 평등과정의의토대가되어줄페미니즘이필요했다. 엄마는뒤늦게페미니즘에눈을뜨셨다. 엄마는나를비롯해당신의딸들(우리는모두여섯이다)이페미니즘정치덕분에더 나은삶을사는모습을지켜보셨으며, 페미니즘운동에서가능성과희망을보셨다. 내가이책에서당신과, 나아가모두와나누고 싶은게바로그가능성과희망이다.

아무도지배받지않는세상을상상해보라. 여자와남자가무조건똑같거나평등한곳이아니라서로에대한존중이사람과사람사이관계의틀을만드는기준인세상말이다. 누구나타고난모습 그대로살수있는세상에서, 평화와가능성의세상에서 산다고상상해보라. 페미니즘혁명만으로는그런세상을만들수없다. 인종차별과계급엘리트주의, 제국주의도함께종식해야한다. 하지만페미니즘혁명을통해, 우리는여자로서그리고남자로서완전한자기실현을할수있을것이다. 그리하여 사랑의공동체를건설하고그안에서함께살아가며자유와정의를향한우리의꿈을 실현하고모든인간이‘평등하게창조되었다’는진리를실현할수있을것이다. 한걸음더다가오라. 페미니즘이당신과우리모두의삶에어떤영향을미치고어떤변화를이끌어내는지지켜보라. 더가까이다가오라. 그러면더잘보일것이다. 모두를 위한페미니즘이.

1 장: 페미니즘정치 — 우리가서있는곳

페미니즘이란간단히말해서성차별주의와그에근거한착취와억압을끝내려는운동이다. 10년도더전에쓴『페미니즘 — 주변에서중심으로』에서페미니즘을이렇게정의했었다. 그때만해도누구나이렇게페미니즘을정의했으면 좋겠다싶었다. 나는이정의가편마음에들었는데, 남성을적으로몰리지않는듯했기 때문이다. 성차별주의를문제로지목하면상황의본질을곧장파고들게된다. 실제로페미니즘을이렇게정의하면성차별주의를공고히하는주체가여성이든남성이든, 아이든어른이든상관없이성차별주의적사고와행동이문제라는걸일깨워줄수있다. 게다가이는구조적으로제도화된성차별주의에대한이해까지포함할 정도로포괄적이기도하다. 그런점에서볼때이정의는일종의열린결말과도같다. 페미니즘을이해하려면성차별주의부터알아야한다고이정의를시사하고있다.

페미니즘정치의옹호자라면다알겠지만, 사람들은대부분성차별주의가뭔지잘모르고설사안다고해도이를문제시하지않는다. 대중은페미니즘을항상남성과동등해지려는여성들에관한것이라고만생각한다. 그래서페미니즘을반남

성주의로여기는사람도부지기수다. 사람들이주로가부장제적인대중매체로부터페미니즘에대한정보를얻는현실에서페미니즘정치에관한오해가비롯된다. 대개그들은주로젠더평등에헌신하는여성들의페미니즘을가장많이접한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이나여성과남성이가사노동과육아를공동으로분담해야한다고 주장하는식의페미니즘말이다. 그들이보기에이렇게주장하는여성들은대개백인이고물질적으로특권층에속한다. 대중매체에서접한바에따르면, 여성해방운동은임신중단을선택할자유, 레즈비언일자유, 성폭력과가정폭력에항거할자유를위해싸운다. 많은이들이이런문제들중에서도직장내젠더평등, 즉동일노동동일임금주장에는공감한다.

‘그리스도교’문화를바탕으로하는미국사회에서는신이정한바에따라가정에서여성이남성의뜻을따라야한다는인식이퍼져있다. 취직을하는여성들이아무리많아도, 가정내에서실질적가장인여성들이아무리많아도, 미국사람들은가정에성인남성이있건없건남성중심주의논리가고스란히유지되는가정생활을이상적인것으로간주한다. 페미니즘운동이반남성주의라는그릇된인식은모든여성의공간은필연적으로가부장제와성차별주의가끼어들어가있는장소일수밖에없다는그릇된생각과결부되었다. 심지어페미니즘정치에관련된사람들을비롯해수많은여자들이이렇게믿었다.

남성중심주의에분노로대항했던초기페미니즘활동가들사이에반남성정서가팽배했던것은사실이다. 여성들이해방운동을시작하게된게기가바로남성중심주의라는불의를향한분노였으니말이다. (다수가백인이었던) 초기페미니스트활동가들은대부분페미니즘운동에뛰어들기전남성들과함께계급주의와인종차별철폐를위해싸운이들이었다. 그런데이남성들은세상을향해서는자유의중요성에대해역설하면서정작동료여성들은무시했고, 이런환경에서여성은남성중심주의의본성에대해빠져리게깨닫게됐다. 사회주의를위해싸운백인여성이든, 인권과흑인해방을위해싸운흑인여성이든, 원주민의권리를위해싸운아메리카원주민여성이든이사실만은확실히알게됐다. 남성들은자기네가직접운동을이끌고여성들은잠자코뒤따라오기를원했다. 이러한급진적자유투쟁을경험하면서진보적인여성들의내면에서반란과저항의정신이깨어났고마침내그녀들은동시대여성의해방으로눈을돌리게되었다.

현대페미니즘이진보하면서, 다시말해우리사회에서남성남성차별주의적사고와행동을두둔하는것이아니라는사실을여성들이깨달으면서반남성주의는더이상운동의이념에영향을미치지않게되었다. 여자도마찬가지로성차별주의자가될수있기때문이었다. 이후운동은젠더평등을이루기위한전면적인노력으로그중심이 옮겨갔다. 하지만함께연대해페미니즘을진전시키려는여성들의발목을그녀들내면의성차별주의적사고가붙잡았다. 여성들이경쟁하듯반목하는한, 자매애는강력해질수없었다. 모든여성은어떤식으로든남성중심주의의피해자라는현실인식만을토대로세워진유토피아적자매애는계급과인종에대한논의가시작되자무너져버렸다. 현대페미니즘에서는초기부터인종논의에앞서계급차

이운동에서멀어졌다. 이후그리스도교인페미니스트들이성경과그리스도교신앙에대해창조중심적인새로운비판과해석을내놓자여성들은페미니즘정치와화해하면서도그리스도교적실천을계속지켜나갈수있었다. 그러나이활동가들은다수의그리스도교신자들을포용해페미니즘과그리스도교신앙사이에존재하는갈등이전혀불필요하다는사실을이해시킬만한페미니즘운동을완전하게조직하지못했다. 유대교나불교, 이슬람교등다른종교를믿는페미니스트들도마찬가지다. 이런운동들이일어나기전까지는조직적인사부장제종교가언제까지고페미니즘의성과를깎아내릴것이다.

현대페미니즘운동은초기에는영적세계에제대로관심을기울이기보다는시민권과세속적인성과더집중했다. 주류대중매체는페미니즘이그리스도교를비판한다는사실만조명할뿐다양한여성페미니스트집단이거둔영적인깨우침에는전혀관심을보이지않았다. 다수의사람들은여전히페미니즘이반종교적이라고생각한다. 하지만실제로페미니즘은가부장제종교사상이변화하도록이끌어더많은여성들이신성과의연결을찾아내영적인삶을영위할수있도록해주었다.

페미니즘적영성실천은대개원가족이나여러관계에서발생하는가부장제의공격으로상처입은여성들이치료를받기위해찾은치유과정에서인정받고받아들여졌다. 그리고수많은여성들이자신의영적인질문에확언을얻은것도페미니즘치유법의맥락에서였다. 이러한영적인탐구는본질적으로사적인경험이라페미니스트활동가들이영성, 즉영적인삶의욕구를충족시킬필요성에대해충분히인정하고있다는사실이대중에게잘알려지지않았다. 앞으로의페미니즘운동은페미니즘적영성에대한지식을널리알릴수있는더나은전략을세워야한다.

대안적영적세계를선택한덕분에수많은여성들이가부장제종교에맞서고저항하면서도영적인삶을유지할수있었다. 제도화된가부장제교회나사찰은페미니즘의개입으로변화되어왔다. 그러나최근들어교회는지금까지젠더평등을위해해오던노력을내팽개치기시작했다. 종교적근본주의의발흥이진보적영성을위협한다. 근본주의는사람들에게불평등이‘자연스러운것’이라고믿게끔부추길뿐아니라, 여성의몸에대한통제가필요하다는인식을공고히한다. 이에임신선택권에대한탄압이뒤따른다. 이와동시에종교적근본주의는여성과남성의성에수많은형태의성적강제를용인하는섹슈얼리티에관한억압적인통념을불어넣는다. 반드시, 페미니즘활동가들은조직화된종교를주시하고비판과저항을계속해야할것이다.

페미니즘을공정하는경이로운영적전통들이현재이세상에풍부하게존재하는데도대다수사람들은이런실천에대해알기회를접하지못하고있다. 그들은가부장제종교가영적인편안함과행복을누릴수있는유일한장소라고생각한다. 가부장제종교는대중매체특히텔레비전을성공적으로활용해자신의메시지를널리전파한다. 가부장제종교가유일한영적안식처라는인식에대항하려면대안영성도그렇게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 페미니즘적영성은시대에뒤떨어진신념체계에의문을제기하고새로운대안을만들여지를제공했다. 다양한방식으로신을드

계의기본개념을형성해간계적을밝혀냈다. 숭배의방식을바꾸려면영성의비전을다시세워야했다. 페미니즘이가부장제종교를향해비판의수위를높여갈즈음 문화전반에서뉴에이지영성으로눈을돌리는움직임이출현했다. 뉴에이지영성 단체에서그가르침을따르는사람들은, 수세기동안서구의정신세계를지배했던 그리스도교근본주의에서벗어나다른해답을구하고다른영적전통을구하기위해 동양으로눈을돌렸다. 타락과구원의개념에뿌리를둔가부장제영성을밀어낸자리에삼라만상의영성이들어섰다. 힌두교와불교, 부도교등다양한영적전통에서 여자들은여신중심의영성으로회귀하게하는여성적신성의이미지를찾아냈다.

페미니즘운동이막시작되었을무렵에는페미니즘운동이정치에만고착해야 하며종교적이어서는안된다고여겼던활동가들의주장으로인해충돌이빚어졌다. 전통적인사회주의정치단체에서활동하다급진적페미니즘운동에뛰어들어 여성들은대부분부신론자들이었다. 그들은신성한여성성의비전으로회귀하려는노력을비정치적이며감상적이라고보았다. 운동내부에서의이러한분열은가부장제 종교에대한도전과해방된영성사이의연결고리를눈여겨보는여성들이점점늘어나면서이내종식되었다. 미국사람들은대부분자신을그리스도교인으로여긴다. 다른어떤종교보다성차별주의와남성중심주의를용인하는그리스도교교리는우리가이사회에서억혀나가는젠더역할에다방면에서영향을미친다. 우리의종교 적믿음이새롭게바뀌지않으면우리문화를페미니즘적으로절대전환할수없을것 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창조중심적그리스도교영성의각성은그자체로페미니즘운동과연결됐다. 매 슈폭스는『원복 Original Blessing』에서이렇게설명한다. “가부장제종교들과종교의가부장제적폐러다임은최고 3500 년동안인류문명을지배했다. 창조 중심적전통은페미니즘적이다. 그러한영성에서는지혜와에로스가지식이나금 욕보다더중요하다.”자연환경/생태주의에관심이있는페미니스트들과인권문제에집중하는페미니스트들사이에서발생한갈등에대해이야기하다보면이런이원 론은불필요하다는사실이드러난다.

정의를추구하는정치운동은우주가더충만하게발전하는과정의일부분이고 자연은인간이자기인식과잠재된변화의힘을인식하는기반이다. 해방운동은조 화와균형, 정의, 찬양에대한우주적감각을더충만하게발전시킨다. 이는진정한 영적해방을위해서는우주를향한찬양과치유의의식이필요해서인데, 이는다시 개인의변화와해방으로이어질것이다.

해방신학은억압당하고착취당하는집단을해방하는것이신의의지에대한헌 신을반영하는핵심적인신앙행위라고본다. 가부장제를철폐하기위한투쟁이야 말로신의뜻이다.

근본주의가부장제종교는예나지금이나페미니즘사고와실천의확산을막는 장벽이다. 사실, 페미니즘사상가, 특히여성의임신선택권을지지하는사람들을 살해하라고부추기고범행을묵인한우익종교근본주의자들보다페미니스트들을 악마화하는집단도없다. 처음에페미니즘이그리스도교를비판하자수많은여성

별에대한논의부터등장했다. 다이애나프레스출판사는이미 1970 년대중반여 성들사이에존재하는계급적대를깨물어보는혁명적인통찰이담긴『계급과페미 니즘 Class and Feminism』이라는에세이집을출간했다. 결코‘자매애는강력 하다’는믿음을무시해서이런논의를한게아니다. 이책은오히려우리가젠더와계 급, 그리고인종을통해여성이다른여성을지배하고착취하는방식에맞서야만비 로소투쟁으로맺어진자매들이될수있다고강조했으며더불어이러한차이들을다 루는정치적인장을마련한셈이었다.

현대페미니즘운동의초기부터흑인여성들은개별적으로적극적인활동을했 음에도운동의‘주역’으로대중매체의관심을끌지는못했다. 대개페미니즘운동에 서활동한흑인여성들은(다수의백인레즈비언들과마찬가지로) 혁명적페미니스트 revolutionary feminist 들이었다. 이들은이미페미니즘의미래를기존사 회체계내에서여성이남성과평등해지는것으로만그리려는개혁주의페미니스트 reformist feminist 들과불화중이었다. 그러나페미니즘운동의여러그룹에서 인종문제를널리논의하기전부터이미흑인여성들은(그리고그들의혁명적동맹 자들은) 기존의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를그대로유지한채로는절대남 녀가평등해질수없다는사실을환히깨닫고있었다.

페미니즘운동은초기부터양극화되었다. 개혁파들은젠더평등을더중시했 다. 혁명파들은기존체계를조금손보는것으로여성이좀더권리를차지하는일에 는관심이없었다. 아예그체계를뜯어고치고가부장제와성차별주의를무너뜨리 고싶어했다. 그러다가부장제하의대중매체는이런혁명파의주장에는별관심이 없었고당연히이주장은주류언론의관심을전혀받지못했다. 예나지금이나대중 의상상력을지배하는‘여성해방’의이미지는남성의것을여성도가지는것이다. 그 리고이런목표는혁명파의주장과달리수월하게받아들여졌다. 경기침체와실업 등미국경제에불어닥친각종변화들로시민들이일터에서젠더평등개념을받아들 이기좋은상황이조성되었기때문이다.

인종차별이만연한현실을감안하면, 백인남성들이여성에게권리를보장함으 로써백인우월주의를유지하는데득이된다면여성의권리확대를좀더전향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주장은납득가능하다. 인종차별이법적으로금지되고흑인이, 꼭 집어말하자면흑인남성이일터에서백인남성과동등한대우를받을수있게된인권 운동의성공이후백인여성들이자유의확대를주장했다는사실을절대잊어서는안 된다. 일터에서의젠더평등에주로초점을맞춰야한다는개혁적페미니즘은, 개혁 을요구하면서도동시에사회구조를총체적으로재편해나라전체가근본적으로성 차별주의에맞서게해야한다는현대페미니즘의급진적인토대에그림자를드리웠 다.

특히특권층백인여성들을중심으로여성들이기존사회구조내에서경제력을 획득하게되면서혁명적페미니즘의비전은고려대상에서멀어졌다. 아이러니하 게도이혁명적페미니즘을가장잘포용한곳은학계였다. 학계에서는혁명적페미 니즘을이론으로정립해발표했지만, 정작대중은이이론에쉽게접근할수없는경

우가태반이었다. 결국이이론은우리중에서도학식이뛰어나고, 교육수준이 높고, 대개경제적으로윤택한사람들이접할수있는특권층의담론으로자리잡았으며그런경향이지금까지도이어지고있다. 페미니즘으로의변혁에관한해방적인비전을제시하는『페미니즘 — 주변에서중심으로』와같은작업은결코주류의관심을끌지못한다. 대중은이런책이존재한다는사실을들어본적도없다. 따지고보면대중은이런책에담긴메시지를거부한적이없다. 그게무슨메시지인지도모르니말이다.

주류세력인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의입장에서는반남성주의노선을취하지않거나여성이남성과같은권리를누려야한다는주장에중점을두지않은페미니즘이론을억압하는편이득이었고개혁적페미니스트들도이들의목소리를지우려애썼다. 개혁적페미니즘은그들에게계층이동의수단이였다. 그들은일터에서남성중심주의의속박에서벗어났고좀더주체적인라이프스타일을누릴수있게되었다. 성차별주의가여전히만연한상황에서도그들은기존체계에내서최대한자유를누리고자했다. 그리고그들이거부한곳은일은착취당하는종속된계층여성들이떠맡을터였다. 그들은노동자계급과가난한여성들의종속을수용하고오히려이와결탁함으로써기존가부장제그리고그에수반되는성차별주의와도동맹을맺은셈이다. 그뿐만아니라직장에서남성과대등한대우를받으며일한대도, 가정에서는대등하게일할때만권리를요구하는이중생활을영위할권리를바란다. 레즈비언이라면직장에서남성과동등하게대우받는특혜를누리면서, 한편으로는계급권력을이용해남성과거의혹은전혀접촉하지않아도되는가정생활을꾸릴수도있다.

라이프스타일페미니즘은이세상에존재하는여성의수만큼다양한페미니즘이존재할수있다는개념을낳았다. 별안간페미니즘에서정치성이서서히열어졌다. 그리고정치성향이보수건진보건여성이라면페미니즘을평소라이프스타일에적용할수있다는주장에힘이실렸다. 분명이런식의사고덕분에페미니즘은좀더대중에게다가갈수있었는데, 여성이자신이나자신이속한문화에도전해근본적인변화를이끌어내지않아도페미니스트일수있다는전제가그기저에자리하기때문이다. 임신중단문제를예로들어보자. 페미니즘이성차별주의에근거한억압을종식하려는운동이고여성에게서임신선택권을박탈하려는시도가그런억압의한형태라면, 임신중단권을반대하면서동시에페미니스트가될수는없다. 자신은임신중단을선택하지않더라도여성은다른여성의선택권을지키면서동시에페미니즘정치를옹호할수있다. 임신중단권을반대하면서페미니즘을옹호할수는없다. 마찬가지로타인을착취하고억압하여얻은권력에서파생했다면‘파워페미니즘’이라는개념도있어서는안된다.

페미니즘운동이선명한뜻을상실했기때문에페미니즘정치는그기세를잃고있다. 그러나우리에겐그러한뜻이있다. 그것을되살리자. 널리알리자. 새롭게시작하자. 페미니즘이무엇인지세상에제대로전하자. 티셔츠를입고자동차범퍼에스티커를붙이자. 엽서를쓰고힙합음악으로만들자. 텔레비전과라디오광고며곳

구를존중받고, 누구나권리를누리고, 누구든예속이나학대를두려워할필요가없는관계에대한이러한비전은, 가부장제가관계의구조를지키기위해고수하는모든것과반대된다. 우리여성들은대부분아버지나남자형제, 또는이성애자여성의경우연애관계까지사생활에서접하는친밀한관계에서남성의지배를경험했거나경험할가능성이있다. 실제로여성과남성이모두페미니즘사고와실천을받아들일경우두사람의감정적행복은더깊어질것이다. 진정한페미니즘정치는언제나우리를속박에서자유로, 사랑이없는곳에서사랑이넘치는곳으로이끈다. 상호동반자관계야말로사랑의토대다. 그리고페미니즘의실천은상호성의토양을만드는우리사회의유일한사회운동이다.

진정한사랑은서로에대한인지와포용에서비롯한다는사실에, 사랑이인정과애정, 책임감, 헌신, 그리고지식을모두포여야한다는사실에수긍한다면정의없이사랑이존재할수없음을이해하게된다. 이사실을깨달으면사랑이우리에게변화시킬힘을주고, 지배에서항할수있는의지를심어준다는사실도이해하게된다. 그러므로페미니즘정치를택하는것은, 곧사랑을택하는것이다.

18 장: 페미니즘적영성

페미니즘은예나지금이나변함없이영적인실천을도모하는저항운동이다. 나는페미니즘이론과그실천을받아들임으로써자아실현에는자기애와자기인정이필요하다는사실을완전하게인지했지만, 그전부터그와동일한메시지를공정하는영적인길에발을들여놓고있었다. 남성중심적인종교의성차별주의에도불구하고여성은영성의실천에서위안과안식을구할수있는여지를찾아냈다. 서구교회의역사를통틀어여성들은남성의방해를받지않고신과함께할수있는, 남성의지배없이도신에봉사할수있는장소를찾는수도원생활방식에존했다. 날카로운영적통찰력과신성한명석함을두루갖춘신비주의자노리치의줄리안(Julian of Norwich) 은현대페미니즘운동이태동하기도훨씬전에이런글을남겼다. “우리의구세주는우리의참된어머니로, 우리는그안에서끝없이태어나고그없이결코세상에올수없습니다.” 구세주는언제나오직남성이라는인식에감히대항한노리치의줄리안은, 신성한여성성으로되돌아가는여정에오르며, 가부장제적종교에속박된여성이해방되도록힘을실어주었다.

페미니즘운동은초기부터가부장제적종교를비판해반향을불러일으켰고이로써미국전역에서신앙심의본질을변화시켰다. 다시말해페미니즘은서구의형이상학적이원론(세상은언제나두가지범주로, 이를테면세상은열등한것과우수한것, 선한것과악한것으로나뉜다는가설) 이억압과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등온갖집단의이데올로기적토대가되었고, 이것이결국유대그리스도교신앙체

답습할지도모르는그런여성들과다른삶을살고싶었다. 우리가다르게살수있는 확실한방법중하나는아예아이를가지지않는것이였다.

사랑에대한초기페미니즘운동의비판은꽤단순했다. 그때는사랑에대한가부장제의그릇된관념에구체적으로저항하기보다그저사랑이문제라는식으로인식했다. 우리는사랑을처분해버리고그빈자리를권력과권리에대한관심으로채우려고했다. 그때는아무도우리에게마음이황폐해져결국우리가페미니즘반란이라는명분으로거부했던가부장제적남성이나부치들처럼감정적으로폐쇄적인사람이될수도있다고경고하지않았다. 그리고실제로이런일이일어났다. 페미니스트들은사랑에대해재고하며그중요성과가치를강조해야했지만오히려사랑에대한논의를중단해버렸다. 사랑을원했던여성들, 특히남성과의사랑을원한여성들은사랑을구할방법을찾아다른곳으로눈을돌렸다. 이런여성들중상당수가페미니즘이사랑의중요성도, 가족관계도, 공동체에서타인과더불어사는삶도거부한다고느꼈기에페미니즘정치를떠나갔다.

선구적인페미니즘사상가마저여성들에게사랑에대해뭐라해야할지몰라우왕좌왕했다. 『페미니즘 — 주변에서중심으로』에서나는페미니즘운동리더들이운동에서사랑의정신을불어넣어야한다고 썼다. “페미니즘운동의지도자들은반드시사랑과공감을보여줄능력이있어야하며, 행동으로그런사랑을드러낼수있어야하며, 대화를성숙하게끌어나갈수있어야한다.”그당시나는‘지배의형태를바꾸는사랑’이라는행위’에대한믿음을전파했지만정작모두에게사랑의해방적비전을제시할페미니즘이론을만드는게얼마나중요한지심도있는글은쓰지못했다.

이제와돌이켜보면, 당시우리는사랑에관한, 특히이성애에대한긍정적인페미니즘담론을만들내지못했기때문에, 가부장제대중매체가페미니즘운동이사랑보다는중요를발판으로하는주장이라고떠들수있는여지를주고말았다. 남성과유대를맺고싶었던수많은여성들은그런유대를맺지도못했고그렇다고페미니즘운동에헌신할수도없었다. 실제로우리는여성도남성도페미니즘을통해사랑을알수있다는생각을널리퍼뜨려야했다. 이제는그사실을안다.

선구적인페미니즘은현명함과사랑이넘치는정치다. 페미니즘정치의정신은지배를종식하기위한헌신이다. 사랑은결코지배와강압에기반한관계에뿌리내릴수없다. 가부장제적사랑의개념을매섭게비판한급진주의페미니스트들은결코틀리지않았다. 하지만여성에게든남성에게든우리가사랑을찾는여정에서길을잘못들었다는비판이상의것이필요했다. 우리에게는대안으로제시할수있는페미니즘적비전이필요했다. 우리중많은이들이삶의사적인영역에서는사랑, 즉페미니즘적실천에뿌리를둔사랑을했지만사랑에대한좀더보편적인페미니즘담론을, 페미니즘운동내에서사랑에적대적이었던분파들에집중된관심을분산시킬만한담론을만들내지못했다.

우리가대안으로제시하는비전의맥락은여전히근본적이고필연적인진실과공명한다. 즉, 지배가있는곳에서사랑이들어설자리는없다. 페미니즘사고와실천은동반자관계와육아를통한상호성장과자아실현의가치를강조한다. 누구나욕

곳에자리한광고판으로페미니즘을알리자. 갖가지인쇄물로페미니즘을전파하자. 이로써페미니즘이성차별주의적인억압을종식하려는운동이라는메시지를간명하면서도강력하게이세상에알릴수있다. 거기서부터시작하자. 이운동에다시불을붙이자.

2 장: 의식화 — 꾸준한회심回心

페미니스트는태어나는것이아니라만들어진다. 여자로태어났다고해서덮어놓고페미니즘정치를옹호하는건아니다. 정치적입장이으레그렇듯이페미니즘신봉자도선택과행동으로페미니즘정치를택한다. 성차별주의와남성중심주의에대해야기나누기위해처음으로모임을조직했을당시여성들은, 여성도남성처럼성차별주의적인사고와가치를믿도록사회화되었다는것, 그리고남녀간에차이가있다면여성보다남성이성차별주의때문에더많은혜택을보고그렇기에가부장제로인한특권을쉽사리포기하려들지않으리라는사실을뚝뚝히인식하고있었다. 여성들은가부장제에앞서우리자신부터바꿔야했다. 우리자신부터의식화해야했다.

혁명적페미니즘의의식화교육에서는지배체제로서의가부장제에대해꼭배워야한다고강조했다. 다시말해, 가부장제가어떻게일상화되었으며어떻게유지되고영구화되는지알아야한다고했다. 남성중심주의와성차별주의가일상에서어떻게표출되는지를이해하면우리여성들이어떻게희생되고, 착취당하고, 더나쁜경우학대받는지에대한의식을일깨울수있다. 현대페미니즘운동초기에조직된의식화모임에서여성들은희생자가되는상황에대해억눌렸던적대감과분노를표출하곤했고중재와변화를위한전략을세우는일은거의또는전혀할수가없었다. 상처받고착취당하는수많은여성들에게의식화모임은기초수준에서의심리치료과정이었다. 그곳에서그들은아무에게도내보이지않았던내밀하고도깊은상처를터놓고드러냈다. 이런고백은마치치유의식같았다. 여성들은의식화되면서일터와가정에서가부장제폭력에맞설힘을얻었다.

여기서주목해야할점은, 이일로여성들이자신의성차별주의적사고를되돌아보게되었고, 그결과페미니즘적사고로전환하고페미니즘정치에전념함으로써우리의태도와믿음을바꿀수있는전략을세워의식화의토대를만들었다는사실이다. 근본적으로의식화모임은사고전환의장이었다. 대중적인페미니즘운동을만들기위해서는여성들을조직화해야했다. (빌리거나공짜로제공받거나해야하는공공장소보다) 대개누군가의집에서열린의식화모임은만남의장소였다. 여기서노련한페미니즘사상가들과활동가들이새로운개심자들을모집하기도했다.

무엇보다의식화모임에서는소통과대화를중요의제로여겼다. 여러모임에서 모두의목소리를존중한다는방침을세웠다. 여성들은순서를정해발언함으로써 모두가목소리를내게했다. 위계없는토론모델을만들기위해참석자모두에게적극적으로발언기회가주어졌지만그때문에대화가맥락없이이뤄지는경우도찾았다. 그럼에도대부분의경우보통모든참가자가적어도한번씩발언한뒤토론과는쟁이이여졌다. 의식화모임에서는쟁은흔했는데, 이는남성중심주의의본질에대해집단차원에서명료하게이해하기위해서였다. 오로지토론과의견충돌을통해서만젠더착취와억압에대한현실적인관점을모색할수있었다.

참석자들끼리서로잘아는(그들은직장동료혹은친구사이였을것이다) 소규모모임에서페미니즘적사고가처음그모습을드러냈는데, 이를더광범위하게전파하고자문서화하고이론화하는과정에서의식화모임은와해되었다. 여성학이학문으로정립되자여성들이페미니즘사상과이론에대해배울수있는또다른통로가생겨났다. 여성학수업이대학에개설되도록앞장선여성들은대부분민권운동과동성애자인권운동, 초기페미니즘운동에나섰던급진적활동가들이었다. 그들은대부분박사학위가없었는데, 그말인즉그들이다른학과의동료들보다더낮은임금과더긴노동시간을감수하며학교로들어왔다는뜻이다. 여성학을정식학문으로공식화하려는움직임에젊은대학원생들이합류했을즈음, 우리는더높은학위를따는게중요하다는사실을인지하고있었다. 우리대부분은여성학연구에매진하는게페미니즘정치를위한실천이라고생각했다. 페미니즘운동을위한학문적기틀만다질수있다면언제든지희생할각오가되어있었다.

1970년대후반, 여성학은어엿한정식학과로자리잡아갔다. 이러한승리는여성학제도화의길을닦은여성들이대부분박사가아니라석사라는이유로해고됨으로써무색해졌다. 우리중일부는박사학위를다기위해학교로돌아갔지만가장명석하고뛰어났던사람들은끝내그치지않았다. 상아탑에몸시한멸을느끼기도했거니와과로로탈진하기도했고여성학을든든하게받쳐주었던급진적인정치가진보적개혁주의로대체된것에실망하고분노했기때문이다. 얼마가지않아여성학강의실이누구나참가할수있는의식화모임을대체했다. 전업주부나서비스업종사자, 일류전문직여성처럼각양각색의여성들이광범위한의식화모임에참석했던시절과달리학계는예나지금이나계급특권의장이다반드시현대페미니즘운동을이끌었던급진적지도자들이라고할수없는데도수적으로다수였던중산층백인여성들이자주유명세를탔는데, 대중매체가투쟁의대변자로그들에게초점을맞추었기때문이다. 혁명적페미니즘의식을가진여성들은다수가레즈비언이고노동자계급출신이었는데, 운동이주류의관심을받을때면이들은있어도보이지않는존재로간주됐다. 여성학이보수적인합의기구인대학에서리틀를틀자비로소이런식의추방이완성됐다. 여성학강의실이페미니즘사고로의전환이이루어지는주요장이자사회변혁을이끌어낼전략인의식화모임을대체하자, 페미니즘운동은대중적기반을다질가능성을잃고말았다.

의식화모임에서들은바에의하면사랑을갈망하는마음은그가남성이든여성이든우리를가부장제적인연인과사랑에빠지게하고, 그연인은우리의사랑을이용해우리를정복하고종속하려하기에유혹적인덧과다름없다. 남성과의성경험을갖기전에페미니즘운동에참여했던나는여성페미니스트들의남성을 향한강렬한분노와증오심에어안이병발했었다. 하지만그분노의근원은곧이해되었다. 나만해도가족들위에군림하는아버지에대한직접적인반발로심대시절페미니즘사고를받아들였으니말이다. 군인출신에운동선수였으며교회의집사였고가장에바람둥이였던아버지는전형적인가부장이었다. 나는엄마의고통을목격했고결국아버지에게반기를들었다. 아빠가얼마나엄마를모욕하든얼마나폭력적으로대하든엄마는젠더불평등으로인한이런일들에결코짜증을내거나분노하지않았다.

처음으로의식화모임에참여했을때거기서엄마뻘여성들이고통과서러움, 분노를토로하며사랑에서벗어나야한다고주장하는모습을보았고그들의마음이이해됐다. 그러나한편으로는여전히좋은남자를만나사랑을해보고싶었다. 나만은꼭그런사랑을하리라믿었다. 그러면서도나를사랑하는남자라면그도페미니즘정치에헌신해야한다고굳게믿었다. 1970년대초, 남성과함께하고싶었던여성들은그남성을페미니스트로변모시켜야하는도전에직면했다. 그들이페미니스트가되지않는다면행복은오래갈리만무하다는사실을우리는잘알았다.

대부분의사람들이아는것처럼가부장제문화에서의낭만적사랑은사람을바보로만들고힘과통제력을앗아간다. 페미니즘사상가들은사랑에대한이런통념이가부장제적인남성과여성의이익에부합한다는사실을깨우쳐야한다고했다. 이런통념은사랑이라는이름으로뒤편할수있다는인식을뒤킵잡았다. 사람을때리고, 행동을제약하고, 심지어는목숨을앗아가고“열정때문에저지른범죄”라며“그녀를너무나사랑했기에죽일수밖에없었다”고항변을한다. 가부장제문화에서사랑은소유의개념그리고한쪽은사랑을주기만하고다른쪽은받기만해되다는지배와복종의패러다임과연결되어있다. 가부장제에서이성애중심주의적결합은, 돌봄의정서를가진젠더인여성이남성에게사랑을주어야하고권력과공격성을지닌남성은여성을부양하고보호해준다는기본전제를토대로한다. 그러나이성애자가정에서수많은경우에남성을돌봄에보답하지않았다. 대신자신이가진권력을부당하게이용해가족을통제하고강압하는폭군이됐다. 페미니즘운동초창기에이성애자여성들은더이상고통받지않으려고사랑의유대를끊기위해서운동에뛰어들었다.

페미니스트들이여성들에게아이들만바라보고살지말아야한다고강조했다는점에도주목해야한다. 아이들은여성들의완전한자아실현을가로막기위해서사랑이놓은또다른덫에불과했다. 당시페미니즘이우리에게경고하기를, 남편대신자식에게애정을 쏟는어머니란언제든지자식에게잔인하고부당한벌을내리는전제적이고부조리한괴물이라고했다. 젊어서페미니즘정치를찾은사람들은대개지배적인어머니에반기를들 경우였다. 우리는그렇게살고싶지않았다. 자칫하면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전제를 거부하고 무조건 심판하려 드는 그들의 태도야말로 실제로 페미니즘 운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 세상에는 여자들끼리 어떻게 섹스를 할 수 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여자에게 성적 욕망을 품어 본 적이 없는, 그러나 다른 여자들이 레즈비언이 되든 양성애자가 되든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선택할 권리를 지지하는 수많은 여자들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절대 끌리지 않을 성행위를 하는 레즈비언이나 이성애자들도 마찬가지로 지지받는다. 레즈비언의 가학피학성행위를 비난하는 보수적인 페미니스트들의 태도의 이면에는 동성애 혐오가 숨어 있다. 레즈비언이 이사회에서 인정받고 이성애자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엄격한 도덕적 규범을 따라야만 할 것처럼 구는 여성들은 결국 동성애 혐오를 영속화할 것이다. 확실히 가학피학적 성행위는 레즈비언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에 비해, 더 많은 이성애자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페미니스트들의 비난도 그만큼 덜 가혹하고 덜 집요해졌다.

동성애 혐오에 대한 싸움은 언제나 페미니즘 운동의 한 축을 차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성애자 여성들이 레즈비언을 계속 경멸하며 부차적인 존재로 보는 한, 여성들이 자매애를 키워나가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구적인 페미니즘 운동에서는 레즈비언 활동가들의 노고를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 급진적 레즈비언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천은 이성애 중심주의의 경계를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냐 취향 혹은 그 모두를 막론하고 모든 여성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유산을 계속해서 기리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17 장: 다시 사랑하기 위하여 — 페미니즘의 심장

사랑을 알고 싶은 여성과 남성이라면 페미니즘부터 열렬히 사랑해야 한다. 페미니즘적 사고와 실천 없이는 사랑의 결속을 만들어 낼 토대는 생겨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운동 초기에는 이성애 관계에 깊이 실망한 수많은 여성들이 여성 해방을 외쳤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사랑을 속삭이던 남자가 결혼을 하자마자 멋진 왕자님에서가부장제적인 영주로 변모하자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이었다. 이런 이성애자 여성들은 그들의 분노와 회한을 가슴에 담은 채 페미니즘 운동에 뛰어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제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낭만적 연인 관계에서 배신감을 느낀 레즈비언의 고통에 동병상련을 느꼈다. 그 결과 운동 초기부터 페미니스트들이 사랑에 관해 이야기 할 때면 낭만적 사랑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 한 여성은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갑자기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칭하거나 경제적 지위를 바꾸기 위해 젠더 차별적인 표현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여성학이 제도화되자 학계와 출판계에 여러 직업군이 등장했다. 페미니즘이 경력을 쌓는 도구로 변질되면서, 정치적으로 대중적인 페미니즘 투쟁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여성들이 자신의 계급 상승에 유리하다면 기꺼이 페미니즘의 입장과 용어를 수용하는 기회주의가 이어졌다. 의식화 모임이 와해되면서 페미니즘의 옹호자가 되려면 페미니즘에 대해 배우고 그에 근거해 페미니즘 정치를 수용할지 말지 선택해야 한다는 의식도 희미해졌다.

의식화 모임으로 여성들 역시 자신만의 성차별주의적 시선으로 다른 여성들을 바라본다는 사실과 대면하게 됐으나 이런 모임이 와해되면서 페미니즘 운동은 직장에서의 평등과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운동 방향을 전환했다. 여성을 (차별적인 법률을 개정하거나 차별 철폐 조치를 통해) 보상받아야 할 젠더 평등의 ‘피해자’로 해석하는데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여성들이 페미니스트가 되는 과정에서 우선 내면화된 성차별주의부터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힘을 잃고 말았다. 여성들은 연령을 불문하고 남성 중심주의나 젠더 평등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분노하기만 하면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는 듯이 행동했다. 내면화된 성차별주의를 직시하지 않은 채 페미니즘의 기치를 든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페미니즘을 배반하곤 했다.

1980년대 초가 되자 페미니즘 운동 초기에만 해도 몹시 중요시했던 정치화된 자매애가 희미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여성이라면 정치적인 입장에 상관없이 누구나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라이프스타일 페미니즘의 그림자가 급진적 페미니즘 정치에 드리워졌기 때문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사고 방식은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 페미니즘 정치를 약화시켰다. 페미니즘 운동이 우리 모두를 위해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억압과 착취를 종식시키는 대중 운동으로 거듭나는 전략들을 끊임없이 강화해 가면서 다시 태어날 때, 의식화는 다시 한번 본래의 중요성을 되찾을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효과적으로 본떠서 페미니즘의 의식화 모임이 공동체마다 열린다면, 계급이나 인종, 젠더를 초월해 누구에게나 페미니즘에 담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체성을 공유하는 특정 집단이 속속 나타나 매월 말이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게 될 것이다.

혁명적 페미니즘 운동에서는 남성의 페미니즘의 의식화가 여성의 의식화만큼이나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남성에게 성차별주의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있는 지역점을 두고 가르쳤다면 대중매체가 지금처럼 페미니즘 운동을 반 남성 운동이라고 묘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반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남성들의 운동도 미연에 방지했을 것이다. 정작 성차별주의와 남성 중심주의는 제대로 건드리지 않았던 현대 페미니즘의 뒤를 좇아 이런저런 남성 단체들이 생겨났다. 여성을 겨냥한 라이프스타일 페미니즘이 그랬듯이, 이런 단체들도 가부장제를 비판하거나 남성 중심주의에 저항하기보다는 남성들이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하는 공간으로 기능했을 뿐이다. 미래의 페미니즘 운동은 이런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성차별주의에 저항하는 남성들은 누구든 그에 합당한 인정과 존중을 받

는 환경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남성과 연대해 투쟁하지 않고서 페미니즘 운동은 전진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문화적인 식체계에 페미니즘은 곧 반남성 운동이라는 억측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에 반대한다. 남성의 특권을 벗어던지고 페미니즘 정치를 기꺼이 포용한 남성은 투쟁의 소중한 동료이지 페미니즘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다. 반면 여성이라 해도 성차별주의적 사고와 행동에 젖은 채 페미니즘 운동에 잠입한 여성은 운동에 해를 입히는 위험한 존재다. 그런 점에서 의식화 모임이 거둔 가장 강력한 성과는, 모든 여성에게 내면화된 성차별주의, 다시 말해 가부장제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직시하고 페미니스트로 거듭나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러한 개입은 여전히 필요하다. 페미니즘 정치를 선택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런 단계를 꼭 거쳐야 한다. 외부의 적과 맞서려면 그 전에 내면의 적부터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를 위협하는 적은 성차별주의적 사고와 행동이다. 여성이 자신의 성차별주의를 직시하지도 바꿔내지도 못한 채 페미니즘 정치의 기치를 내건다면 페미니즘 운동은 끝내 소멸해버릴 것이다.

3 장: 자매애는 여전히 강력하다

‘자매애는 강력하다’는 구호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정말이지 굉장했다. 내가 페미니즘 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던 대학교 2 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였다. 스탠퍼드 대학교로 옮기기 전 1 년 동안 여대를 다녔는데, 그 덕분에 여학생들만 있는 강의실과 남녀가 섞인 강의실에서 여학생들의 자존감과 자기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경험할 수 있었다. 스탠퍼드에서는 어느 강의실에서든 남학생들이 주도권을 잡았다. 여학생들은 발언도 잘하지 않았고 학습을 주도하는 경우도 별로 없었던 데다 발표를 해도 종종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말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패기와 자신감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남자 교수들은 수시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므로 ‘위대한’ 사상이나 작가 등이 될 리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다녔던 여대에서는 대부분이 여자인 교수진이 학생들과 그들 자신을 위해 세워놓은 학업성취도 기준에 따라 학생들의 지적 능력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줬기에 그런 분위기가 몹시 충격적이었다.

사실 나는 가장 좋아했던 백인 여성 영문학 교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그녀는 우리 학교에는 글쓰기 심화 프로그램이 없어서 내가 적절하지도 들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내가 스탠퍼드 대학교로 옮겨 공부하게끔 격려해주었다. 그녀는 내가 언젠가는 뛰어난 사상이자 작가가 되리라 믿어주었다. 스탠퍼드에 오자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고, 나조차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고 얼마 뒤 페미니즘 운동이 캠퍼스를 뒤흔들었다. 여학생들과 여자교

그러나 다름의 문제, 인종과 계급을 포함해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을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관점을 수정해온 사람들은 바로 선구적인 레즈비언 사상가들이었다. 많은 경우 그것은 그들이 주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착취나 억압 혹은 그 두 가지를 모두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구적인 레즈비언 활동가들은 이성애자 동료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백인 우월주의에 의의를 제기했다. 게다가 모든 남성들과 연대를 강화하고자 한 것도 그녀들이었다. 대다수의 이성애자 여성들은 열성적인 페미니스트건 아니건 자신과 남성의 관계에 더 신경 썼다.

여성으로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지, 누구와 몸을 나누고 함께 살지 선택할 자유는 동성애자 인권과 여성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급진주의 레즈비언들 덕분에 크게 향상됐다. 페미니즘 운동에서 예나 지금이나 레즈비언들은 모든 유색인종 여성들이 성적 취향이 나정체성에 상관없이 인종차별주의에 맞서고 저항해야 했던 것처럼 동성애 혐오에 맞서고 대항해야 했다 동성애 혐오를 연속화하면서 자신이 페미니스트라 주장하는 여성들은 백인 우월주의적 사고를 고수하면서 자매애를 원하는 여성들만큼 착각에 빠져있으며 위선적이다.

주류 대중매체는 페미니즘 운동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항상 이성애자 여성을 선택했다. 이성애자로 보일수록 더 좋아했다. 그 여성이 매력적일수록, 그녀의 이미지가 남성들의 시선을 끌수록 더 좋아했다. 여성 정체화한 여성은 이성애자든, 양성애자든, 레즈비언이든 좀처럼 남성의 인정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 이애가 부장제가 우리를 위협적으로 느낀다. 남성의 입장에서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간에 그들의 시선과 욕망을 가부장제, 즉 성차별주의적 남성들에게서 거두어 버린 페미니스트 여성보다는 가부장제 사고 방식을 지닌 레즈비언이 덜 위협적이다.

오늘날에는 이성애자 페미니스트들처럼 대다수의 레즈비언들도 급진주의 정치에 별로 흥미가 없다. 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했던 레즈비언 사상가들 중에는, 레즈비언이 이성애자 여성만큼 성차별주의자일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기 힘들어 하던 사람도 있었다. 페미니즘은 이론이고 레즈비언리즘은 그 실천이라는 유토피아적인 발상은 백인 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 문화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레즈비언들도 이성애자 여성들처럼 지배와 복종이라는 패러다임에 의지해 그들의 파트너십을 설정한다는 현실을 이기지 못해 거듭 붕괴하였다. 그리고 아무도 종속될 위험에 처하지 않고 상호 만족을 이루는 유대 관계를 맺기란 이성애자들만 아니라 레즈비언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어려웠다. 레즈비언의 동반자 관계에서 가정 폭력이 벌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동성간의 결합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평등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아차리게 되었다. 동시에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은 그들이 학피학적 인성 행위를 한다는 이야기를 이성애자 여성들보다 훨씬 더 공개적으로 털어놓았다.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성적으로 보수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지배와 복종 관계로 합의된 성관계는 옳지 않으며 이는 자유라는 페미니즘의 이상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모든 여성에게는 자신이 가장 큰 성적 만족감을 얻는 성생활을

소년시절, 내가알던강인하고다정했던레즈비언들에게배운지금도유효한교훈은, 여성이자신의안정과행복을위해남성에게기댈필요가없다는것이였다. 성적쾌락조차도말이다. 이교훈은여성들에게새로운가능성의세계를열어주었다. 그때달음은선택과대안을제시했다. 지금껏남자와함께살아오면서성적으로나감정적으로만족스러웠든아니든, 남자없어도행복할수있다는상상을해본적이없기때문에, 성차별주의적남성과의관계에안주한여성들이얼마나많은지우리는결코알수없을것이다. 어떤여성이자기존재를정당화하고이를입증하기위해자신이아닌다른무언가를필요로한다면, 그녀는자기를확인하기위해자신의힘을누군가에게양도하는셈이나름없다. 레즈비언여성들은내게어렸을때부터지금까지스스로자기인식을할수있는자유를요구해야한다고일깨워주었다.

이것이야말로급진주의레즈비언사상가들이페미니즘운동에불어넣어준특별한지혜다. 남성의허락이없어도, 남성에게성적으로인정받지않아도여성충만한삶을살수있음을머리로이해한예외적인이성애여성들이있었다해도그들은이러한믿음을실천에옮긴경험을페미니즘운동에더해주지는못했다. 페미니즘운동초기단계에우리는‘여성으로정체화한여성 woman-identified woman’이나‘남성으로정체화한여성 man-identified woman’이라는표현을썼는데, 레즈비언니즘을택하지않았지만남성으로부터실존을인정받는일을거부하는활동가들이있었기에, 이들을여성으로정체화한여성으로구분했다. 남성으로정체화한여성들은로맨틱한이성애에빠지면순식간에페미니즘원칙을내팽개치는이들을지칭했다. 그들은또한여성보다남성의편에섰으며, 늘남성들의시각으로상황을바라보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처음으로여성학을가르칠무렵, 급진주의레즈비언학생들이내게왜아직도남자에게‘빠져’있느냐고궁금해했다. 그러던어느날수업이 끝나고주차장에서그녀들과한바탕설전이벌어졌다. 그런데그때자신의레즈비언정체성을명확하게알고있으면서도섹스산업에종사하며수많은남성과관계를해야했던, 또래들보다좀더나이가많은흑인레즈비언학생이이런말로페미니스트로서의내명예를옹호해주었다. “선생님은남자와섹스를하지만여성정체화한여자야. 그건선생님의권리야. 하지만선생님은여전히우리와대의를함께하고있어.”

많은여성들이페미니즘운동에서떨어져나가던 1980 년대중반페미니스트모임에서는페미니즘정치를굳건하게지켜내는문제에대한논의가핵심주제였다. 여성들이점점더많은권리를획득해갔지만, 페미니즘운동의급진적인부분을담당했던선구적인레즈비언사상가들이나활동가들의존재와이들의노력은잊혀갔다. 페미니즘운동에서가장급진적이고용감했던레즈비언들은대부분노동자계급출신이었다. 그러니그들에겐학계에서활동하려할때요구되는학위가없었다. 페미니즘이학문으로정립되면서이성애중심주의적인위계가다시강화됐는데, 이위계질서내에서는설령학교밖에서여성운동에시간을쏟지않더라도화려한학벌을갖춘이성애자여성들이더존경받고더대접받고는했다.

수들은강의실안팎에서일어나는젠더차별을철폐하자고주장했다. 우아, 지금생각해도치열하고도근사한시절이였다. 그때나는작가틸리울슨²에게서생애최초로여성학수업을들었다. 틸리울슨은무엇보다학생들이노동자계급여성들의운명을우선적으로생각해보게끔이끌었다. 당시학자였고훗날앤색스틴³의전기를쓴다이앤미들브룩⁴은현대시수업시간에내가쓴시한편을누가 썼는지적지않은채모두에게나눠주었다. 그러고는학생들에게지는이가남자인지여자인지맞혀보라고했다. 성별을근거로작품의가치를판단하는태도를비판적으로생각해보게하는시도였다. 그때열아홉살인나는첫책『나는여자가아닌가요 — 흑인여성과페미니즘』을쓰기시작했다. 이런놀라운변화들은여성들이연대할수있는토대를마련한페미니즘운동이없었다면절대일어나지않았을것이다.

그토대는당시우리가“내부의적”이라불렀던내면화된성차별주의에대한자발적인비판위에세워졌다. 우리모두가가부장제적사고때문에여성인남성보다열등하다고여기고, 가부장제에서인정받기위해언제나여성들끼리서로경쟁해야하고, 서로를질투심과공포, 증오에찬시선으로바라보도록사회화되어왔다는사실을누구보다잘알았다. 성차별주의적사고 탓에우리는서로의처지를공감하기보다서로를가혹하게벌주려했다. 그러나페미니즘은우리여성들이자기힘을떨칠수있도록해주었다. 우리의식을단단하게엮어매던가부장제의속박에서해방될수있도록해주었다.

가부장제문화에서남성들의유대는인정과지지를받는다. 사람들은남성들이집단을만들면단결하고, 서로지지하고, 협력하고, 개인적인성취와인정보다는자신이속한집단의이익을우선시한다고아주당연시해버린다. 하지만가부장제에서여성들의유대는불가능했다. 그런행동자체가반역행위였다. 페미니즘운동은여성들의유대가가능한환경을만들었다. 우리는남성들과싸우기위해서가아니라여성으로서의권력을지키기위해모여들었다. 우리가여성작가의작품을가르치지않는교수들에맞선것은, 그교수가싫어서가아니라 (물론그런경우가많았지만) 강의실과커리큘럼에만연한젠더에대한편견을제대로몰아내고싶어서였다.

1970 년대초반, 남녀공학대학에서학생들이페미니스트로변모했듯이일터와가정에서도페미니스트들이생겨났다. 무엇보다도페미니즘운동은여성에게더이상자신과자신의몸을남자의소유물로인식하지말라고강조했다. 우리의섹슈얼리티에대한결정권과효과적인피임, 임신선택권, 강간과성희롱의근절을요구하기위해우리는단결해야했다. 여성이겪는고용차별의현실을개선하기위해집단적으로로비활동을벌여공공정책을개선해야했다. 여성의내면화된성차별

² Tillie Olsen, 1912~2007. 1 세대미국페미니스트이자작가.-역자주

³ Anne Sexton, 1928~1974. 풀리처상을수상한미국의여성시인으로정신질환을앓다가자살로생을마감했다.-역자주

⁴ Diane Middlebrook, 1939~2007. 스탠퍼드대에서오랫동안여성학을가르친여성전기작가이자시인.-역자주

주의적사고를끄집어내이를뜯어고치는것이궁극적으로온나라를뒤흔들강력한 자매애를만들기위한첫걸음이었다.

혁명적민권운동의뒤를이어 1970 년대와 80 년대에일어난페미니즘운동은 이나라의얼굴을바꾸었다. 이런변화를가능케했던페미니즘활동가들은모든여성의복지에관심을쏟았다. 자매애로드러난여성들의정치적연대가여성의경험을긍정하는데그치지않고공동의고통에대한연민을나누기까지한다는사실을우리는잘알았다. 페미니스트들의자매애는어떤형태든지가부장제로인한모든불의에대항해투쟁했던경험을공유하며다져졌다. 여성들의정치적연대는항상성차별주의를악화시키고가부장제를전복시킬판을짜다. 여성들이종속적인지위의여성들을지배하고착취하는권력을스스로기꺼이벗어던지지않았더라면, 인종과계급의경계를넘어모두를아우르는자매애는불가능했다는사실을명심해야한다. 여성들이다른여성들을지배하기위해계급이나인종적특권을이용하는한, 페미니즘의자매애는완전히실현되지못한다.

1980 년대들어내면화된성차별주의를벗어던지게하는페미니즘의식화를거치지않은채기회주의적으로페미니스트임을자임하는여성들이점점늘어나강자가약자를지배해야한다는가부장제의명제가그들과다른여성들과의관계에도영향을미치기시작했다. 특히원래참정권이없었으나이제는특권을손에쥔백인여성들이, 내면화된성차별주의를버리지않은채계급권력을언자여성들간의분열이심화되었다. 유색인종여성들이사회전반에만연한인종차별주의를비판하고인종차별주의가어떻게페미니즘이론과실천의틀을짜고거기에영향을미치는지에주목하자고호소할때, 수많은백인여성들은머리와가슴의문을걸어닫고자매애라는이상으로부터매몰차게등을돌렸다. 그리고여성들사이의계급갈등문제에있어서도상황은마찬가지였다.

거의가계급특권을지닌백인여성들의토론이긴했으나페미니스트들이소외계층여성의예속화와인간성말살에동참하지않겠다며가사도우미를고용하는것이옳은지그르짓로하던모습이지금도생생하다. 물론그중일부는피고용인들과긍정적인유대관계를형성해, 더큰맥락에서보자면여전히불평등하긴하나서로에게도움을주는관계를만들었다. 어차피유토피아에도달할수없기에자매애를포기하기보다는모두의이해관계를고려한, 현실적인자매애를창안한것이다. 이것이바로여성들사이에서맺어진페미니스트연대가어렵게이뤄낸결과였다. 안타깝게도, 페미니즘운동내부에서기회주의가팽배할수록, 페미니스트들이거둔결실을대단창게여기고그성과를당연시할수록이런연대의형성과지속을위해열심히고민하는여성들이점점줄어들었다.

수많은여성들이자매애의신념을간단히포기했다. 한때가부장제를비난하고이에저항했던여성들이성차별주의자남성들과다시결탁했다. 급진적성향의여성들은여성들사이에서벌어지는치열하고적대적인경쟁에배신감을느껴순수히물러서기도했다. 그리고이시점에서모든여성의삶을긍정적으로변화시키겠다는목적을지녔던페미니즘운동은점점계층화되었다. 운동의구호로외쳤던자매

적각성과선택을경험한여성들은대개좌파정치에뛰어들게되었다. 그러나각계각층에서모인급진적성향의여성들은사회주의자모임과민권운동, 전투적흑인운동같은급진적인운동의그늘에가려져있었을뿐만아니라늘뒤치다꺼리를떠맡았기에자기자신을위한정의를주창할준비가이미되어있었다. 페미니즘운동에나설준비가되어있었던것이다. 그리고가장준비된사람들가운데에서도진정으로선구적이고용기있는이들은그때나지금이나수많은레즈비언들이었다.

나는첫성경험을하기도전에페미니즘을접했다. 그때나는십대였다. 여성의권리에대해서무언가를배우기도전에동성애에대해서는알고있었다. 종교적인본주의가뿌리내리고흑인들이격리되어살아야했던미국남부의좁고편협한세계에서는누가게이인지다알고지냈으며특별한지위를누리는이들도많았다. 계급권력을지닌남성인경우도적지않았다. 남성들의동성애는여성들의동성애보다더쉽게받아들여졌다. 내가살았던작고격리된흑인공동체에서는레즈비언도대개이성애자남성과결혼을했다. 그러나그들은자신의진짜모습을잘알았다. 그래서그들은은밀한작은술집이나파티장같은눈에잘띄지않는곳에서는진정한자아를드러냈다. 레즈비언이라고비난받았던여성들가운데한분이내멘토가되어주었다. 전문직여성이자독서가였고사색가였으며파티걸이었던그녀는내가존경하던여성이었다. 아버지가그녀를“웃기는여자”라며우리의유대관계에대해불평을하자엄마는“사람들은타고난모습대로살권리가있다”며반박했다. 우리집맞은편에살았던게이남자가십대소년들에게잔인하게조롱받고괴롭힘을당할때도엄마는그남자가책임감있고다정한사람이고그를존중하고사랑해야한다고말씀하시며그를위해싸우셨다.

나는페미니즘이라는용어를알기훨씬전부터게이들의권리를옹호했다. 우리가족은내가결혼을하지않을까봐걱정하기전부터내가레즈비언이아닐까걱정했다. 사실나는어디든내피가끓는곳으로가리라는걸예감했기에내멋대로진정한괴짜가되어가는중이었다. 첫책『나는여자가아닌가요 — 흑인여성과페미니즘』을 썼을때나는이미이성애자와양성애자, 그리고동성애자임을밝힌여성들과함께페미니즘운동에참여하고있었다. 그시절우리는젊었다. 그리고당시우리중어떤이들은우리의정치성과우리의몸을여성들과공유함으로써진심으로이운동에헌신하고있다는사실을증명하라는압박감을받았다. 그무렵모두가깨달은교훈이있는데, 도덕관습을거스르는성행위를한다고해서그사람이진보적인사람이되는것은아니라는사실이였다. 첫책이나왔을때흑인레즈비언여성들에게격찬항의를받아어리둥절했었다. 그들은내책에레즈비언이즘에대한언급이없다는이유로나를동성애혐오자라고비난했다. 그주제에대해다루지않았다는것이내가동성애를혐오한다는증거인건아니었다. 나는그책에서아예섹슈얼리티문제를다루지않았다. 아직준비가되지않았기때문이다. 그주제를충분히알지도못했다. 좀더알았다면책에썼을테고그랬다면아무도내게동성애혐오자라는 딱지를붙일수없었을것이다.

로주조된 여성성과 성적매력의 통념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결과 보면 여성이 남성의 욕망의 대상이든 아니든, 우리가 성적인 가치와 힘을 지닌 존재라고 스스로를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성적으로 해방된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급진주의 페미니즘 사상가들의 판단은 옳았다. 가부장제가 뿌리깊게 남아있는 사회에서 성적 감정과 정체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보여줄 페미니즘 이론이 다시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페미니즘 담론이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정치란 여전히 이론과 실천의 결과로서 상호간 행복의 비전을 제시하는 유일한 사회운동이다. 우리는 성적 욕망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성적 쾌락 속에서 삶을 긍정하는 정신을 발견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토대로 하는 존재의 성애학을 필요로 한다. 성적인 유대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독에서 벗어나 공동체로 들어오라고 손짓한다. 성적 갈망의 긍정적 표현들이 우리를 이어주는 세상에서라면, 우리는 각자의 성장을 지지하고 긍정하는 성적 실천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성적 실천에는 난교든 급진주의든, 어떤 특정한 성적 정체성이나 취향을 가졌든, 상대의 성별이나 인종, 계급, 심지어 성적 취향이 무엇이건 간에 에로틱한 끌림이 불꽃처럼 튀는 특정한 누군가와 관계할 때만 불붙는 미지의 욕망을 탐색해볼 수도 있다. 섹슈얼리티에 관한 급진주의 페미니즘 담론은, 성적 자유를 추구하는 운동이다 다시한번 시작되게끔 반드시 수면위로 올라와야 한다.

16 장: 완전한 행복 — 레즈비어니즘과 페미니즘

여성해방운동과 성해방운동 중 무엇이 먼저 시작되었는지 선뜻 판단하기 어려운 때가 가끔 있다. 어떤 활동가들에게는 두 운동이 서로 뒤섞여 동시대에 존재했다. 적어도 최초로 현대 페미니즘 운동의 선봉에 섰던 수많은 양성애자와 레즈비언 여성들은 확실히 그랬다. 이들은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페미니즘 운동에 합류한 것이 아니었다. 레즈비언은 대부분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으며, 보수적이었고, 급진적인 행동을 취할 생각도 없었다. 여성해방운동의 최선봉을 형성하는데 일조한 레즈비언과 양성애자 여성들은 계급, 인종, 섹슈얼리티의 고정된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미 좌파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기에 페미니즘 운동으로 흘러들었다. 그들이 젠더와 욕망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에 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이미 심리적으로는 여성해방의 가치를 든 것이나 다름없었다.

단지 레즈비언이라고 페미니스트가 되지 않는다는. 정치적으로 변모할 때는 레즈비언이라는 사실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착취당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좀더 저항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랬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레즈비언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이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싶어해야 할 것이다. 정치

애는 여성들에게 점점 중요치 않아졌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힘이었던 여성들의 정치적 연대는 그 후로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 페미니즘 운동이 처음 시작됐을 때처럼 다시 한번 여성들의 정치적 연대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현대 페미니즘 운동 초기에, 우리는 정치적 연대를 실현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자매애라는 비전만 가지고 있었다. 경험과 노고는 물론이고, 실패와 실수에서 얻은 교훈들을 통해 이제 우리는 페미니즘 정치에 발을 갖들인 입문자들에게 우리의 연대를 만들고,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이론과 공유된 실천 사례를 갖고 있다.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잘 모르는데다, 성차별주의를 더 이상 문제시하지 않는 그릇된 인식 또한 널리 퍼져있기에 비판의식을 키우는 페미니즘 교육이 지속되어야만 한다. 페미니즘 이론가들은 어린 여성들이 자라면서 저절로 페미니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겐 길잡이가 필요하다. 이 사회의 여성들 대부분이 자매애의 가치와 힘을 망각하고 있다. 새롭게 거듭난 페미니즘 운동은 다시금 '자매애는 강력하다'는 가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여성들 중에서도 급진적인 세력들은 자매애의 결속을 다지고 여성들의 페미니즘 정치 연대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인종과 계급의 벽을 넘어 단결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여성들이 서로를 지배하지 않아도 자아 실현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성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이론과 실천을 계속해서 정립하고 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자매애가 완전히 실현 가능한 것이며 여전히 강력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4 장: 비판의식을 키우기 위한 페미니즘 교육

여성학 강의가 개설되기 전이나 페미니즘 문학이 등장하기 전, 여성들은 개별적으로 모임을 꾸려 페미니즘을 공부했다. 이런 모임에서 여성들은 성차별주의에 대한 분석과 가부장제에 저항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아우르는 페미니즘 이론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전부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가 왜 특정한 관점을 갖거나 특정한 행위를 하는지의 식적으로 탐구하든 말든, 사고와 실천을 형성하는 체계는 언제나 그 주변에 놓여 있다. 페미니즘 이론은 처음부터 성차별주의적 사고가 어떻게 작용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 변화를 이끌어낼지 남녀 모두에게 설명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시절우리는부모와사회에의해성차별주의적사고를받아들이도록사회화되었다. 우리는대개우리인식의기반에대해시간을들여차분하게고민해보지않았다. 페미니즘사상과이론덕분에우리는그래야한다는사실을깨달았다. 처음에페미니즘이론은구전되거나조잡하게만든소식지와소책자로전파되었다. (여성들이쓰고, 인쇄하고, 마케팅을비롯해모든단계에서제작에관여하는) 여성출판이점점발전하면서페미니즘사상을전파할수있는장이마련되었다. 1970 년대에쓴첫책『나는여자가아닌가요 — 흑인여성과페미니즘』을 1981 년에출간했는데, 책을펴낸사우스엔드프레스출판사는소규모사회주의단체로구성원의최소한절반이여성페미니스트들이었으며남성구성원들도모두성차별주의에반대하는곳이었다.

여성의역사를복원하라고강하게요구하면서동시에페미니즘문학을쏟아낸공이야말로현대페미니즘이거둔가장강력하고성공적인성과였다. 젠더차별의결과, 문학이든학술이든어느분야에서든여성이쓰글은역사적으로거의혹은아예관심을받지못했다. 다행스럽게도페미니즘운동으로커리큘럼에편견이작용한다는사실이드러나자사람들의기억에서사라졌거나무시되었던작품들이상당수재발견되었다. 대학에여성학강의가신설되면서여성작가들의작품을학문적으로연구할제도적당당성도갖췄다. 흑인문화연구에이어생겨난여성학은편견없이젠더와여성에대해배우고연구할수있는장이되었다.

흔히여성학강의에서교수들이남성작가의작품을쓰레기취급한다는고정관념과는달리, 예나지금이나그런일은없다. 설령여성들의작품이남성들의작품보다엄청나게뛰어나지않은경우가더러있더라도, 남성들의작품만큼이나뛰어나고재미있는작품이 많다는사실을보여줌으로써성차별주의적인사고에개입할뿐이다. 남자가쓴소위위대한문학이비판의대상이되는때는, 미학적가치를따지는과정에서작품에편견이가득하다는사실을알게될때뿐이다. 내가들은그어떤여성학강의에서도남성작가의작품이별볼일없다거나영똥한소리라는식으로평가절하한적이없었고그런강의가존재한다는이야기도들어본적이없다. 페미니스트들은남성작가로서만채워진학술이나문학의정전에대해비판하면서젠더에근거한편견들을폭로할뿐이다. 무엇보다이러한폭로는여성작가들의작품을재조명할여지를만들고여성들이쓴작품과여성에대해쓴작품이새로이등장할이시대의무대를만든다는점에서중요하다.

여성학이제도학문으로자리를잡자페미니즘운동에가속이붙었다. 전국강의실에서젊은지성들이페미니즘사상을배우고이론서를읽고자신들의연구에페미니즘을적용할수있게되었다. 대학원시절논문을준비할때, 페미니즘의영향을받았던나는당시에는널리읽히지않던흑인여성작가토니모리슨⁵에대해쓰기로정했다. 페미니즘운동전에는흑인여성작가의문학작품에대한진지한연구는찾기

근본적으로말하자면, 해방된성생활그리고성적쾌락과충만함을서로의선택과합의가보장되는환경에서가장잘누릴수있다는확신을위해서는서로를존중하는태도가필수적이다. 가부장제사회에서는남성과여성모두각자의성차별주의적사고를벗어던지지않는한, 지속적인이성애의희열을경험할수가없다. 아직도수많은여성과남성이남성의성행위가음경의단단함과지속에만달려있다고믿고있다. 남성의성행위에관한이런인식자체가성차별주의적사고에얽매인결과다. 남성이여성의섹슈얼리티가남성의욕구에봉사하고남성을만족시키기위해존재한다는성차별주의적생각을버려야한다면, 많은여성또한삽입에대한집착을버려야한다.

성해방에대한담론과현대페미니즘운동이한창일때, 여성들은남성들이다른모든분야에서의평등은기꺼이받아들인다고해도섹슈얼리티문제만큼은그러지못한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 많은남성들이침대에서성욕을적극적으로표현하는여성과즐거움을주고받고싶어하지만그녀의성행위가 (즉그녀가섹스를원하느냐원하지않느냐) 남성의욕망에의해결정되어야한다는성차별주의적전제는끝내버리지않았다. 성욕이강하고성적으로해방된여성과의섹스는재미있지만, 이들여성들이섹스하고싶지않을때도있다고선언하는순간재미는없어졌다. 이런일이일어나면이성애자남성은성욕을해소할다른방법을찾겠다는의사를명확하게밝히는경우가적지않았는데, 이는남성들이지닌여성의몸이라면누구든상관없다는생각뿐아니라, 여성의몸이남성의것이라는성차별주의적패러다임을계속고수하는현실을잘보여주는행동이었다. 동성애자든이성애자든해방된관계라면양자가음징을두려워하지않고언제그리고얼마나자유롭게가질지자유롭게결정할수있어야한다. 모든남성이자신의성적욕구에자기아닌다른사람도부응해야한다는믿음을버리지않는한, 파트너의성적복종을요구하는태도도계속될것이다.

진정으로해방된페미니즘성정치라면언제나여성의성적자기결정권을중심에놓아야한다. 이러한주체성은여성이자신의성적신체가타인에게봉사하기위해항상대기해야한다고믿는다면절대성립할수없다. 성매매업에종사하는일부여성들을비롯한어떤여성들은자신의성을물건이나서비스와자유롭게교환하는행위를그들이해방됐다는지표로삼는다. 이들은여성이다리물질적필요를충족할방법이없어서성매매를할때언제든지자기몸을스스로통제할수있는성적자기결정의공간을박탈당할위험에처한다는사실을인정하지않는다.

대다수이성애자여성들은아직도남성이그들을원해야만여성으로서자신의섹슈얼리티가의미와가치를지닌다는성차별주의적전제를차마버리지못하고있다. 이성애자여성들이이런믿음을버리고자한다면동성간의성적접촉과자위, 독신생활또한가부장제문화에서남성과관계를맺는것만큼생기넘치고인생을풍요롭게만든다는사실을받아들여야만한다. 한때는페미니즘이이끌어낸변화를지지했던다수의나이트여성들은자신들을버리고더젊은여성을찾아떠나버릴것같은두려움을 품게하는남성들과어떤식이든성적접촉을가지려면성차별주의적으

⁵ Toni Morrison, 1931~ . 흑인여성작가최초로노벨문학상을수상한미국작가.-역자주

이다. 페미니스트의섹슈얼리티에대한질문은궁극적으로권력문제와단단히이
어져있다. 페미니즘사상가들이평등에대해아무리입아프게이야기를해도, 정작
성용과성적열정의발현문제만오면성적무대에서피어오르는권력과무권력의
역학이억압자와피억압자의단순화된개념을붕괴시켰다. 레즈비언페미니스트
가성적인과학피학적관계를맺는다는사실, 즉권력이있는자와권력이없는자의
입장이용인되는부치와팸의세계가존재한다는폭로만큼페미니스트가이성애를
비난했던근거를뒤흔튼것도없었다.

실제로, 페미니즘운동에참가한여성들이레즈비언이건이성애자건성적가학
피학적관계를맺으면서해방된여성이될수있느냐하는문제로싸우기시작하자,
섹슈얼리티에관한모든급진적인페미니즘논의는끝이나고말았다. 이문제는가
부장제적포르노그래피의의미와중요성에대한의견차이와얽혔다. 페미니즘운
동을분열시키고붕괴시킬정도의파괴력을가진문제와직면하자, 1980 년대가저
물어갈즈음섹슈얼리티에대한급진적인페미니즘담론은더이상공개적으로논의
되지않게되었고, 사적인자리에서만이주제로토론이루어졌다. 섹슈얼리티에
대한공개적인논의가페미니즘운동을황폐화시킨것이다.

섹슈얼리티에대해공개적으로가장활발하게이야기한페미니스트들은보수
적인경향이있었는데어떤이들은청교도적이고섹스에반대하기까지했다. 페미
니즘운동은여성의성해방을촉구하고장려하던장에서성폭력과피해자문제에더
집중하는공개적인논의의장으로그성격이급격하게변했다. 한때여성의성적자
유를누구보다열렬하게옹호했던주류의원로여성페미니스트들이이제는성적쾌
락을하찮은것으로취급하며, 금욕을권장하기시작했다. 공개적으로여성의성욕
과성생활에대해목소리를내고글을쓰던여성들이점점페미니즘성정치에서발길
을돌리거나거리를두게되었다. 그리고어느새페미니즘운동은과거그어느때보
다본래반섹스주의인것으로인식되었다. 결국성적열정과성적쾌락에관한선
구적인페미니즘담론은대다수사람들에게무시당한채무대뒤로몰려났다. 이에
여성과남성은그빈자리를가부장제가제시하는성적자유로채웠다.

성혁명과페미니즘운동에도불구하고우리는많은이성애자여성들이단지남
성이원한다는이유로섹스를한다는것을, 남성이든여성이든젊은동성애자들의
성적취향을사적으로든공적으로든있는그대로긍정하는환경이여전히마련되어
있지않다는것을, 성녀아니면창녀라는성차별주의적도식이여전히남성과여성
의에로틱한환상을채우고있다는것을, 가부장제적포르노그래피가지금대중
매체의모든부분에스며들어있다는것을, 원치않은임신이증가추세에있다는것
을, 십대들이대개불만족스럽고불안정한섹스를한다는것을, 이성애자든동성애
자든오랜세월부부생활이나동반자관계를맺어온여성들이섹스리스로사는경우
가많다는것을잘안다. 이모든사실들을종합해볼때우리는섹슈얼리티에대한새
로운페미니즘담론을만들어내야한다. 우리는여전히해방된성적실천이란어떤
것인지탐구해야한다.

어려웠다. 앨리스워커⁶는명성을얻고난후부터조라닐허스턴⁷의작품을복권하
는작업에참가했는데, 얼마지나지않아허스턴은미국문학계에서가장뛰어난흑
인여성작가로등극했다. 페미니즘운동은여성들이거둔학문적성과에대한존중,
과거에쓰인그리고현재쓰이는여성저작물에대한인정, 그리고커리큘럼과교육
학에자리한젠더에따른편견을철폐하라고요구함으로써혁명을일으켰다.

여성학이제도화되자페미니즘에대한지식이널리퍼졌다. 여성학은열린사고
를지속적으로제공함으로써페미니스트로거듭날수있는합법적인장소로자리했
다. 여성학수강생들은거기에서뭔가를배우고자했다. 그들은페미니즘사상에대
해더많이알고싶어했다. 우리중많은학생들이정치적으로각성한곳도바로여성
학강의실이었다. 가부장제적가정에서자란나는남성중심주의에맞서다보니부
지불식간에페미니즘사상에는을뜨게되었다. 하지만단지착취나억압체계의피
해자가되거나거기에저항한다고해서왜그런일이일어났는지혹은이를어떻게바
꿀수있는지알게되는것은아니다. 나는대학에입학하기한참전에페미니즘정치
를신념으로받아들였지만페미니즘강의실에서비로소페미니즘사상과이론을배
울수있었다. 또한그곳에서비판적으로사고하고흑인여성으로서의경험을글로
쓰라는격려도받았다.

페미니즘사상과이론은 1970 년대전반에걸쳐죽생산돼왔다. 그리고이여
성들이끓임없이다양한발상에대해대화를나누고패러다임을검증하고다시고쳐
왔다는점에서공동작이었다. 일례로흑인과유색인종여성들이페미니즘사상을
형성하는요소중하나로인종에대한편견을문제삼았을때, 특권계급여성들은자
신들이진짜여성의경험이라고믿었던것들에결함이있을수있다는개념을접하고
일단이를부정했다. 하지만시간이흐르면서페미니즘이론은변화했다. 많은백인
여성사상가들이재고의여지없이자신이가진편견을인정했지만, 여전히이해
단한변동이었다. 1980 년대후반에이르자거의모든페미니즘분과들이인종과계
급의차이에대한인식을이론에반영하게되었다. 페미니즘운동과페미니스트연
대에진심으로전념해온여성연구자들은여성이처한현실을분석하는이론을생산
하는데열정을쏟았다.

여성학이제도화학문으로인정받은일은페미니즘사상의발전에도중요한역할을
했지만, 이과정에서새로운문제점들이생겨났다. 이론과실천에서직접적으로출
현한페미니즘사상은배타적인전문용어를만들어내는메타언어적인이론에밀려
갑작스럽게사람들의관심에서멀어졌다. 이론은오로지학계사람들을위해서만
쓰였다. 일군의페미니즘사상가들이특정집단에‘속한’사람들만이해할수있는이
론을쓰는엘리트집단을만들려고뽄뽄뽄친것처럼보였다.

⁶ Alice Walker, 1944~. 『컬러피플』로흑인여성작가최초로풀리처상과전미도서상을수상
했으며, 흑인민권운동에참여했던인권운동가이자페미니스트.-역자주

⁷ Zora Neale Hurston, 1891~1960. 미국의흑인여성문인이자인류학자로대표작으로는
『그들의눈은신을보고있었다』가있다.-역자주

학계밖여성과남성들은더이상중요한청중으로여겨지지않았다. 페미니즘사상과이론은더이상페미니즘운동과이어지지않았다. 학계에서의정치와출세지상주의가페미니즘정치에그늘을드리웠다. 페미니즘이론이학계라는게토에안주하면서그외부와외연결고리는약해졌다. 학계에서는예나지금이나연구가진행되고있으며때로통찰력이담긴결과물이나타나기도하나이러한통찰은대중에게거의알려지지않는다. 그결과페미니즘사상이학문으로고착되어탈정치화가진행되면서페미니즘운동이약화하였다. 급진성을상실한페미니즘운동은젠더에초점을맞춘다는것말고는어느분과학문과다를바가없어진듯하다.

사람들에게지식을전달하고, 페미니즘사상과페미니즘정치에대한이해를돕는글은다양한문체와형식으로쓰여야한다. 특히청년문화를다루는글이필요하다. 그러나학계에서이런글을쓰는사람은아무도없다. 젠더정의를위한투쟁이만들어낸변화를보수주의자들이다시되돌리려고기를쓰는바람에이미대학에서여성학강좌가위기에처해있긴하나포기할것이아니라오히려지역공동체를기반으로페미니즘공부모임을시작해야한다. (전도하는종교인들처럼) 집집마다찾아다니며자료를나눠주고시간을들여서페미니즘이대체무엇인지설명하는대중적인페미니즘운동을상상해보라.

페미니즘운동이정점에달했을때, 성차별주의적시각을담은어린이책들이도마위에올랐다. 사람들은‘편견에서해방된’어린이책을썼다. 그러나우리가비판적인시선으로경계하기를늦추자성차별주의가다시금고개를쳐들었다. 아이들은신념과정체성이아직형성되는과정이므로어린이문학은비판의식을키우기위한페미니즘교육에서가장결정적인부분을차지한다. 그리고대개아이들은놀이터에서젠더에대한편협한사고를일상적으로접하게된다. 페미니즘활동가들은어린이를대상으로하는공교육분야에서편견이배제된커리큘럼이사용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야한다.

미래의페미니즘운동은반드시페미니즘교육을모두의삶을구성하는중요한요소로인식해야한다. 스스로의힘으로부를축적했든지투쟁의동맹자인부유한남성들에게기부를받았든지간에, 경제적으로여유가있는여성페미니스트들이생겨났다. 그러나소녀소년과성인남녀를위해페미니즘원칙에입각한학교는단한곳도설립되지못했다. 모두에게페미니즘을가르치는대중기반의교육운동을일구는데실패했기에우리는가부장제주류대중매체가페미니즘을전파하는모습을, 그것도대개부정적으로전파하는모습을지켜볼수밖에없었다. 페미니즘사상과이론을모두에게가르친다는말은우리가학제를넘어서고심지어문자언어마저넘어서야한다는뜻이다. 시중에나온페미니즘관련서도읽기버거워하는사람들이많다. 오디오북과노래, 라디오, 텔레비전모두가페미니즘에대한지식을퍼뜨리기위한수단이다. 또한우리에게는단순히여성시청자를대상으로하는방송망이아닌, 페미니즘텔레비전방송망도필요하다. 페미니즘텔레비전방송망을만들기위한기금을모으는과정은페미니즘사상이전세계로퍼져나가는데일조할수있다. 그런방송망을소유할수없다면기존방송망에서시간대를살수도있다. 잡지

게섹스에동의하리라고멋대로생각했다. 그리고상당수의이성애자페미니스트들도가부장제남성이주입한틀에자신의행동을끼워맞췄기에똑같이오해했다. 그러나여성들이성적문란함과성적해방이절대같지않다는사실을깨닫기까지그리오래걸리지않았다.

페미니즘운동이한창‘뜨거울’때급진주의레즈비언활동가들은, 가부장제문화환경에서여성이해방된이성애를경험할수있을지에대해문제제기를하며이성애자여성들에게남성과의유대를재고해보라고계속해서요구했다. 이러한문제제기는페미니즘운동에도움이되었다. 이는이성애자여성에게는이성애적상황을끊임없이비판적으로경계하게이끌었고, 레즈비언들의강점을긍정적으로부각하면서도취약점도드러내는식으로레즈비언들을주목하게했다. “페미니즘은이론이고레즈비어리즘은실천이다”라는유명한구호에마음이끌려남성과의관계에서여성과의관계로 옮겨간이성애자여성들은이내이런관계에서도다른관계만큼정서적으로교감하기위해노력을기울여야하며그외에도갖가지어려움이따른다는사실을깨달았다.

레즈비언관계가이성애관계만큼, 혹은그보다더좋은지는두사람이동성이라는사실로정해지는게아니다. 모든관계에는지배하는쪽과복종하는쪽이있다는가학피학적 SM 전제를기반으로하는지배의문화에영향을받은로맨스와동반자관계의관념을얼마나깨부수느냐에달려있다. 이성애관계처럼레즈비언들의성적자유분방함도성해방과동일시될수는없었다. 개인의성적취향과관계없이이들을동일시해감정적인고통을겪은여성들은섹스에대해한말을느꼈다. 그리고남성중심주의와성폭력사이의관계를고려해보면남성과사귀는여성들이자신의성적불행에대해가장할말이많다는것도전혀놀랍지않다.

성적자유를둘러싸고벌어진일들에대한한말로인해, 수많은페미니즘사상가들은이러한경험들이나동성친구나동료가직면한파탄난관계를외면하고떠나갔다. 이때이들의마음속에는모든성행위, 특히남성과맺는성관계에대해억눌린적개심이자리잡게되었다. 한때여성들에게‘적과의동침’을다시생각해보라고외롭게목소리를냈던급진주의레즈비언들에게이제남성과의관계에한말을느끼고동성과유대를맺기로택한이성애자여성들이합류했다. 갑자기섹슈얼리티에대한논의, 특히성행위에대한모든종류의논의가모든성교는성적으로강제된것이며남성의성기삽입은강간이라는식으로흘렀다. 한동안이런이론과이를설파하는카리스마넘치는몇몇여성들이새롭고남다른성적정체성을정립하고자애쓰는젊은여성들의의식에대한영향을미쳤다. 이런여성들중상당수가양성애를택하거나여성이성적접촉방식을전적으로결정하기로합의하는남성과의관계를택했다. 하지만대다수젊은여성들은페미니즘에간단히등을올렸다. 그러고는성적자유에대해진부한성차별주의적개념으로돌아갔는데, 때로는복수하는심정으로그러는듯보이기도했다.

그러므로성적해락과위험, 성적자유와굴레사이에서발생하는긴장의결과로서불거진충돌과모순이성적가학피학증의매력적인근거로작용한것은당연한일

이었다. 여성은태어나는순간부터성차별주의적사고를주입받는다. 즉성욕과성적쾌락은늘그리고오로지남성의전유물이며여성으로서의덕목을지니지못한여성들이나성적욕구나갈망을드러내는것이라고배운다. 성차별주의적사고는여성을성녀또는창녀로만구분했으며여성이건강한성적자아를구축할만한토대는존재하지않았다. 다행스럽게도페미니즘운동은곧장전형적이고성차별주의적인성에대한고정관념에맞섰다. 마침그무렵미국역사상처음으로누구나믿을만한피임기구를쉽게구하게되었다는점도운동에유리하게작용했다.

믿을만한피임기구가등장하기전에는여성이성적으로자기주장을하는경우언제나원치않은임신과불법적인임신중단의위험이라는‘징벌’로이어졌다. 믿을수있는피임기구가존재하기이전의여성들이감내해야했던각종성병과공포를세상에알려줄증거들을우리는충분히모르지못했다. 여성이섹스할때마다임신의위험을감수해야하는세상, 남성은섹스를원하고여성은그걸두려워하는세상이라니나라로서는떠올리는것만으로도공포스럽다. 이런세상에서욕망하는여성은자신의욕망과두려움이겹쳐진다는사실을알았을것이다. 우리는남성의성적접근을여성들이어떤방법으로물리쳤는지, 지속적인부부간성폭력에여성들이어떻게대응했는지, 원치않은임신을처리하기위해어떻게죽음까지무릅쓰는지에대해알려줄자료를충분히축적하지못했다. 하지만우리는페미니즘성혁명의등장으로말미암아여성섹슈얼리티의세계가완전히바뀌었다는사실은잘안다.

엄마들이감내했던성적고통과괴로움, 성에대한지독한두려움과증오를목격해왔던우리가더욱주체적으로성적욕망을표현하게됨과동시에자유와쾌락, 환희를약속하는페미니즘운동에뛰어들게되다니실로근사했다. 요즘에는여성이성욕을표현할때이를가로막는장애물이별로없기에우리문화에서가부장제가여성의몸과섹슈얼리티에퍼부은공격에대한역사적인기억은삭제돼버릴위험이있다. 이렇게기억이희미해진틈을타임신중단권을불법화하려는세력은임신중단수술금지가여성의섹슈얼리티에얼마나치명적으로작용할지제대로논의도않은채, 태아를죽일지말지에만초점을맞추려고기를쓴다. 우리는여전히성적쾌락이라고는모르는, 섹스가오로지상실이자위험, 위협, 소멸인줄아는세대의여성들과함께살고있다.

여성이성적자유를누리려면믿을만한고안전한피임기구가반드시있어야한다. 그렇지않으면여성은성행위의결과를완전하게통제할수없다. 한편여성이성적자유를누리기위해서는자기몸에대한지식을갖추는한편성적자기결정권의의미도숙지하고있어야한다. 섹슈얼리티와관련한초기페미니즘운동은여성의원할때, 원하는상대와섹스할수있는권리를얻기위한정치투쟁에과도하게집중한 나머지, 반성차별주의적방식으로우리몸을존중하는법이나해방된섹스란어떤것인지가르쳐주는비판적페미니즘의식화교육은좀처럼이뤄지지않았다.

1960년대말 1970년대초, 여성들은성적자유와성적문란함을같은것으로여기게끔부추겨졌다. 당시에는그리고지금까지도이성애자남성들대부분은성적으로해방된여성은어떤요구도없이특히정서적친밀감같은결안달하지않고쉽

「미즈 Ms」의경우오랫동안성차별주의자인남성들이일부소유했으나지금은페미니즘에깊이헌신하는여성들이소유하고있다. 이것이올바른방향을향한한걸음이다.

여성이든남성이든모두에게페미니즘교육을제공하는대중운동을조직하지않으면페미니즘이론과실천은주류언론이만들어낸부정적인정보로인해늘힘을잃고말것이다. 페미니즘운동이우리삶에어떤긍정적인기여를했는지직접나서서널리홍보하지않는다면나라의시민들은페미니즘이어떤결실을거두었는지모를것이다. 페미니즘을부정적으로그리는지배의문화가페미니즘이공동체와사회복지에건설적으로기여한공을가로채기도한다. 대부분의사람들은페미니즘이우리삶을긍정적으로변화시킨무수히많은것들에대해전혀알지못한다. 페미니즘사상과실천을공유해야페미니즘운동을어나갈수있다. 페미니즘지식은모두를위한것이다.

5 장: 우리의몸, 우리자신 — 임신선택권

현대페미니즘운동이시작되었을무렵운동과가장밀접한관계가있다고여겨졌던이슈들은(대부분물질적으로도풍요로웠던) 고학력백인여성의경험과직결되어있었다. 페미니즘운동이민권운동과성해방운동에뒤이어출현했기때문에그당시에는여성의몸을둘러싼문제들을중요시하는게타당해보였다. 대중매체는미사아메리카선발대회에서브래지어를불태우는여성들부터임신중단을요구하는여성들로이어지는이미지가페미니즘운동이라는인식을온세상에퍼뜨렸지만이런이미지와반대로페미니즘운동을촉진한첫번째이슈는바로섹슈얼리티문제였다. 다시말해여성이언제그리고누구와섹스할지선택할수있는권리에대한문제였다. 여성의몸에대한성적착취문제는사회주의운동이든민권운동이든사회정의를위해싸우는급진적인운동의내부에서도흔하게발생했다.

이른바성혁명이정점에달했을때자유연애(보통은원하는상대와원하는만큼섹스한다는뜻이었다) 라는이슈로여성들은원치않은임신문제를정면으로바라보게되었다. 자유연애를둘러싼젠더평등에대해논하기에앞서여성은피임과임신중단을안전하고효과적으로할수있어야만했다. 계급특권을지닌백인여성들이야대개이두가지보호장치를모두누렸지만, 대다수여성은그렇지못했다. 계급특권을지닌여성들중에도원치않은임신을너무나수치스러운나머지신뢰할만한의료서비스를직접활용하지않는경우도찾았다. 1960년대후반에서 1970년대초사이애임신중단권을요구했던여성들은불법적인수술로인한비극이나원치않은임신때문에어쩔수없이결혼하는재앙을목격한이들이었다. 우리중많은이가느닷없고원치않은임신때문에삶이바뀌어버린, 재능있고창조적인여성들의

이기치않은아이다. 우리는비통해하고, 분노하고, 자신의운명에낙담하는그녀들의모습을똑똑히지켜보았다. 이에우리는더안전하고효과적인피임을할수없다면, 안전하고합법적으로임신을중단할권리가없다면여성과남성에게진정한의미의성해방은불가능하다는사실을명확히알게됐다.

둘이켜보면, 임신선택권보다임신중단권을강조했다는것자체가이운동의최전선에선여자들이가진전반적인계급적편견을여실히보여준다. 임신중단문제는예나지금이나모든여자와관계된문제지만임신중단만큼이나관심을기울여야하고대중에충격을줄만한, 재생산과관련된다른중요한문제들이더있었다. 기본적인성교육에서부터산전관리, 여성이자신의몸을제대로이해하는데도움이될만한예방의로서비스, 강제불임과불필요한제왕절개나자궁절제, 그에따르는합병증까지다양한범위에걸친문제였다. 계급특권을지닌백인여성들은이중에서원치않은임신에따르는고통을가장시급한문제로보았다. 그래서그들은임신중단문제를부각했다. 그들은안전하고합법적인임신중단수술이필요한유일한집단이절대아니었다. 앞서지적했다시피그들은빈곤층여성과노동자계급여성들보다는임신중단수술을받을방법이훨씬많았을것이다. 그시절흑인여성을비롯한빈곤층여성들은대개불법시술소를찾았다. 임신중단수술을받을권리는‘백인여성들만의’문제가아니었다. 임신중단권은재생산문제에있어서이나라여성들이당면한유일한문제도, 최우선시할문제도아니었다.

여성의성해방으로가는길을땀은공을따지자면임신중단권보다는안전을백퍼센트보장할수는없어도효과가뛰어난피임약개발이 (이는남성과학자들이개발했는데, 이들중대부분은성차별주의자였다) 더큰기여를했다. 내가십대후반이었을무렵피임약구입이처음으로대중화됐는데, 덕분에내또래여성들은원치않은임신으로인한공포와수치심을피해갈수있었다. 책임감있는피임은나처럼다른여성의선택은존중하지만이문제에맞닥뜨린개인이반드시임신중단수술을할필요는없다고생각하는많은여성들을해방시켰다. 나는성해방운동이한창일때도원치않은임신을하지않았지만내또래들중많은이가피임약을신경써서철저하게복용하는것보다임신중단수술을하는편이더낫다고봤다. 그래서피임의수단으로임신중단수술을택하는일이빈번했다. 여성의피임약복용은적극적으로성관계를갖기위한선택이라고공장받아들여졌다. 남자들은피임문제를좀더진지하게고민하는여자들을해픈여자로취급했다. 어떤여자들은성행위로일어나는일들은그냥내버려두었다가훗날‘문제’가생기면수술로해결하는편이더간단하다고여겼다. 오늘날에는반복적인임신중단수술이나에스트로겐수치를높이는피임약장복이나돌다위험을배제할수없다는사실을알한다. 그러나여자들은성적자유를위해다시말해선택할수있는권리를위해기꺼이위험을떠안았다.

임신중단권문제야말로그리스도교근본주의에도전장을던졌기때문에대중매체의관심을끌었다. 여성은아이를낳기위해존재한다는개념에공장반기를든것이다. 지금껏임신중단만큼여성의몸이국가적인관심대상이된적도없었다. 임신중단권은교회에대한직접적인도전이었다. 페미니즘사상가들이관심을촉

두라고하지않는것만봐도이사회에성차별주의적인성역할이어느정도만연해있는지잘보여준다. 우리사회의많은이들이여전히여성이남성보다더육아에적합하다고믿는다.

상당수의여성들이한편으로는모성의가치를평혜하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특히부모와아이의유대감같은모성이주는특별한지위와특권을누렸기에, 페미니즘사상가들의바람만큼육아에서엄은자부심을잠성들에게습사리내주려하지않았다. 어떤페미니즘사상가들은다른모든분야에서는생물학적결정론을비판하면서도어머니되기에관해서만은생물학적결정론에기댔다. 그들은육아에서어머니만큼아버지의역할이중요하며아버지도어머니만큼아이를잘키울수있다는생각을전적으로받아들이지못했다. 성차별주의적사고가만연한상황에이러한모순까지더해지니, 육아문제에맞닥뜨리면젠더평등을주장하는페미니스트의목소리에힘이실릴리만무했다.

요즘들어대중매체는끊임없이결혼이다시유행한다는메시지를퍼뜨리고있다. 결혼은결코구닥다리유물이아니었다. 결혼이다시유행한다고할때그진짜의미는성차별주의적의미가강화된결혼이다시‘돌아왔다’는것이다. 예나지금이나성차별주의적토대위에세워진결혼은속부터끓아있으며그관계가오래가기힘들다는게명백하므로페미니즘운동은이런현실로애를먹고있다. 성차별주의를바탕으로하는전통적인결혼이점점더성행하고있다. 이런결혼은가정에서페미니즘반란의촉매로작용할불행과불만의씨앗을품고있는한편, 이러한결속이순식간에끊어지는경우가 잦다는 점에서 과거의 결혼과는 다르다. 요즘사람들은젊은나이에결혼해서젊은나이에 헤어진다.

결혼과동반자관계에서나타나는가부장제남성중심주의는우리사회에서결별과이혼을낳는일등공신이였다. 성공적인결혼생활을다룬최근연구들을보면, 하나같이젠더평등이두사람이서로를긍정하게하는환경이된다고한다. 이러한긍정은더큰행복을만들어내고설령그결혼이영원하지속하지않을지라도유대의토대가된동지로서의우정은계속유지된다. 앞으로의페미니즘운동은가부장제결혼생활에대한비판에시간을덜 쏟는대신대안제시에더주력할것이다. 평등과존중이라는원칙, 그리고동반자관계를실현하고오래지속하려면상호만족과성장이필수라는믿음의원칙위에서운동료애적관계 peer relationships 의가치를알리는데힘쓸것이다.

15 장: 페미니즘성정치 — 상호자유의윤리학

페미니즘운동이일어나기전, 성해방운동이일어나기전에는, 대부분의여성들이왕성한성적활력을드러내기란불가능한일까지는아니더라도무척어려운일

노동에도우미를고용함으로써불평등문제를해소하는경우가많다는사실은전혀 놀랍지않다. 하지만이성애자커플이도우미를고용해성차별주의적관점에서‘여성의일’로규정되는일을처리할때, 대개그피고용인을결정하고관리하는건여성의몫이다.

여성의삶에유일하게만족감을주는삶의목적으로여겨지던어머니역할에대한비판만큼결혼과장기적인동반자관계의본질을변화시킨요소도없었다. 여성의가치가더이상출산을하느냐양육을하느냐로결정되지않게되자, 자녀를원치 않는맞벌이부부가동등하게결합하는평등결혼 peer marriage 을꿈꿀수있게 되었다. 아이가없는부부는더쉽게동등해질수있었는데, 그도그럴것이가부장제 사회에서는어떤일은자동적으로어머니의할일로못박다보니여성이육아에서젠더평등을이루기가더힘들기때문이다. 예를들어, 페미니즘운동이활기를띠자그전만해도모유수유를경시하던가부장제적의료계가갑자기모유수유에대해긍정적으로바뀌고나아가집요하게강요하기시작했다. 이것은이성애자트렌즈비언이든상관없이아이를낳는여성에게자동적으로더많은육아책임을지우는실례중 하나일뿐이다. 확실히남성과관계를맺고있는많은여성들은아기가태어나고그들의관계가좀더성차별주의적인것으로추락한경험을겪었다. 하지만커플들이특히육아문제를비롯해모든분야에서평등해지기위해노력한다면평등은실현될 수도있다. 물론그러려면열심히노력해야한다. 그러나대부분의남자들은육아를열심히하지않는편을택했다.

아동복지와젠더평등의관점에서남성의육아참여가지니는가치와중요성을환기한것은페미니즘운동이거둔긍정적인성과였다. 남성이육아를분담할경우, 두사람이결혼을했든거를하든따로살든간에남성과여성의관계는더좋아진다. 페미니즘운동덕분에예전에비해육아에참여하는남성들이훨씬 많아졌으나아직은젠더평등비슷한것이지못했다. 그리고우리는이렇게육아를똑같이분담하면육아를더긍정적이고성취감있는경험으로받아들이게된다는사실을잘안다. 물론일하는부모, 특히남성의경우는업무분담때문에육아에더참여하고싶어도현실의벽에가로막히고는한다. 업무를탄력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대체적인변혁을꾀하지않는다면, 남성이육아에자신의시간과공간을할애하도록살을꾸릴수있는세상에서살지못할것이다. 이런세상에서라면남성들이육아에좀더열성을보일것이다. 하지만그런날이오지않는한, 일한만큼의보급도못받으면서과로에시달리는수많은남성노동자들은여성들도마찬가지로과로에시달리고일한만큼돈을받지못한대도한치의망설임도없이여성에게육아를떠맡길것이다. 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아래의노동현실에서는여성이육아에충실할수도없다. 현실이이렇다보니일을계속할수도있었을여성들이집에들어앉게되었다. 여성들을직장에서쫓아내고집으로돌려보내는것은남성중심주의에기반한성차별주의사고라기보다우리가‘부모없이자라는’아이들의사회를만들고있다는두려움이다. 많은여성들이경쟁적인출세지상주의에쫓겨사랑하는이들을보살필시간이거의없다는사실을깨닫는다. 누구도남성에게육아전담을위해직장을관

구했던재생산과관련한다른모든문제는대중매체로부터무시당하기일썉였다. 제왕절개와자궁절제로인해발생하는광범위한의학적문제들은대중매체에게군침도는소재가아니었다. 정작페미니즘사상가들은여자의신체를통제하고그렇게하여자기들마음대로여성의몸을다루는자본주의-가부장제-남성중심주의적의료계에주목하기를촉구했다. 지독히도보수적이고대부분반페미니즘적인대중매체가보기에이런분야에서벌어지는젠더불평등문제는관심을갖기에는너무급진적으로보였을것이다.

1960년대후반에서1970년대초반에활동했던페미니스트활동가들은여성임신선택권을보장받기위해1990년대까지도투쟁해야하리라고는상상도못했다. 당시활동가들은페미니즘운동으로비교적안전한피임약의사용을옹인하고안전하고합법적인임신중단수술을받을권리를누릴수있는문화혁명을일으키면앞으로이런권리가더이상문제시되지않으리라믿었다. 그러나조직적이고급진적인페미니스트들이이끌었던대중을기반으로한정치적운동이종말을고하자, 근본주의자들의종교해석을발판으로조직된우익정치전선에서반페미니즘역풍이몰아닥쳤고이에임신중단문제가다시정치적의제로떠올랐다. 여성의자기선택권에다시의문제가된것이다.

안타깝게도임신중단권반대세력은정부가지원하는저렴하고, 필요하다면무상으로받을수있는임신중단수술을맹렬하게겨냥한다. 그결과인종을불문하고계급특권을가진모든여성들은계속해서안전한임신중단권즉, 자기선택권을누리지만빈곤층여성들은고통을겪을수밖에없다. 빈곤층여성과노동자계급여성들은대부분임신선택권관련의료서비스에대한정부지원이끊기면임신중단수술을받을길이사라진다. 돈이있어야만이수술을받을수있게된대도계급특권을지닌여성들은여전히돈이있으니상관없다. 하지만대다수의여성들은그런계급권력이없다. 요즘은과거어느때보다빈곤층이나극빈층으로떨어지는여성들이 많아졌다. 안전하고, 저렴하고, 때로는무상인임신중단수술을받지못하면그들은자신의몸에대한통제권을모두잃는다. 임신중단수술이돈많은여성들의전유물인세상으로되돌아간다면임신중단권을불법으로규정하려는공공정책도귀환할지모른다. 이미보수성향을지닌여러주에서는이런일이일어나고있다. 계급에상관없이여성이라면누구나안전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비용으로계속임신중단수술을받을수있어야한다.

임신중단을할지말지에대한여성의선택권은임신선택권의여러측면중하나일뿐이다. 임신선택권의여러측면중무엇이가장중요한지는개개인의연령과삶의조건에따라바뀌기마련이다. 성욕이왕성한2~30대여성들은언제든원치않은임신에직면할수있으니피임약만으로는안심할수없다는사실을실감할때그때문에합법적이고안전하고저렴한임신중단수술을받을권리를임신선택권과관련된문제중가장중요시할수있다. 하지만여성이완경完經을하면의사들에게자궁절제를권유받기도하는데그러면임신선택권과관련해이문제가가장절실할것이다.

대중적인페미니즘운동에불을다시지피려면임신선택권을페미니즘의제한 가운데놓아야한다. 자신의몸에일어나는일을여성들이선택할수없다면삶의 다른모든부분에서도자신의권리를포기해야할지도모른다. 새로워진페미니즘 운동은임신선택권과관련된반파적인이슈를그어떤개별이슈보다우선시할것이다. 그렇다고합법적이고안전하고저렴한임신중단수술을중점에두지않겠다는 말이아니라단순히그문제만중요한게아니라는뜻이다. 만약모든여성성교육 과예방의학, 피임약과피임기구에접근이더쉬워진다면원치않은임신을하는사 람도줄어들것이다. 그러면임신중단수술의필요성도줄어들지않겠는가.

합법적이고안전하고저렴한임신중단수술을받는문제에서한번밀리게되면 여성들은앞으로임신선택권과관련한문제가생길때마다주장을꺼야한다. 임 신중단권반대운동은근본적으로반페미니즘운동이다. 페미니즘정치에헌신하 는여성이스스로는임신중단을하지않겠다고선택하더라도그녀는여전히임신중 단을찬성하고임신중단이필요한다른여성들이어떤선택을하든그결과를지지할 것이다. 언제든지효과적인피임을할수있었던젊은여성들, 그러니까불법적인임 신중단수술로일어난비극을목격해본적없는이들은임신선택권이보장되지않을 경우언제든지발생가능한착취앞에여성들이얼마나무기력하고취약한지실감하 지못한다. 모든연령의여성과투쟁에연대한남성에게왜이러한권리가필요한지 이해시키려면임신선택권에수반되는광범위한문제들에대해지속적으로논의해 야한다. 이러한이해가모든여성임신선택권을가진세상을만드는노력의토대 가될것이다. 우리의자유를지키고지탱하기위해임신선택권에집중하는페미니 즘은꼭필요하다.

6 장: 내면의아름다움과외모의아름다움

여성의몸에대한성차별주의적인사고를깨부수려는도전은현대페미니즘운 동의개입중가장강력한것이었다. 여성해방운동이전에는젊고늙은모든여성들 이성차별주의적인사고를주입받아우리의가치가외모에만달려있으며어쨌거나 보기좋아야하고특히남성이보기에그려야한다고믿었다. 건강한자존감과자기 애를키우지않으면여성들은절대해방될수없다는사실을잘이해한페미니즘사상가 들은문제의본질로공장파고들었다. 우리가스스로의몸을어떻게느끼고생각하 는지비판적으로점검하고변화를이끌어낼건설적인전략을제공한것이다. 많은 시간이흐른요즘에야브래지어를착용하지말지편안하게선택하지만 30 년전만 해도이런결정이얼마나획기적인것이였는지모른다. 여성들은건강에도안좋고 불편하며우리몸을구속하는브래지어와거들, 코르셋, 가터벨트등을벗어던졌는 데, 이는여성의몸이지닌아름다움과건강을되돌려달라요구하는급진적이면서

아도된다고설득했는데이런주장은남성의성적결함을폭로하겠다고위협한셈이 었다.

이런위험을잠재우기위해성차별주의자남성들은대부분의페미니스트들이 레즈비언이라거나‘끝내주는쌈’이먼어떤페미니스트든지제정신을차릴것이라 고끊임없이주장했다. 실제로페미니즘의반란으로인해가부장제적인관계에서 남성과의성관계에만족하지못하는여성들이 많다는사실이드러났다. 친밀한유 대관계에있어서도대부분의남성들은남자들에게성적행동패턴을바꾸라는요구 보다는여성을성적으로더능동적으로바꾼, 여성섹슈얼리티의페미니즘적변화 를더기꺼이받아들였다. 페미니즘의제로이성애문제가떠올랐을때수없이논 의된주제가바로전혀없는섹스였다. 이성애자여성은남성의강압적이고여성의 즐거움을배려하지않는섹스에넌덜머리가난상태였다. 페미니즘이여성의성적 쾌락을중요시한덕분에여성들은남성의성적행동을비판하고이에맞설수있는언 어를갖게됐다.

성적자유면에서여성들은괄목할만한성과를거두었다. 일부일처제에대한비 난은성병의유행으로여성이자유분방한성생활을누리기가어려워지자서서히잊 혀갔다. 남성이여성을속이는것이용인되는가부장제문화에서에이즈처럼남성 이여성에게 옮기기가더쉬운치명적인질병들이출현하자이성애자여성은다양한 파트너를고르기가더힘들어졌다. 명백하게도, 가부장제하의이성간의결합에서 일부일처제를강조할수록커풀은성차별주의적패러다임을벗어나기가더힘들다. 게다가수많은여성페미니스트들은가부장제하에서는일부일처제를벗어난여성 은피해를입는반면남성은간단히더많은권력을얻는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 설령여성들이다른짝이있는남성과도스스로없이섹스할수있다하더라도, 남성들 은짝이있는여성에게성적흥미를보이지않는다. 혹여관심을갖더라도그여성의 짝인남성에게계속해서특권을양도하며심지어그녀와사귀려할때상대남성에게 허락을받으려고까지한다. 이런골치아픈문제들에도불구하고, 일부일처제를거 부할자유가있는여성들은그러한자유를누리든아니든, 여성의몸이남성의소유 라는통념에게속해서반기를들고그러한통념을없애기위해애쓰고있다. 페미니 즘운동이성적쾌락에대한성차별주의적통념을비판함으로써긍정적인변화를이 끌어냈듯이, 이또한여성과남성이좀더만족스러운성적관계를즐길수있는세상 을만드는데일조했다.

성적유대관계에이러한본질적변화는남자도집안일과육아를똑같이분담해 야한다는의식변화같은가정내에서의다른변화로이어졌다. 요즘은실제로하든 안하든간에남자도가사노동을분담해야한다고생각하는남성들이많다. 젊은여 성들도가사노동분담을토론거리로도보이지않는다. 그들에겐가사노동분담이당 연한것이기때문이다. 물론현실에서는가사노동분담은전혀당연한일이아니며 여전히대다수의여성이육아와집안일을전담하고있다. 대체로남자들은집안일 과육아에대한평등보다는침실에서평등을더기꺼이인정하고수용했다. 일단 계급권력을얻게된개별여성이자신도하기싫고남성동반자도하려들지않는가사

14 장: 결혼과동반자관계를해방하기

현대페미니즘운동이정점을찍었을때결혼생활역시격렬한비판을받았다. 다수의이성애자여성들이페미니즘운동에뛰어난배경에는, 친밀한관계특히젠더차별이일상적으로벌어지는오랜결혼생활에서경험한남성중심주의가자리했다. 페미니즘운동은시작단계에서부터, 숫처녀가아니거나연인이나배우자에게충실하지않은여성은비난하면서남자는성적욕망을품거나그욕망을행동으로 옮겨도용인하는섹슈얼리티에대한이중잣대와충돌했다. 성해방운동은결혼제도에대한페미니스트들의비판을더욱고취시켰으며특히안전하고저렴한피임에대한요구는더욱거세졌다.

초기페미니즘활동가들은사적인유대와가족관계문제에많은관심을쏟았는데, 그도그렇것이계급과인종을불문하고가부장적인부모로부터남편으로부터이런관계에서여성들이남성중심주의의맹공을받기때문이었다. 어떤여자가성차별주의적인남성상사나자신을지배하려는타인의시도에적극적으로맞선다해도막상집에서는동반자의뜻에굴복할수도있다. 오랜결혼생활의속박에서벗어난이성애자여성들과레즈비언들의연대로이루어진현대페미니즘운동은결혼생활을또다른형태의성노예제라고비판했다. 그들은친밀함과보호, 존중같은요소를제물로남성이가정을지배하는우두머리가되는, 결혼이라는전통적인성차별적결합을집중조명했다.

초기많은여성페미니스트들은남성들의변화가가능성에대해회의적이었다. 어떤이성애자여성들은성차별주의자남성들과불평등한관계를맺느니차라리독신이나레즈비언이되겠다고결심했다. 어떤이들은일부일처제때문에여성의몸이결혼한남자의소유물이라는인식이강화된다고보았다. 우리는비밀일처제를선택하거나결혼자체를거부하기도했다. 우리는비록가부장제사회일지라도국가가승인하는결혼을택하지않고남성파트너와함께살면남성들이여성의자주성에대해건전한존중심을표하리라믿었다. 페미니스트들은성노예제를끝장내자는주장을지지했고, 부부간성폭행에관심을가질것을촉구하면서, 그와동시에여성이성적욕망을당당하게표현하고성관계를요구할권리와성적만족을추구할권리를옹호했다.

정숙한여자는성에관심이없어야한다고배우며자랐기에섹스에무관심해진동반자와는만족스러운섹스를할수없다는바로그이유때문에페미니즘적사고를받아들이는이성애자남성들도많았다. 이남성들은페미니즘운동이여성배우자에게성에대해해방적인패러다임을제시해주었기에더만족스러운성생활을누릴수있게되었다고마워했다. 페미니즘사상가들은여성의성생활로여성의도덕성을재단하려는생각들을불식시킴으로써처녀가아닌여성에게찍는낙인을없앴것만아니었다. 그들은여성의성적만족감을남성의만족감만큼이나중요하게보았다. 페미니즘운동은여성에게성적으로만족하지못했을때굳이좋은척하지않

도일종의의식같은행동이었다. 오늘날그런제약에대해전혀모르는여성들은우리의이런주장이획기적인것이었음을그런가보다하고받아들일뿐이다.

좀더깊이파고들자면이러한의식으로인해여성들은언제어느때나편안한웃을입게되었다. 일때문에노상몸을굽히거나쭈그러앉아야했던많은여성들은작업복으로바지를입게된것만으로도열광했다. 원피스나치마가항상불편했던여성들도이런변화를환영했다. 요즘에야어릴때부터입고싶은대로옷을자유롭게고를수있기때문에이런변화가시시해보일지도모른다. 수많은성인여성들이페미니즘을받아들이면서발목이끼이는불편한하이힐을벗어던졌다. 이런변화에제화업계는급낮고착화감중은여성용구두를디자인해내놓았다. 화장을강요하는성차별주의적인전통이사라지면서, 여성들은거울을바라보며있는그대로의자신과마주하는법을배웠다.

페미니즘의개입으로의복과인체혁명이촉발되면서여성은우리몸이란본디타고난그대로사랑받고추앙받을만하다는사실을깨닫게되었다. 여성이치장을하지않기로한이상 아무것도더할필요가없었다. 처음에는화장품업계와패션업계의자본가들이페미니즘때문에자기네사업이망할것이라며기겁을했다. 그들은대중매체에자금을내고, 페미니스트들이덩치가크고우락부락하며늙고추하다는인식을퍼뜨리며여성해방운동을 폄해했다. 실제로페미니즘운동에참여한여성들은체격도체형도다달랐다. 그야말로천차만별이었다. 평가하거나경쟁하지않고각자의다름을자유롭게바라볼수있음에우리는얼마나흥분했는가.

페미니즘등장초기에는패션과외모에관심을완전히끊은활동가들이많았다. 이들은하늘하늘한프릴이달린옷이나화장에관심을보이는여성들에게가혹할정도로비난을퍼부었다. 그러나대개는선택지가주어졌다는사실에열광했다. 선택지가가능해지자이왕이면편안하고활동이용이한옷을입었다. 여성들의미용과스타일에대한선호와편안함과편의성을조화시키기란결코쉽지않았다. 여성들은(당시만해도철저하게남성중심적이었던) 패션계에다양한체형을위한옷을만들어내놓으라고요구해야만했다. (페미니즘활동가들이여성작가들에게기회를더주고목직한주제를다룬기사들을더실으라고요구하여) 여성지들도변화했다. 미국역사상최초로여성들이구매력을이용해긍정적인변화를이끌어내면서소비자로서의자신들의힘을확인하게되었다.

명백히성차별주의적인산업인패션업계를변화시키려는과정에서여성들은난생처음으로외모에대한집착이얼마나병적이며목숨마저위협하는가를짚어보게됐다. 이에폭식증과거식증이집중조명되었다. 이들은반대되는‘외모’를만들어내지만, 목숨을위협하는이런질환들은같은원인에서비롯한다. 페미니즘운동때문에성차별주의적인의학계도이문제에관심을가질수밖에없었다. 그들은처음에는페미니스트들의비판을무시로일관했다. 하지만페미니스트들이의료센터를열어여성중심의적극적건강관리 positive health care 프로그램을제공하자, 의약업계도패션업계처럼수많은여성환자들이자신들의몸을더세심하게보살피고존중해주는진료시설을이용하게될것이라는사실을깨달았다. 여성의몸

과여성에게제공하는의료서비스에대한의료계의태도가호의적으로바뀐것은모두페미니스트의투쟁이거둔직접적인결실이다. 의료서비스문제를, 우리몸을진지하게다루는문제를놓고여성들은의료산업에지속적으로대항하고맞서는중이다. 의료분야야말로페미니즘정치를지지하든안하든페미니즘투쟁이대다수여성에게지지를받는몇안되는분야다. 부인과질환, 남성보다여성이더취약한암들(특히유방암) 그리고최근에는심장질환분야에서여성들의단합된힘이어떤성과를거두었는지우리는지켜보고있다.

이나라에서는나이를막론하고모든여성이얼마나예쁜가에빠지지않은가로여성을판단하려는강박이완전히사라지지는않았기에섭식장애를종식하려는페미니스트들의투쟁은계속되고있다. 이집착이문화적상상력마저움켜쥔다. 1980년대초, 많은여성들이페미니즘에서멀어졌다. 여성이라면누구나페미니즘의개입으로일구어낸혜택을받았으면서도점점더많은여성들이갱신된성차별주의적미의개념을받아들였다. 현대페미니즘운동의태동기때이집착초반이었던여성들이이제사십대후반을지나오십대에들어섰다. 페미니즘은여성의몸을바라보는시각을바꿔주어여성들도나이를좀더긍정적인경험으로받아들이게되었지만가부장제사회에서나이든여성으로의현실, 특히생물학적으로더이상아이를가질수없는현실과직면하자, 수많은여성들이여성미를정의하는고루한성차별주의적인기준을다시받아들였다.

현재미국에는역사상그어느때보다마흔을넘긴이성애자독신여성의수가많다. 이들이남성의관심을차지하기위해더젊은여성들(이들중대다수는페미니스트가아니고앞으로도그럴일이없을것이다)과경쟁하다보면여성의미에대한성차별주의적인기준을따르게된다. 성차별주의적으로정의된미의기준을다시미화하려는움직임은분명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적패션업계와화장품업계의이익과맞아떨어졌을것이다. 대중매체도그에부화뇌동한다. 영화와텔레비전프로그램, 광고에나오는, 배불리먹을수만있다면무슨짓이든할것같은비쩍마르고굵발로염색한여자들의이미지가미의표준이되었다. 여성스러운아름다움에대한성차별주의적이미지들로가득찬복수심에불타는역풍은페미니스트들이거둔상당한진보를되돌리려위협하고있다.

요즘여성들은생명을위협하는섭식장애문제에대해미국역사상그어느때보다확실히인지하긴하나슬프게도, 여전히어린소녀부터상당히나이든여성까지많은이들이날씬해지기위해무작정굶는다. 거식증은책과영화등의주제로흔하게사용됐다. 그러나아무리무시무시한경고를해도자신의진가와아름다움, 내면의가치가결국마른몸으로결정되리라는여성들의믿음은사라지지않는다. 현대의패션잡지는거식증의위험을다루는기사를실으면서동시에독자들에게이상적인아름다움과욕망의대상으로비쩍마른젊은여성들의이미지를퍼붓는다. 이혼란스러운메시지는누구보다도페미니즘정치를받아들인적없는여성들에게치명적이다. 그러나최근들어페미니스트들은여성의몸이지닌자연스러운아름다움을있는그대로긍정하는풍조를조성하기위해새롭게노력하고있다.

놓고서는어머니역할을격렬하게비난했다. 그러나 1980년대중반몇몇페미니즘사상가들이어머니역할을경시하고임금노동을과대평가하는풍조에맞섰다. 『페미니즘 — 주변에서중심으로』에서이주제에대해이렇게정리했다.

“여전히성차별주의가만연하고, 개인간에질투와불신, 적대감, 악의를조장하는불필요한경쟁이이루어지는사회풍조에서의노동으로인해스트레스를받고좌절감을느끼며때로는완전히불만족스러워진다. ... 임금노동을즐기고좋아하는여성들이많지만, 그들은이일에서간을너무뺏겨다른만족감을추구할여유가없다고느낀다. 일을하는덕분에어느정도경제적으로독립을하거나경제적자립까지도할수있대도, 대다수의여성들은일에서인간적인욕구를온전히채울수없었다. 그결과여성들은누군가를돌보면서만족감을얻을수있는일을찾는과정에서가족의중요성과어머니역할의긍정적인측면들을재평가하게되었다.”

역설적이게도페미니즘사상가들이어머니역할을좀더균형있게그리려고노력을기울이자주류가부장제문화가한부모가정특히여성이가장인가정에대해맹비난을퍼부었다. 이러한비난은복지문제와관련될때특히혹독했다. 싱글맘들이정부에서받는보조금이나쥐꼬리만한임금으로도얼마나수완족게아이를키우는지보여주는자료를썩무시한채, 가부장제문화는유독문제있는편모가정을골라그게일반적인양비난하고는이가정에가장이자수장으로남자가있어야만이런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주장했다.

페미니즘에몰아닥친역풍가운데싱글맘에대한사회적비난만큼아동복지에해로운것도없었다. 그어떤가족형태보다어머니와아버지로구성된가부장제가족을높게치는문화속에서자라는아이들은자기네가족이일반적인가족형태에부합하지않을때심리적으로불안정해진다. 남성이가장이라한들문제가없는것도아니며아동복지가더잘이뤄지는것도아니라는사실을보여주는증거가아무리많아도가부장제가정을이상화하는인식은여전히공고하다. 아이들은사랑이가득한환경에서자라야한다. 지배자가존재하는환경에서라면사랑을찾아볼수없다. 부모가혼자든아니든, 동성애자든이성애자든, 가장이여성이든남성이든사랑이넘치는부모라면자신의아이를자존감을가진건강하고행복한아이로키우고싶어할것이다. 앞으로의페미니즘운동에서는세상의부모들에게성차별주의를종식하는것이어떻게가족의삶을행복하게만드는지보여줘야한다. 페미니즘운동은가족친화적이다. 남성이든여성이든성인이가부장제적으로아이를지배하지않아야비로소아이가안전할수있고, 자유로울수있고, 사랑을배울수있는가정을꾸릴수있다.

인사건이 아니다. 아동에 대해 이보다 훨씬 더 가혹한 폭력이 어머니에 의해 아버지에 의해 매일 자행되고 있다.

이 나라의 아이들은 진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페미니즘이 이끌어낸 변화와 가부장제 사고가 충돌하면서 집집마다 남성의 지배를 정상으로 여겼던 시절보다가정이 더 더욱 치열한 전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운동을 촉매로 가부장제가 가정에서 남성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러한 폭로는 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한 성인 여성들이 심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학대의 생존자임을 인지하고 이 문제를 치료 과정이라는 사적인 장에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면서 시작되었다. 이런 폭로 덕에 현재 벌어지는 학대에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맞설 수 있는 윤리적 도덕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아동에 대한 남성의 성적 학대에 만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학대가 남성 중심주의와 직결되며 가부장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라는 인식을 대중이 받아들이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었다. 아동에 대한 남성의 성적 학대는 여성에 의한 학대보다 많이 일어나며 더 많이 보도되지만, 그렇다 해도 아동에 대한 여성의 성적 학대도 남성의 학대만큼이나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페미니즘 운동에서도 남성의 학대 행위를 비판하는 만큼 학대를 일삼는 여성 역시 철저하게 비난해야 한다. 성적 학대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폭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진다. 그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언어 폭력과 정신적 학대다.

모욕을 줘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또 다른 학대를 낳는 토대가 된다. 남자 아이들은 주로 성차별주의적 남성성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이런 학대의 대상이 된다. 그들은 대개 성차별주의자인 성인들(특히 어머니들)과 다른 아이들에게 창피를 당한다. 만약 남성 양육자가 반성차별주의적인 사고와 행동이 났을 사람이라면 아이들은 일상에서 페미니즘을 경험할 수 있다. 페미니즘 사상가와 활동가들이 아이들에게 성차별주의적 편견이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소년들과 소녀들은 건강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다.

페미니즘 운동은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는데, 단지 젠더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이와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남성도 육아에 똑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문화적 인식을 일궈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성과일 것이다. 미래의 페미니즘 연구는 반성차별주의자 남성의 육아가 아이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했는지 그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페미니즘 육아 전반에 대해서, 반성차별주의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훗날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해야 한다.

선구적인 페미니즘 활동가들은 모성애와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노고를 인정하는 차원 높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면서도 남성 양육자의 중요성과 가치를 절대 간과하지 않았다.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찬사를 여성의 어머니 역할의 긍정적인 면을 폄하하고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여성이다. 페미니즘 운동이 시작됐을 무렵 페미니스트들은 육아를 여자들이 좀 더 자유롭게 맡고자 자신을 더 긍정하게 이끄는 계기가 되어 줄 직업과 대척점에

오늘날 소녀들의 자기 몸에 대한 혐오는 페미니즘 운동이 등장하기 이전만큼이나 심하다. 페미니즘 운동으로 수많은 유형의 여성 친화적인 잡지가 속속 발간되었지만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어떤 패션 잡지에서도 미의 기준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이상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안도 없이 성차별주의적인 이미지만 비난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개입이다. 비판만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 사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아름다움의 기준을 비판해왔지만, 여성들은 뭐가 건강한 선택인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을 뿐이다. 나는 중년에 접어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체중이 늘었으나 자기 혐오에 찌든 성차별주의적 몸매를 목표로 삼지 않고 체중을 줄이기로 했다. 요즘 패션 업계에서는,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뽀뽀마른 십대 소녀들만을 위해 디자인한 것 같은 옷밖에 없으니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여성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몸매에 신경을 쓰고 살을 골칫거리로 여기도록 사회화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다양한 사이즈와 체형을 가진 여성이 예쁜 개입을 만만하게 입을 파는 가게들도 있으나 대개 이런 곳에서는 패션 업체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판매하는 옷보다 훨씬 비싸게 판다. 최근 들어 패션 잡지가 점점 더 과거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남성 필자가 쓴 기사들이 늘어간다. 페미니즘 시각에서 작성했거나 페미니즘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들은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패션도 성차별주의적 감수성을 반영하는 쪽으로 흘러간다.

원숙한 나이에 접어들 수 많은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며 건강한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한 대체 모델을 모색하기에, 이러한 성차별주의적 변화들은 공공연하게 인식되진 않는다. 하지만 성차별주의적으로 정의된 미의 기준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투쟁을 그만둔다면, 우리 몸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해준 페미니스트의 개입이 낳은 눈부신 성과가 그대로 무너질지도 모른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성차별주의적 기준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운 일인지 모든 여성들이 전보다 더 잘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위험을 완전히 없애 버리지도,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내지도 못했다.

가부장제적인 감수성이 미용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도록 좌시한다면, 십대를 포함한 젊은 여성들은 페미니즘 사상가들이 아름다움과 치장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끝내 알지 못할 것이다. 팍팍한 페미니스트들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성의 욕망을 묵살해 결국 페미니즘 정치가 훼손돼 버렸다.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 이런 고지식함은 이제 보기도 힘들지만 대중매체는 페미니스트들의 생각인 양 이를 전파한다. 페미니스트들이 미용 산업으로, 패션 업계로 돌아가 지속적인 혁명에 불을 지피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해방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7 장: 페미니즘계급투쟁

페미니즘운동에참여한여성들은계급문제와그로인한여성들의분열에대해인종문제보다더오래전부터논의해왔다. 새롭게형성된여성해방운동내에서도 대체로백인이주류인그룹에서여성들을가르는가장뚜렷한기준은다름아닌계급이었다. 노동자계급백인여성들은페미니즘운동에도계급위계가존재한다는사실을알아차렸다. 기본적으로기존계급구조를유지하되여성에게도동등한권리를달라고요구하는여성해방운동개혁파, 그리고기존구조를근본적으로바꾸어낡은패러다임을없애고그자리에상호성과평등을기본으로하는모델을세우자는 좀더급진적이거나혁명적인세력은서로충돌할수밖에없었다. 그러나페미니즘운동이진보하면서고학력자백인여성들로구성된특권그룹이백인남성과동등한계급권력을손에넣게되자, 계급투쟁은페미니즘운동에서중요성을잃고말았다.

특권계급여성들은대중의관심을끄는부류였기에페미니즘운동초기부터자신들의관심사를‘최우선’과제로부각시킬수있었다. 그들은대중매체를매혹했다. 노동자계급여성들이나대다수여성들이가장중시하는문제에대해주류언론은전혀주목하지않았다. 베틀프리단은『여성의신비』⁸에서여성이전업주부가정에속박되고예속된다고느끼는데서오는불만을“이름없는문제”라고이름붙였다. 이문제를여성전체의위기인양제시했지만실제로는소수의고학력자백인여성들의위기였을뿐이다. 그들이가정에속박될지도모른다는위험에대해불평할때, 이나라의수많은여성들은일터로향했다. 저임금에장시간노동을하면서모든집안일도맡아야했던여성노동자들중다수에게전업주부가될권리는오히려‘해방’처럼보였을것이다.

인종에관계없이특권계급여성이가정밖에서일할수없었던것은젠더차별이나성차별주의적억압때문이나아니라, 그들이구할만한일이노동자계급여성들에게도문이열려있는, 특별한기술이필요없는저임금직종이어서였다. 고학력자엘리트여성들은상당수의중하위층그리고노동자계급여성들과같은일을하느니라리전업주부가되는편을택했을뿐이다. 때로는이런여성들가운데일부자들을깨고직업전선에뛰어들어자신의교육수준에못미치는일을하며남편과가족의저항에부딪치기도했다. 이러한저항때문에그들은집밖에서마주치는노동문제를젠더차별문제로바꾸었으며가부장제에저항하고같은계급의남성들과동등한권리를누려야한다는주장을페미니즘이계급투쟁대선정치강령으로채택하게이끌었다.

특권계급인개혁주의백인여성들은처음부터같은계급의남성들이누린다고생각한자유와권력을똑같이원한다는걸알았다. 가정에서의가부장제남성중심

같은이야기지만, 많은이들이여자혼자아이, 특히아들을키우는데어떻게그를가부장적인남성으로키우겠느냐고생각한다. 이또한결코사실이아니다.

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적지배의문화에서아이들은권리를누리지못한다. 페미니즘운동은미국사회운동가운데우리의문화가아이들을사랑하는문화가아니며부모가자식을자기의지대로조종하는소유물로본다는사실에주목한최초의운동이다. 우리사회에서는성인이아이에게폭력을행사하는일이흔하다. 문제적인것은, 대부분의페미니즘사상가들은일상적으로아이들에게가해지는폭력의주범이주양육자여성인경우가많다는현실에관심이쏠리는것을원치않아했다는사실이다. 페미니즘운동이가정에서의남성중심주의때문에성인남성이아동을성적으로학대할수있는상황이조성되기도한다는사실을드러낸것은대단히중요하고가히혁명적인성과이지만사실수많은아동이성인남녀모두에게언어적육체적폭력에일상적으로시달리고있다. 모성적가학증 maternal sadism 은종종어머니가아이를감정적으로학대하는상황으로이어지는데, 아동에대한성인여성의폭력이라는문제에대해페미니즘이어떻게비판과개입을할수있는지아직이론적으로제시된적은없다.

아동이인권을누리지못하는지배의문화에서는힘있는사람들이, 다시말해성인남성과여성이독재하듯아이를지배할수있다. 의료기록을통해이사회회의아이들이매일학대당한다는사실을알수있다. 게다가그런학대중상당수가목숨을위협할정도로심각한수준이다. 많은아이들이죽어간다. 여성들도한이런폭력의영구화에결코남성못지않게기여했다. 성인여성이나동에게폭력을행사한다는사실을페미니즘운동이직시하려들지않으면페미니즘이론과그실천사이에심각한간극이생긴다. 남성중심주의만강조하면페미니즘이론가들을포함한여성들이여자가다양한형태로아동을학대하는현실을쉽사리무시하게한다. 우리모두가부장적사고에익숙해힘있는자가힘없는자를지배할권리가있으며어떤수단으로힘없는사람을복종하게만들수있다는지배의윤리학을자연스레받아들일정도로사회화되었기때문이다. 이에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의위계질서안에서여성에대한남성의지배가용인되듯아이에대한어른의지배도용인된다. 그리고어느누구도아이를학대하는어머니에게관심이쏠리기를진심으로원치않는다.

나는이따금씩예전에참석했던근사한파티에서있었던일을이야기하고는한다. 파티참석자중에어린아들을훈육한다며아이가말을들때까지아이의연한살을세계고집고놓아주지않는어떤여자가있었다. 그리고이를본사람들은아이를엄하게키운다며이구동성으로그녀를칭찬했다. 나는그녀의그런행동이바로아동학대라고지적하면서그녀는그남자아이가훗날여성을학대하는남성으로자라도록씨앗을뿌리는셈이라고도말했다. 내이야기를들던사람들에게이점을확실하게짚었다. 만약어떤남자가여자의행동을통제하기위해그녀를세계고집으며힘으로제압한다고이야기했다면곧바로이를학대라고인정했을것이다. 하지만상처입는대상이아동일경우, 이런부정적인지배를용인한다. 이런일은예외적

⁸ 미국의페미니스트이자사회심리학자베틀프리단 (Betty Friedan, 1921~2006) 이쓴책. 원제는『The Feminist Mystique』로, 국내에는『여성의신비』라는제목으로소개된바있다. -역자주

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는 결코 자신의 약속을 책임지지 못한다. 수많은 남성들은 가부장제의 약속이 실은 불의와 지배에 뿌리를 두며 약속이 지켜진 대도 자기네를 영광에 이르도록 해주지 않는다는 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해방적 비판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에 괴로워한다. 남성들이 애초에 그들의 영혼을 말살해 버린 백인 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의 사고방식을 되새기며 해방운동을 맹비난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소년 시절에 그랬듯이 길을 잃고 헤맨다.

소년과 남성을 보듬어 안으면서, 소녀와 여성이 꿈꾸는 모든 권리를 소년과 남성도 누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페미니즘 남성성을 수용하는 페미니즘이라면 미국 남성들을 새로 태어나게 할 수 있다. 특별하게 페미니즘적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삶을 돌보고 긍정하는 방식으로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페미니즘 남성성이 널리 인정받는 세상을 만드는 법을 보여줄 새로운 전략, 새로운 이론, 길잡이가 꼭 필요하다.

13 장: 페미니스트 부모되기

아동문제에 대한 페미니즘적 접근은 현대 급진주의 페미니즘 운동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였다. 여성들은 성차별주의적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반성차별주의 운동이 필요 없는 미래 세상을 꿈꾸었다. 처음에는 주로 성차별주의적 성역할과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성역할이 고정되는 방식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페미니스트들은 항상 여자 아이에게 집중되는 성차별주의적 인편견에 대한 공격 그리고 대안 이미지 제시에 노력을 집중했다. 때때로 페미니스트들은 남자 아이를 성차별주의에 물들지 않게 키워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성이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은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식의 주장으로 흘렀다. 남자 아이들이 언제나 더 많은 특권과 권력을 줬다는 전제는 페미니스트들이 여자 아이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게끔 계속 부채질했다.

페미니즘 사상가들이 맞닥뜨리는 주요 난관 중 하나는, 가족 내 성차별주의의 주요 전파자가 대개 여성 양육자라는 사실이었다. 성인 남성 양육자가 없는 가정에서도 여성들은 자녀에게 성차별주의적 사고를 주입해왔고 이는 지금도 그러하다. 역설적이게도 여성이 가장 인가정은 으레 모권 중심적일 것이라고 쉽게 단정한다. 실제로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장 인 여성들은 집 안에 남성이 없다는 사실에 죄의식을 느끼고 자녀들, 특히 남자 아이들에게 성차별주의적 가치를 전수하기에도 열을 쏟는다. 최근 들어 보수적인 주류 전문가들은 편모는 남자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인종과 계급을 막론하고 젊은 남성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물론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자애롭고 동시에 강한 남성들 중 편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로 이를 알 수 있다.

주의에 대한 그들의 저항은 계급을 떠나 남성 중심주의가 지긋지긋한 여성들을 뭉치게 했다. 하지만 특권을 가진 여성들만이 가정을 벗어나 일 자리를 구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족할 수 있는 소득을 손에 넣으리라 기대하는 호사를 누렸다. 노동자 계급 여성들은 자기네 임금으로는 결코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개혁주의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도 더 많이 받고 직장 내 젠더 차별과 성희롱은 덜 겪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특권 계급 여성들이 기울인 노력 덕에 모든 여성들의 삶은 이전보다 나아질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성과는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녀들이 계급 권력을 손에 넣는 동안 그 밖의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한 채로 남았다는 사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해 직장 환경을 개선하려는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이 어떻게 계급 이익으로 치환되는지 잘 보여준다.

계급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활동가들 가운데 레즈비언 페미니즘 사상가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누구나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자신의 관점을 전할 줄 알았다. 그녀들은 애초에 생계를 의탁할 남편의 존재를 기대할 수 없었다. 또 일터에서 모든 여성들이 겪는 온갖 어려움에 대해 이성애자 여성들보다 더 민감하게 인식했다. 1970년대 초반 살럿 번치⁹와 낸시 마이런¹⁰이 엮은 『계급과 페미니즘 Class and Feminism』 같은 작품 집에는 여러 페미니스트 그룹에서 계급 문제와 맞닥뜨린 다양한 계급의 여성들이 쓴 글이 담겨 있다. 이 글들은 저마다 계급은 단지 돈 문제가 아님을 강조한다. (당시는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던) 리타 매브라운¹¹은 『최후의 지푸라기 The Last Straw』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밝혔다.

“계급은 생산 수단과의 관계라는 마르크스의 정의를 훨씬 뛰어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계급은 당신의 행동과 기본 전제, 당신이 어떻게 처신하도록 배웠는지,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다양한 계급으로 구성된 페미니스트 그룹에서 활동해 온 여성들은 계급 문제와 맞서지 않으면 모든 여성들이 단결해 가부장제와 싸우는, 자매애를 토대로 한 정치적 유토피아가 절대 출현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다.

페미니즘 의제에 계급 문제를 포함하자 계급과 인종 간 교차점이 확연히 드러났다. 인종과 성별, 계급이 사회 체계로 제도화된 우리 사회에서 흑인 여성은 명백히 경제라는 계급제의 말단을 차지했다. 초기 페미니즘 운동에서 노동자 계급에 속한 고학력자 백인 여성들은 다른 모든 계급의 흑인 여성들보다 더 눈에 띄었다. 이 백인 여성들은 운동 내에서 소수였지만 경험에서 우러난 목소리를 냈다. 그들은 인종과 계급, 젠더 권력에 저항하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다른 인종의 특권 계급 동지들보다

⁹ Charlotte Bunch, 1944~. 미국의 페미니스트 작가이자 인권 운동가. -역자주

¹⁰ Nancy Myron, 1943~. 여성 동성애와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글을 쓰는 작가. -역자주

¹¹ Rita Mae Brown, 1944~. 미국의 작가이자 페미니스트 활동가. 추리 소설 작가로도 유명하다. -역자주

더잘알았다. 그들은경제상황을바꾸기위한투쟁이어떤것인지도잘알았다. 그들과특권계급여성들은적절한행동방향과페미니즘이근본적으로고민해야할사안을둘러싸고끊임없이논쟁했다. 한번도좌파의자유투쟁에참가해본적없었던특권계급여성들은페미니즘운동내에서특권없는여성들의도전에부딪히며구체적인계급투쟁의정치를배웠고, 또한그과정에서자기주장을말하는기술과갈등에대처하는건설적인방법도배웠다. 그러나수많은특권계급백인여성들은건설적인개입에도아랑곳하지않고페미니즘을자기네전유물인양, 자기네가리더인양굴었다.

이사회를지배하는가부장제는특권계급여성들의이해관계만주목할가치가있다는식의인식을강화했다. 개혁주의페미니즘은기존구조를유지하며여성의사회적평등을실현하고자했다. 특권계급여성들은같은계급내의남성들과동등한권리를원했다. 자신이속한계급내에성차별주의가만연함에도그들은노동자계급남성들과같은운명에처하기는원하지않았다. 같은계급의남성과사회적평등을이루려는페미니즘의노력은비백인에게도경제력과특권을손에넣을기회가동등하게주어진다면백인의힘이약화될것이라는백인우월주의-가부장제-자본주의의두려움과교묘히겹쳤다. 개혁주의페미니즘은사실상백인권력을지지함으로써, 주류인백인우월주의-가부장제가권력을강화하는상황을방조했으며동시에급진주의페미니즘정치를약화시켰다.

페미니즘운동이보인이러한야합적인행태에분노한것은혁명적페미니즘사상가들뿐이었다. 대안언론은우리의비판과분노에귀를기울여줬다. 급진주의백인활동가메리바풋(Mary Barfoot)은자신의에세이집『흑인대학살의도래 The coming of Black Genocide』에서대담한주장을했다.

“1970 년대의여성운동이자매애를의미한다고믿었기에, 에스컬레이터를탄여성들에게배신감을느낀상처입고분노하는백인여성들이있다. 가부장제가 지배하는집으로돌아가는여성들에게말이다. 그런데여성운동은단한번도아버지 ‘딕(Dick)’을떠나본적이없다. ... 전쟁은없었다. 그러므로해방도없었다. 우리는대학살의이익을나눠가졌으며거기에만족한다. 우리는가부장제의자매들이자국가와계급억압의진정한지자들로, 가부장제가가장발전한형태가전세계적규모의유럽제국주의다. 만약우리가아버지딕의자매이고그가가진것을원한다면, 결국우리는그가모든것을갖게만들어준체제를지지하는것과다름없다.”

정말이지자신이계급엘리트주의보다백인우월주의를벗어던지는편이훨씬수월하다는사실을깨닫는페미니스트여성들이점점더늘고있다.

특권계급여성들이같은계급의남성들처럼경제력을철기회까지먼저서페미니즘운동내에서계급에대한토론은더이상쉽게접할수없게됐다. 대신여성들은부유한여성들이거둔경제적성공을모든여성을위한긍정적인징표로삼으라는압력만받았다. 실제로이런성공이빈곤층과노동자계급여성들의삶을바꾸는경우는드물었다. 게다가특권계급남성들은가정에서아내와가사노동을똑같이분담하지않았기에인종을불문하고특권계급여성들의종속상태를유지해야만했다.

체되어야할지같은문제에효과적으로대처하지못했기에다수의남녀를끌어들이는데실패했다. 페미니즘운동혹은남성운동은가부장제적남성성에대한대안으로지금보다좀더‘여성화’된남성성을내세웠다. 이여성화라는개념은성차별주의적발상에서비롯되었기에초에대안으로는부적절했다.

뒤집어보면남성성의비전은유일무이한존재로서자기자신에대한자존감과자기애를정체성의기본으로삼아야한다. 지배의문화는자존감을무너뜨리고, 타인을지배할때비로소존재감을느낀다는사고방식이뿌리내리게한다. 가부장제남성성은남성들에게그들의존재이유, 그들의자의식과정체성이타인을지배하는능력에있다고가르친다. 이런현실을바꾸려면이지구를, 권력을갖지못한남성들을, 여성과아이를지배하는남성중심주의를남성들은비판해야하고이에맞서야한다. 이와동시에페미니즘남성성이무엇인지명확하게이해해야만한다. 그것이어떤모습인지알수없다면어떻게그렇게되겠는가? 하지만여성이든남성이든페미니즘사상가들은아직도페미니즘남성성이무엇인지명확하게이해하지못했다.

사회정의의를위한혁명적운동이그러했듯이, 우리는해결책을제시하기보다문제를규정하는데더능하다. 가부장제적남성성은남자들을병적으로자기도취적이게하고유치하게굴게하고, 단지남자로태어났다는이유로주어지는(어느정도상대적인) 특권에심리적으로의존하게끔부추긴다. 많은남자들이자기충족적인핵심정체성을세우지못했때문에이러한특권이사라지면자기삶이위협받는다고느낀다. 그렇기때문에남성운동은남자들에게어떻게자신의감정을되찾는지를가르치고내면의잃어버린소년을되찾아영적이고정신적인성장을도모하라고적극적으로격려했다.

이제껏남자아이들에게말을걸어, 성차별주의에뿌리를두지않은정체성을키우는법을알려주는적절한페미니즘도서들은없었다. 성차별주의에반대하는남성들이소년시절, 특히사춘기남자아이들의성장에중심을두고비판의식을일깨우는교육한적은없다. 이러한교육의공백으로인해이제남자아이의양육에대한논의가전국민적관심사로대두해도거기에페미니즘적관점은길자리도없고설사일부를차지한대도거의찾기힘들었다. 비극적이게도, 우리는엄마는아들을온전하게키울수없고, 사내아이들은규율과권위에대한복종을강조하는가부장제군국주의적남성성의‘도움’을받아야한다는위험한여성혐오적명제가부활하는모습을지켜보고있다. 남자아이들에게는건강한자존감이필요하다. 그들에겐사랑이필요하다. 그리고현명하고자애로운페미니즘정치라면남자아이들의삶을구원하는유일한토대를제공할수있다. 가부장제는그들을치유하지않는다. 가부장제가그럴수있었다면, 남자아이들은모두문제없이잘성장했을것이다.

미국대다수남성들은자기정체성이본질적으로잘못되었다고느낀다. 설령가부장제에매달린다고해도그것이문제의일부라는사실을감지하기시작하고있다. 일자리가없고, 일한만큼보상도받지못하고, 여자들이더많은계급권력을쥐는상황에서돈없고힘없는남자들은자기위치를제대로파악하기쉽지않다. 백인우월

남성들에게 성차별주의적 남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남성들 역시 모종의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인식을 포괄했다.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남성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강력한 대중적 힘을 발휘했다.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을 두려워하고 증오한 이 남성들은 재빨리 세력을 집결해 페미니즘 운동을 공격했다. 그런데 페미니즘 운동 초기부터 소수이기는 해도 페미니즘 운동이 미국역사상 남성들이 지지했던 여성 급진적인 운동 못지않게 차지하는 사회운동이라는 걸 깨달은 남성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동지로서 우리와 함께 투쟁하고 함께 연대했다. 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한 이성애자 여성들은 페미니즘을 받아들이려 애쓰는 남성들과 연인 사이가 되기도 했다. 그들이 페미니스트로 전향하느냐 마느냐로 이친밀한 관계가 시험대에 오르거나 끝날 위험에 몰려들게 되고는 했다.

페미니즘 운동 내의 반남성 분파는 성차별주의에 반대하는 남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그런 남자들 때문에 모든 남성은 억압자거나 모든 남성은 여성을 혐오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억압자/피억압자라는 단순한 범주화로 남성과 여성을 극단적으로 갈라놓음으로써 손쉬운 계급 상승과 가부장제 권력 배분을 노렸던 페미니스트들의 이익과 합치했다. 이들은 모든 여성을 피해자로 재현하기 위해 모든 남성을 적으로 간주했다. 남성에 대한 적대는 일부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의 계급 특권과 계급 권력을 향한 욕망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이었다. 모든 여성들에게 남성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던 이 활동가들은 여성이 남성과 공유하는 돌봄의 유대도, 성차별주의자인 남성이 여성을 묶어두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경제적·감정적 결속도 직시하려 들지 않았다.

남성을 투쟁의 동지로 인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던 페미니스트들은 결코 대중매체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남성을 적으로 규정하고 악마화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우리의 이론적 연구도 반남성주의자 여성들의 관점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남성다움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에 대한 반동으로 반여성주의 남성 운동이 시작되었다. 나는 ‘남성해방운동’에 관해 쓰면서 이 운동의 이면에 자리한 기회주의에 주목하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남성들은 자신을 성차별주의의 피해자라고 규정하며 남성해방에 주력했다. 이들은 경직된 성역할이 자신들을 피해자로 만든 근본원인이라고 했으나, 그들은 남성성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자 하면서도 여성이 당하는 성차별주의적 착취와 억압에는 그리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요모조모 살펴보면 남성 운동은 여성 운동의 가장 부정적인 모습을 빼닮았다.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 반남성주의 분파의 규모는 작았으나 여성 페미니스트는 남성을 혐오한다는 대중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게다가 남성들은 페미니즘을 남성 혐오 운동으로 규정함으로써 남성 중심주의에 쏠리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었다. 페미니즘 이론이 남성성에 대해 좀 더 해방적인 비전을 제시했다면, 누구도 이 운동이 반남성주의 성향을 띤다고 호도하지 못했을 것이다. 페미니즘 운동은 남성이 성차별주의에 반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나 기존의 남성성이 어떻게 대

그렇게 1990 년대에 접어들어 여성이 기존 사회 구조와 결탁한 대가로 얻은 것이 바로 ‘여성해방’이다. 결국 계급 권력이 페미니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이런 결탁이 페미니즘 운동의 약화에 한 몫했다.

여성들이 남성과 다를 바 없이 활동하게 되고 더 높은 계급 지위와 더 큰 권력을 손에 넣자 페미니즘 정치는 약화되었다. 수많은 여성들이 배신감을 느꼈다. 페미니즘 열풍에 휩쓸려 느닷없이 노동자가 된 중산층과 중하위층 여자들은 집 밖에서 일을 해도 배우자가 집안일을 공동으로 분담하지는 않는다는 잔인한 진실을 깨닫고 더 이상 해방감을 느끼지 못했다. 무귀책이 혼¹²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수많은 흑인·유색인종 여성들은 개혁주의 페미니즘이 거둔 결실이나, 차별 철폐 조치 affirmative action 에 더해진 젠더 차별 철폐 등을 통해 다른 어떤 그룹보다도 특권 계급 백인 여성들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모습을 보며 페미니즘이 결국 백인의 권력을 강화해 줄 뿐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특히 정부가 미혼모를 공격하고 복지 제도를 와해시켜 도 페미니즘 운동이 대중적 저항의 움직임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페미니즘의 제들에 대한 가심심각한 배신 행위였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자칭한 특권 계급 여성들은 ‘가난의 여성화’라는 문제에 간단히 등을 돌렸다.

‘파워 페미니즘’의 목소리는, 특권 계급이 아닌 그들들을 향한 연대를 배신하지 않고도 계급 권력을 획득한 여성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에 비해 훨씬 더 자주 언론의 관심을 받는다. 우리의 목표는 예나 지금이나 페미니즘 정치에 충실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다른 여성들이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여자들이 기존 자본주의·가부장제와 결탁해야만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가 참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미국 곳곳에서 페미니스트들은 혁명적인 사회 변혁의 비전을 지지하며, 계급 권력을 갖고서도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의 삶을 개선할 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이용하고 자원을 공유하고 있다.

여성해방의 유일한 진지한 희망은, 계급 엘리트주의에 맞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상상력에 달려 있다. 서구 여성들은 계급 권력을 손에 넣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인 우월주의·가부장제가 제 3 세계 여성들을 노예화하거나 그들의 예속을 지속시키기 때문에 젠더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미국은 호황을 구가하는 교도소 산업과 노동 연계 복지를 지향하는 복지 정책을, 보수적인 이민 정책과 결합해 계약 노예제가 생성될 조건을 형성하고 이를 용인하고 있다. 복지 제도가 종식되면 기존 지배의 구조에서 학대와 착취를 당하는 여성과 아이들로 구성된 새로운 최하층 계급이 등장할 것이다.

계급을 둘러싼 현실이 바뀌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여기에 더해 가난의 여성화가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릇된 길로 가는 페미니즘에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

¹² 한국의 협의의 혼과 비슷한 개념으로, 일정 기간 별거한 후 별거를 사유로 한 쪽이 법원에 이혼으로 신청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혼하는 방식. -역자주

면서동시에새로운이론을제시하는, 과거의강점을기반으로하고개혁에따른긍정적인성과를포함하며대중을대상으로삼는급진적페미니즘운동이우리에게필요하다. 페미니즘운동의전망은노동자계급과빈곤층여성과같은구체적인기반을토대로삼느냐그렇지못하느냐에달려있다. 계급권력을가진여성페미니스트들이여성저소득자를위한주택정책의필요성을실감할수있도록비판의식을고취하는교육을시작해야한다. 페미니즘원칙에부합하는주택조합을만드는일이야말로페미니즘투쟁이모든여성의삶과어떻게관련되는지잘보여주기때문이다.

계급권력을가진여성들이기회주의적으로페미니즘을이용하고한편으로페미니즘정치의기반을약화시켜궁극적으로그들을다시종속시킬가부장제의유지를도왔다면그들은페미니즘만배신한게아니다. 그들은스스로배신한셈이다. 페미니스트라면남성이든여성이든모두계급문제로되돌아가거기서다시연대를위한토대를쌓아야한다. 그러면우리는계급에상관없이모든사람들이자원을공유하고, 개인적성장을위한기회를얻을미래를더생생히그릴수있을것이다.

8 장: 글로벌페미니즘

자유를위해지구촌곳곳에서싸웠던여성투사들은가부장제와남성중심주의에맞서홀로고군분투했다. 지구에최초로출현한인류는백인이아니었으니남성중심주의에최초로반기를든여성도백인은아니었으리라. 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서구문화에서신식민주의사고는다양한문화적관행을관통하는어떤기조를확립한다. 이를테면신식민주의사고는언제나누가영토를정복했는지, 누구에게소유권이있는지, 누구에게지배권이있는지에주목한다. 현대페미니즘정치는신식민주의에대한급진적인대응으로출현한것이아니다.

특권계급백인여성들은페미니즘운동의‘소유권’이자신들에게있다고즉각선언함으로써페미니즘운동을지지하는노동자계급백인여성들과빈곤층백인여성들그리고모든유색인종여성들을추종자로전락시켰다. 노동자계급백인여성이나개별적으로운동에참여하는흑인여성들이여성운동이급진화에얼마나많이 기여했는지는중요치않았다. 결국계급권력을쥔백인여성들이페미니즘운동을자기네것이라고선언하면서자신들은지도자이며나머지는추종자일뿐이라고못박은셈이었다. 기생적계급관계가현대신식민주의에존재하는인종과민족, 젠더문제를덮어버렸다. 물론페미니즘도이런역학관계와그리떨어져있지않았다.

미국페미니즘지도자들이자국내젠더평등의필요에대해처음으로목소리를드높였을때, 그들은비슷한운동이전세계여성들사이에서일어나고있는지에대해서는알아보려하지않았다. 대신에그들은자신들이해방되었기에이제자기네보다운없는자매들, 특히‘제 3 세계’여성들을해방할수있다고선언했다. 이러한

그리고특히부모라면비폭력적인방식으로자식을양육하는법을배워야한다. 폭력사용외에난처한상황에대처하는다른방도를모른다면우리아이들은자라서도폭력행사를저버리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미국내수많은사람들이폭력문제를심각하게받아들이지만이문제를가부장제사고나남성중심주의와연결짓기를단호하게거부한다. 페미니즘사상은이에대한유일한해결책을제시한다. 그리고그해결책으로모두를도울수있는지없는지는우리손에달려있다.

12 장: 페미니즘남성성

현대페미니즘운동이처음시작되었을무렵, 운동내에는극렬반남성분파가있었다. 이성애자여성들은잔인하고, 불친절하고, 폭력적이고, 바람피우기를일삼는남성과의관계에지쳐페미니즘운동에뛰어들었다. 그런남성들가운데는사회운동에참가한급진적사상가들도다수있었는데, 이들은노동자와빈곤층의이익을대변했으며인종간정의를옹호했다. 그러나유독젠더문제에서만은자신들과대립각을세운보수주의자들만큼이나성차별주의적이었다. 이런상황에분노한여성들은페미니즘을찾았다. 그리고이들은그분노를여성해방운동의촉매로활용했다. 운동이진보하고페미니즘사상이발전하면서각성한페미니즘활동가들은남성들이문제가아니라가부장제와성차별주의, 남성중심주의가진짜문제라는걸깨달았다. 문제가단지남성들에게있지않다는사실을직시하기란쉽지않았다. 현실을직시하려면좀더정교한이론화작업이필요했다. 성차별주의가유지되고영구화되는데여성들도동참하고있다는사실부터인정해야했다. 남성과의파괴적인관계에등돌리는여성들이늘어날수록전모를파악하기가더쉬워졌다. 개별남성들이가부장제가부여하는특권을내려놓는다해도가부장제와성차별주의, 남성중심주의를토대로한체제는여전히공고할테고거기서여성들은계속착취당하고억압당할것이명백해졌다.

보수적인대중매체는끊임없이여성페미니스트들을남성혐오자로묘사했다. 페미니즘운동내에만남성분파나그런정서가보인다싶으면페미니즘에흠집을내기위해대중매체는그사실을집중조명했다. 페미니스트를남성혐오자로몰아세우는이면에는페미니스트가모두레즈비언이라는전제가 깔려있었다. 미국사회의동성애혐오정서에호소하며대중매체는남성들사이에퍼진반페미니즘분위기를강화시켰다. 현대페미니즘운동이시작되고 10 년가까이됐을때에야페미니즘사상가들은가부장제가어떤식으로남성에게해를끼치는지를의의를시작했다. 페미니즘정치는남성중심주의를맹렬히비판하면서도그외연을넓혀가부장제가

간에) 언제든지물리적으로나정신적으로폭력적처벌을가할수있다고위협하면서지배를유지한다.

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에대해언론은꾸준히관심을쏟았다(O.J. 심슨재판처럼재판과정을실시간으로중계하기도한다). 하지만미국대중에게왜이런폭력이일어났는지근본원인을설명하거나가부장제에의문을품도록하지는않았다. 성차별주의적사고는남성중심주의를뒷받침하고그로인한폭력을지지한다. 노동자계급이면서실직자인많은남성은백인우월주의-가부장제하에서는자신의일에서권력을맞보지못하므로자신들이절대적인권위와존경을얻을수있는유일한장소인가정에서대리만족하라고부추겨진다. 남성들은지배계급남성들에의해사회화되어일터와같은공적세계에서는지배받지만가정이나연인사이같은사적세계에서는응당권위를누려남성성을회복할수있다고믿는다. 실직자가저임금노동자로편입되는남성들이많아지고일터로나오는여성들이늘어나날수록, 어떤남성들은성차별주의적인성역할위계내에서자신들이권력과지배력을유지하려면폭력을행사하는수밖에없다고생각한다. 어떤식으로든남성이여성을지배할권리가있다고믿는성차별주의적사고를떨쳐내지않는한, 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은계속정상적인것으로취급될것이다.

초기페미니즘활동가들은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과제국주의적군국주의간의유사점을인지하지못했다. 남성의폭력에반대하는사람조차때로는군국주의를용인하고심지어는이를지지했기때문이었다. 착한편에서나쁜편과싸우는상상을하건다른나라에강제력을행사하는제국주의의병사를상상하건, 성차별주의적사고가소년들을‘킬러’로사회화하는한여성과아이들에대항가부장제폭력은사라지지않을것이다. 최근몇년동안다양한계급출신의젊은남성들이끔찍한폭력행위를저질렀을때이런행동에대한전국민적비난은있었지만이런폭력행위를성차별주의적사고와연관짓는시도는찾기어려웠다.

나는『페미니즘 — 주변에서중심으로』에서남성만폭력을수용하고, 용인하고, 영구화하는게아니라고, 남성만폭력의문화를만들어내는게아니라고강조하며폭력에관한장을끝맺었다. 나는폭력을용인하는분위기에여성도일익을담당한다는사실을직시하고이에책임질것을촉구했다.

“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에만관심을촉구하거나군국주의를남성의폭력성이표출된또다른방식으로만치부하면우리는폭력문제를제대로파악하고다룰수없으며실행가능한저항전략과해결책을이끌어내기도어려울것이다. ... 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혹은국가나지구에대한남성폭력의심각성을축소할필요는없다. 그보다는남성과여성모두가미국문화를폭력으로물들였다는사실을인정해야하고그러한문화를변화시키고재창조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전쟁이나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 아동에대한성인의폭력, 십대에대한폭력, 인종차별로인한폭력등어떠한방식의폭력이든사회통제수단으로폭력을행사한다면남녀를불문하고반대해야만한다. 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을종식하기위한페미니스트들의노력은모든형태의폭력을종식하는운동으로확장되어야만한다.”

신식민주의적은정주의는보수건진보건백인여성들만이페미니즘의실질적인대변자가되게끔유색인종여성들을일찌감치뒀전으로보내버렸다. 급진주의적백인여성들은잘‘언급’되지도않았고, 설령그런대도대개운동의주변부를맴도는괴상한여자들로묘사되었다. 그러므로 1990 년대의‘파워페미니즘’이부유한백인여성에게여성들을성공한페미니스트의예로들었다도전혀놀랍지않다.

사실그들의에게모니는평등에대한페미니즘의레토릭을멋대로가져다쓰으로써, 그들이지배계급과결탁해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에머물고있다는사실을교묘하게감추었다. 급진주의페미니스트들은(인종을불문하고) 수많은여성들이페미니즘용어를구사하면서도서구제국주의와초국적자본주의에부역하는모습을보고는경악했다. 미국내페미니스트들이전세계여성의평등을위해싸우고자한것은옳은일이었지만, 계급권력을가진개별페미니스트들이제국주의적합상을전세계여성들에게투사해문제가발생했다. 이들은미국여성들이지구상의어떤여성들보다더많은권리를누리고있으며원하기만하면얼마든지‘자유로워질’수있으니페미니즘운동을이끌고전세계여성들, 특히제 3 세계여성들을위해페미니즘의제를정할권리가있다는환상을유포했다. 이러한사고는서구남성들로이뤄진지배집단의제국주의적인종차별주의와성차별주의의단순한미러링에불과하다.

대부분의미국여성들은식민주의나신식민주의라는용어를모르거나아예사용하지도않는다. 그렇긴하나대부분의미국여성들, 특히백인여성들이미국이나전세계에서자신들보다임지가좁은여성들을대하는태도를보면식민주의에게반한인종차별주의와성차별주의, 계급엘리트주의가배어있음을알수있다. 페미니즘사상가들이이문제에대해각성하지못한채, 전지구적차원의젠더착취와억압문제를다루는한그들의관점은예나지금이나신식민주의를벗어나지못한다. 그런점에서『야간시력 — 신식민지에서이전쟁과계급고찰 Night-Vision: Illuminating War and Class on the Neo-Colonial Terrain』에서급진주의백인여성들이“신식민주의를이해하지못한다면이시대를충실하게사는것이아니다”라고지적했음을늘여겨보아야한다. 각성하지않은백인페미니스트들은미국인으로서의삶, 그러니까그들이예나지금이나제국주의-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와결탁해행동하고있다는현실을좀처럼인정하기꺼렸기에, 이러한부인의벽을허물기위해서는흑인/유색인종여성들과우리의급진주의백인자매들이계속해서벽에몸을던지며저항해야했다.

수많은페미니즘활동가들이인종과젠더, 계급, 국적을포괄하는관점을채택했음에도, 백인‘파워페미니스트’들은여성의평등이제국주의와결부되어있다는식의페미니즘이미지를끊임없이만들어냈다. 여성할레의강요, 태국의섹스클럽, 아프리카와인도, 중동, 유럽에서여성의히잡착용문제, 중국의여아살해같은전세계여성들이치한문제는여전히심각하다. 그러나서구의여성페미니스트들은페미니즘사고와실천을탈식민화해야와같은문제들을마주함에있어서구제국주의가다시금끼어들지못하도록여전히투쟁하고있다. 백인이든흑인이든

은서구여성들이아프리카와중동의여성할례문제에어떻게대응했는지떠올려보라. 대개이지역들은‘야만적이고미개한’곳으로묘사되고그곳에서의성차별주의는미국에서의성차별주의보다여성에게더인정사정없고위험천만하다는식으로 그려진다.

탈식민지화된페미니즘은다른무엇보다여성의몸을통제하는성차별주의가 어떻게전지구적으로연결되는지부터검토해야한다. 가령, (마른몸을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간주하는문화의직접적인산물인) 생명을위협하는섭식장애나목숨을담보로하는성형수술을여성할례와연결지으면, 전세계에서벌어지고있는 이러한관행에자리한성차별주의, 여성혐오 misogyny 가바로여기미국에서는 어떤식으로작동하는지파악 (미러링) 할수있다. 서구제국주의의개입없이이런 문제들을다루고페미니즘이초국적자본주의에의해서구에서전해진또하나의명품처럼왜곡되지않을때까지다른문화권에속한여성들은이를소비할권리를얻기 위해싸워야한다.

미국내급진주의적여성들이계급상승을노려페미니스트인척하는기회주의적여성들과맞서싸우지않는한, 서구글로벌페미니즘의기조는진부한편견을 품은채로막강한계급권력을쥔이들의손에좌우될것이다. 급진주의페미니스트들은인종과민족, 국적의경계를넘어서여성들간의정치적연대를강화하기위해 세계곳곳에서매일애쓰고있다. 그러나주류언론은페미니즘의이런긍정적인개입 사례에좀처럼주목하지않는다. 질라아이젠슈타인¹³은『증오들 — 21 세기의인종차별과성차별로얼룩진분쟁들 Hatreds: Racialized and Sexualized Conflicts in the 21st Century』에서다음과같은통찰력을보여줬다.

“인종/젠더의그릇된경계와잘못구축된‘타자’를거부하는초국적페미니즘(들)은, 남성화된민족주의와왜곡된국가주의적공산주의, ‘자유’시장세계화를 향한중대한도전이다. 초국적페미니즘은개인의다양성과자유, 그리고평등을인정하고북/서와남/동의담론들을관통하고이를넘어서는페미니즘이다.”

글로벌페미니즘의성장에대해공부한사람이라면우리의자유를확보하기위해여성들이중요한업적을성취했다는사실을아무도부인하지못할것이다. 미국 여성을필두로서구여성들이이러한투쟁에상당부분기여해왔으며앞으로더그해야한다는사실도부인할수없다. 글로벌페미니즘은성차별주의와그에근거한착취그리고억압을종식하기위한전지구적투쟁에손내밀어하나로이어져야한다.

을휘두르는가해자중여성이 많다는 사실에는 제대로 주목하지 않는 데다, 이것이 가부장제 폭력의 또 다른 형태임을 외면한다. 이제 우리는 아이가 가부장제 폭력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때뿐만 아니라 폭력 행위의 목격자가 될 때도 학대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잘 안다. 모든 페미니즘 사상가들이 여성에 의한 가부장제 폭력에 대해서도 분노해야 할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과 동일 선상에 놓았더라면, 대중이 가부장제 폭력을 반남성적의제라고 치부하면서 이를 묵살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며 이는 앞으로 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많은 연구 결과에서 여성은 비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 들어릴 때 여성에게 가부장제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라면 여성이 비폭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안다. 단지 아동은 여성 폭력의 대상이 되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 집단적인 목소리를 쉽게 내기 힘들 뿐이다. 여자와 남자가 휘두른 폭력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의료 시설을 찾은 기록마저 없었다면 여성 폭력을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을 지 모른다.

나는 『페미니즘 — 주변에서 중심으로』의 〈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장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하기 위해 지속되어 온 페미니즘 투쟁은 모든 종류의 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운동의 일부로 인식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페미니즘 운동은 주로 남성이 저지르는 폭력에 주목했고, 그 결과 남자는 폭력적이고 여자는 그렇지 않다는, 남자는 가해자고 여자는 피해자라는 성차별주의적이고 고정관념에 힘을 실어 주게 되었다. 이런 고정관념 탓에 우리는 이 사회에서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지배하는 쪽이 강하기엔 지배당하는 쪽에 힘을 행사해도 된다는 식의 인식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영구화한다는 사실을 못 본 척 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여성이 다른 사람을 강압적으로 지배하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는 사실도 간과하거나 무시하게 한다. 여자가 남자보다 폭력을 덜 행사한다고 해서 여성 폭력의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폭력을 없애려면 이 사회에서 폭력 사용을 지지하는 집단으로서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주시해야만 한다.”

어떤 어머니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더라도 자녀들, 특히 아들들에게 사회 통제를 위해서라면 폭력을 용인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 어머니는 가부장제 폭력과 결탁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어머니는 사고 방식을 바꿔야만 한다.

확실히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을 지배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소수 이긴 하나 남자를 때리는 여자도 있다) 많은 여성들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해도 좋다고 여긴다. 대다수의 부모가 자녀에게 물리적 혹은 언어적 폭력을 가한다. 아이의 일차 양육자는 여성이므로 지배 문화의 위계 체계에 따라 권력을 부여받은 여성들이 (이를테면 부모자식 간처럼)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강제를 행사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현재의 지배 문화는 모두에게 폭력을 사회 통제 수단으로 허용해도 된다는 사고 방식을 내면화시킨다. 남녀 관계든 부모자식 간이든 기존의 위계 질서가 흔들리면 지배자들은 (실행에 옮기건 아니건

¹³ Zillah Eisenstein, 1948~ . 미국의 급진주의 페미니즘 이론가이자 활동가. -역자주

과행동을 바꾸려는 노력은 물론, 가정폭력에 대해보다 폭넓은 문화적인식을 쌓아가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요즘은 대중매체부터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가정폭력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가정폭력의 현실을 극적으로 폭로하고 수면위로 올린 주역이 바로 현대 페미니즘 운동이었다는 사실은 묻혀버려 곤한다. 페미니즘 운동이 가정폭력에 처음으로 관심을 기울였을 무렵에는 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남성의 폭력만을 다루었으나 운동이 진전될수록 동성 간에도 가정폭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학대당했거나 당하고 있고 아이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성인인 가장이 휘두르는 폭력에 희생되기도 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가부장제 폭력은, 좀 더 힘 있는 개인이다 양한 강제력으로 다른 구성원을 통제해도 무방하다는 믿음을 토대로 한다. 이러한 관의 의 가정폭력에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동성 간의 폭력, 아동에 대한 성인의 폭력도 모두 포함된다. ‘가부장제 폭력 patriarchal violence’이라는 용어는 흔히 쓰이는 표현인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와 달리, 듣는 이에 게 가정 내에서 자행되는 폭력이 성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적 사고, 남성 중심주의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가정폭력이라는 용어는, 집 밖에서 벌어지는 폭력보다는 사적이고, 어떤 점에서 덜 위협적이고, 덜 야만적인,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지칭하는 ‘순화된’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집 밖에서보다 집 안에서 구타당하고 살해당하는 여성이 더 많으므로 가정폭력의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가정폭력을 성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과는 별개이고 동떨어진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아이들은 남편 혹은 남자 친구에게 공격받는 어머니를 보호하려다가 학대당하기도 하고 폭력이나 학대를 목격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입기도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주장을 이 나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듯이 남자가 여자와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성차별주의의 직접적 산물이며 성차별주의가 종식되지 않는 이상 가정폭력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의 논리를 선뜻 이해하지 못한다. 젠더에 대한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페미니즘 운동이 그 어떤 폭력도 거부한다는 광범위한 의제를 표방해야 한다고 믿는 소수의 페미니즘 이론가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부장제 폭력을 우선적 관심사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가부장제 하에서 자행되는 다양한 폭력 가운데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 가장 끔찍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이런 유형의 폭력에만 집중한다면 페미니즘 운동을 더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당수의 가부장제 폭력이 성차별주의에 찌든 남녀가 아동에게 휘두르는 폭력이라는 현실을 은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페미니즘 사상가들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어떻게든 부각하기 위해 여성을 언제나 그리고 유일한 피해자로 묘사해 온다. 아동에게 지독한 폭력

9 장: 일터의 여자들

미국 전체 여성 인구 중 절반 이상이 노동자다. 현대 페미니즘 운동이 싹들 때 이미 노동자 중 3분의 1 이상이 여성이었다. 내가 아는 여자들은 대부분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자 노동자 계급 출신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에 나는 페미니즘 운동 초창기에 직업이 남성 중심주의로부터 여성을 해방해 줄 것이라는 개혁주의 페미니즘 사상가들의 주장을 격렬하게 비판했었다. 10년도 더 전에 나는 『페미니즘 — 주변에서 중심으로』에서 이렇게 썼다. “여성 해방의 열쇠로 일을 강조한 결과, 수많은 백인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이 일하는 여성들을 두고 ‘이미 해방되었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들은 사실 상 일하는 여성들에게 ‘페미니즘은 당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셈이다.” 하지만 나는 저임금 노동이 남성 중심주의로부터 빈곤층과 노동자 계급 여성들을 해방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특권 계급 출신으로 같은 계급의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얻는 것을 우선적 인 의제로 삼은 개혁주의 페미니즘 사상가들이 일 자리와 해방을 동일시했을 때, 그들에게 일 자리란 높은 임금의 직업을 의미했다. 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대다수 여성의 삶과 무관했다. 페미니스트들이 모든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과 관련한 의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중심으로 뒀다는 것은 중요하다. 페미니스트들의 저항으로 여성들은 봉급과 직급 면에서 전보다는 더 많은 권리를 손에 넣었으나 젠더 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 수많은 대학 강의실에서 여학생 남학생 할 것 없이 학생들은 이제 여성이 평등을 쟁취했으니 페미니즘 운동은 시효를 다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은 일반적인 대다수 여성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남자가 1 달러를 받을 때 여자는 73 센트밖에 못받는다는 사실도 전혀 모른다.

이제 우리는 일이 여성을 남성 중심주의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 실제로,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직 여성도 많고 부유한 여성도 많지만 그들 역시 남성 중심주의가 일상인 곳에서 남성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경제적으로 자립한 여성일수록 남성 중심주의가 당연한 관계에서 벗어나 해방을 택할 확률이 커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떠날 수 있기에 그녀는 떠난다. 페미니즘 사고를 받아들이고 해방되고 싶어도, 수많은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가부장제 남성들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해도 훌쩍 떠나기는 힘들어 한다. 페미니즘 운동 초기에만 해도 우리 중 일부만 알았지만 이제 여자가 되면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이 있다. 일이 여성 해방의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경제적 자립이 꼭 필요하다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경제적 자립을 일과 연관 짓기 보다는 해방의 수단으로 본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종류의 일이 여성 해방을 가져다 줄지 생각해 봐야 한다. 분명 탄력근무제와 좋은 보수가 보장된 일이라면 노동자에게 최대한의 자유가 허용될 것이다.

페미니즘사상에 용기를 얻어 취직을 하면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수많은 여자들은 분노했다. 여자들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장시간 일해야 했던 것이다. 페미니즘 운동의 영향으로 여성들이 직장에 나가 일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전부터도 경기 침체 때문에 이런 변화는 생길 수밖에 없었다. 현대 페미니즘 운동이 아니어도 수많은 여성들이 마찬가지로 노동인구에 편입됐겠지만, 페미니스트들이 젠더 차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권리를 누렸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성이 페미니즘 때문에 직장에 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탓하는’ 것은, 비록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다고 해도 잘못이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일 자리를 찾게끔 이끈 건 사실 소비자 본주의다. 경기 침체인 상황을 고려하면 한때 전업주부를 꿈꾸었을 지도 모를 여자가 직장을 구하지 않고서는 이제 백인 중산층 가정이나 누리는 계급적 지위와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기 힘들게 됐다.

페미니즘 연구는 여성들이 직업을 갖게 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회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자료로 입증했다. 어느 계급에 속하는 여성이건 전업주부가 가정에만 머무는 경우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해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대부분의 노동자는 일터에서 안정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가정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해결책을 찾기도 까다롭지만 일터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이를 공유하며 해결책도 혼자서 찾지 않는다. 대개 남성들이 바깥 일도 맡았을 때 여성들은 남성을 위해 집을 안락하고 후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일을 맡았다. 여성에게 집이란 남편과 아이가 없을 때만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가정 내에서 여성이 온종일 다른 사람을 수발하느라 바쁘다면 집은 그녀에게 쉬면서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는 공간이 아니라 일터일 뿐이다. 독신 여성(대부분 혼자 살고 그들이 이성애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야말로 직업을 가짐으로써 가장 자유로워졌다. 대부분의 여성은 좋은 일 자리를 찾을 수조차 없었으며 노동인구에 편입되면서 가정에서 그들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

페미니스트들이 직장 내 젠더 차별을 바로잡자 이전에는 취직하지 않았거나 몇몇 만 예외적으로 취직했던 고학력자 특권 계급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족할 수 있는 직장을 전보다 훨씬 더 쉽게 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성공이 대다수 여성의 운명을 바꿔놓지는 못했다. 몇 해 전 나는 『페미니즘 — 주변에서 중심으로』에서 이렇게 썼다.

“일터에서 여성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여성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급을 막론하고 고직자 여성들의 취업을 도우려는 노력과 더불어 페미니즘 운동의 핵심의제를 이루었더라면, 페미니즘은 모든 여성의 관심사를 아우르는 운동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출세에 혈안이 되어 여성의 고임금 전문직 진출에 관심을 쏟아 대다수 여성들을 페미니즘 운동에서 멀어지게 했다. 또한 페미니즘 활동가들은 노동 시장에 진입한 부르주아 여성이 증가했다고 해서 여성 전체가 경제력을 획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 외면했다. 그들이 빈곤층과 노동자 계급 여성들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살폈다면, 여성 실업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모습도 목격했다. 개별 여성들이 백인 우월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인종 문제를 비로소 인정하는 순간 겪은 의식의 혁명 또한 목격했다. 이런 멋진 변화들로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나의 믿음은 되살아났고 모든 여성들을 향한 연대의식은 더욱 강력해졌다.

페미니즘 사상과 페미니즘 이론은 전반적으로 인종 문제를 통한 비판적인 개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유일한 골칫거리는 이론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과정이었다. 백인 여성 연구자들이 인종 문제를 페미니즘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러한 통찰이 백인 여성과 유색인종 여성 사이의 일상적 관계에는 그리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인종 차별이 여전히 사회에서 여자들끼리만 반인종 차별적으로 교류하기란 쉽지 않다.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속한 부류하고만 교류한다. 인종 차별주의와 성 차별주의가 결합된 해로운 장벽들이 여자들을 갈라놓는다. 이런 현실을 바꿔보려는 페미니즘 전략은 아직까지는 그다지 먹히지 않았다.

사랑의 결속과 정치적 연대가 생성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고난을 극복해온 백인 여성과 유색인종 여성들에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활용했던 기법과 전략들을 공유해야 한다. 인종이 다른 여성들 간의 관계는 거의 알려진 바 없다. 백인 여성들이 유색인종 여성들보다 성 차별주의적인 주변 환경에 더 상처받기 쉽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편향적인 페미니즘 연구가 있다. 이는 다른 어떤 집단보다 백인 여성의 관심사와 고통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하고 그럴 만하다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주장을 영구화할 뿐이다. 확실히 유색인종 여성들이 백인 여성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것은 유색인종 여성들이 성 차별주의적인 조건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성 차별주의의 희생자가 되기 훨씬 쉽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선구적인 흑인 활동가들의 노고가 담긴 페미니즘 운동은, 인종과 인종 차별주의를 재고하는 길을 열어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류 사회 비평가들은 좀처럼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지만 말이다. 페미니즘 운동 내부의 인종과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해 꽤 다양한 글을 써온 페미니즘 사상가로서, 나는 페미니즘 운동 내에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뜯어고칠 부분이 잔뜩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거둔 엄청난 성과를 기리는 일 또한 중요하다. 우리가 거둔 승리의 의미를 반추하고 그것을 본보기로 삼는 일은 반인종 차별주의 페미니즘 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11 장: 폭력 종식하기

현대 페미니즘 운동이 개입해 가장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분야는 단연 ‘가정 폭력’으로 페미니즘 운동은 가정 폭력을 끝장내기 위해 사람들의 사고 방식

깨는운동을조직하려했던백인여성들이오히려, 모든여성의공통된경험이면에 자리한여성들간의차이에대해서는인정하기를꺼렸다. 그중에서도인종은가장 명백한차이였다.

1970 년대에는『나는여자가아닌가요 — 흑인여성과페미니즘』의초고를 완성했다. 열아홉살때였다. 나는상근직으로일해본적이없었다. 나는남부의 인종분리지역작은마을에살다가스탠퍼드대학에진학했다. 자라면서늘가부장 제적사고에저항했으나대학에와서야페미니즘정치를받아들였다. 나는여성학 강의를듣는유일한흑인여성이었고, 의식이고양되는과정에서인종과젠더문제의 이론화작업을시작하게되었다. 인종차별적편견이페미니즘사고를형성하는 데미치는영향을인정할것과이에대한수정을촉구한것도그시절대학에서였다. 그무렵다른곳에서도나와같은생각을지닌흑인/유색인종여성들의비판이터져 나왔다.

그당시인종차별과인종간격차가엄연히존재하는현실을좀처럼직시하려들 지않았던백인여성들은페미니즘에인종문제를끌어들었다며우리를배신자라고 비난했다. 부당하게도그들은우리가젠더에맞춰진초점을다른곳으로돌리려한 다고생각했다. 사실, 우리는여성이처한상황을현실적으로바라볼것을요구하며 그런현실적인이해야말로진정한페미니즘정치의토대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 우리는자매애의이상을훼손하려던것이아니었다. 우리는진정한자매애를키워 낼구체적인연대의정치를세우고싶었다. 우리는백인여성들이백인우월주의에 서벗어날수없다면, 그리하여페미니즘운동이근본적으로인종차별주의에맞서 지않는다면, 백인여성과유색인종여성사이에진정한자매애가피어날수없다는 사실을잘알았다.

인종문제와관련한비판적인개입은결코여성운동을무너뜨리지않았다. 도리 어더강하게만들었다. 인종문제를외면하는태도에서벗어나자녀자들은모든층 위에존재하는차이라는현실을직면할수있었다. 그제야우리는특권계급여성, 특 히백인여성의계급이익을다른모든여성들의이익보다앞세우지않는페미니즘운 동을만들어나갈수있었다. 우리는모두가각자가처한현실에대해이야기할수있 는자매애의상을새롭게제시했다. 페미니즘사상가들사이에서벌어진인종논쟁 은변증법적이었다. 운동에참여한개개인들이의견을나눠페미니즘의이론과실 천을재고하게만들어갔던것이다. 이는동시대의어느사회운동에서도찾기힘든 광경이었다. 페미니즘운동의참여자들이비판과도전을받아들이면서도정의와 해방의비전을실현하기위해전적으로매진한다는사실로이운동의강점과힘을알 수있다. 이는페미니즘사상가들이과거얼마나그릇된판단을했건, 변화하려는의 지와더불어투쟁과해방을이끌어낼조건을만들어내려는의지만있다면그릇된신 념과전제에매달리는일은일어나지않음을잘보여준다.

수년간나는인종문제의중요성을인정하려들지않는백인페미니즘사상가들 의모습을목격했다. 그들이백인우월주의를내려놓지않으려는모습도, 반인종차 별주의페미니즘운동이야말로자매애를현실로만들어줄유일한정치적대라는

제가심각해지고있다는사실은물론이고계급을불문하고빈곤층으로추락하는여 성들이증가하는추세도포착했을것이다.”

가난은핵심적인여성문제가되었다. 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가우 리사회의복지체계를와해하려들수록가난하고힘없는여성들에게서삶의기본적 인필수요소인살곳과음식마저도빠앗을것이다. 상황이이런데도보수적인정치 인들은남성이든여성이든대부분실업상태인현실과일자리가아예없다는사실, 그리고설령별이가있다해도많은남성들이아내와아이들을경제적으로부양하길 원치않는다는사실을무시하고는해결책이랍시고남성이가족을부양하는가부장 적인남성중심주의가정으로의회귀를여성에게내세웠다.

좀더완벽한경제적자립의길은, 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를뒀받침 하는대중매체가우리에게제시하는행복한삶의이미지와는다른, 대안적라이프 스타일에있을것이다. 생활임금¹⁴을받으며충만하고행복하게살고, 자부심과자 존감을복돋아주는일을하려면일자리나높프로그래미필요하다. 교사들과모든 서비스업종사자들은더많은임금을받아야한다. 집에서육아에전념하고싶은여 성과남성은, 집에서고등학교과정을마치고대학학위를따낼수있게꿈홀스쿨링프 로그램을이용할수있어야하며그기간동안주에서보조금도받을수있어야한다. 기술을발전시켜집에서도동영상으로대학강의를수강할수있게해야하며이를강 의실에서보내는시간과병행해늘려야한다. 정부가군비가아닌복지예산을배 정하고, 일자리를구하지못할때모든시민이 1~2 년가량정부로부터합법적인지 원을받게된다면복지제도에붙는부정적인오명은사라질것이다. 또한남자도동 등하게복지제도를이용할수있다면복지제도가역차별적이라는오명도씻길것이 다.

계급양극화가심화되면서다수인빈곤층여성과특권계급여성사이의격차가 점점벌어진다. 사실우리사회에서엘리트집단여성들, 특히부유층여성들의계급 권력은상당부분다른여성의자유를담보로한다. 이미계급권력을쥔몇몇여성집 단에서는소외계층여성들에게보조금을주거나지원을제공하는식의경제적프로 그램을제공하면서이런상황을중재하고있다. 페미니즘해방운동에헌신하는이 들가운데부유한개별여성들, 특히재산을상속받은여성들은계급권력을갖지못 한여성들에게도움을주고이들과연대하기위한참여경제전략을만들어내고있다. 당장은이러한여성들은소수에불과하지만, 이들의노력이널리알려지면참여자들 도늘어날것이다.

30 년전당대페미니스트들은우리사회의노동부문에어떤변화가닥칠지에측 하지못했다. 그들은대량실업사태가일상화되고여성들이있지도않은일자리를 구하기위해구직준비를하게되리라고는생각지못했다. 그들은보수주의자들그 리고일부진보주의자들마저돈없는미혼모들의경제적곤궁을비난하고악마화하

¹⁴ living wages. 최저생계임금의개념을발전시킨것으로, 대개미국에서는주 40 시간노동으 로양질의주거, 음식, 교통, 건강보험, 통신, 여가등을누릴수있는수준의임금을말한다.-역자주

는식으로복지제도를공격하리라고는내다보지못했을것이다. 예측할수없었던 이런일들이현실로닥치자선구적인페미니즘사상가들은여성해방과일의관계에 대해재고해야했다.

오늘날일터에서의여성의역할이가정에서자신의역할과자아상을어떻게바꿨는지알려주는페미니즘연구는많지만일하는여성인구가증가하면서남성중심주의가긍정적인방향으로변화되었는지살핀연구는많지않다. 많은남성들이자신의실직의원인, 그리고예나지금이나그저허울에불과하다할지라도가부장제하에서가장의위치가보장해주는확고한정체성이사라지게된원인으로일하는여성을지목한다. 그러므로미래를위한중요한페미니즘의제는남성들에게여성과일의관계에관한실제상황을보여주고그들이일터에서여성을적으로돌리지않게해야한다.

여성들은오랫동안직장에서일해왔다. 임금이많건적건페미니스트들이이상적으로제시한비전만큼일에서의미를찾는여성들은많지않다. 여성들이전반적인삶의질을향상하기위해서가아니라더많이소비하기위해서돈을벌다면경제적자급자족은불가능하다. 우리의행복을배양하는데쓰지않는다면아무리돈이많아도자유로워질수없다. 일의의미를재정립하는작업은앞으로페미니즘운동의중요한과제가될것이다. 페미니즘운동이성공하려면설령대단한부자까지는아니라해도여성들이행복한삶을꾸릴수있는전략뿐만아니라빈곤층에서벗어날수있는방법까지모두다루어야한다.

초기페미니즘운동은여성의경제적자립을주목표로삼지않았다. 그러나앞으로는여성이처한경제적어려움에대하고민이야말로궁극적으로페미니즘운동대중화의강령이될것이다. 이는모든여성들을하나로모으는공동의문제이자대중조직화로나아가는장이될것이다.

10 장: 인종과젠더

페미니즘사상가들에게인종과인종차별주의의현실을인정하라는요구만큼미국페미니즘의면모를혁신한개입은없었다. 미국내백인여성들중자신의지위가흑인/유색인종여성들과다르다는사실을모르는사람은없다. 어릴때부터텔레비전을봐도백인들만나왔을테니이러한사실을잘안다. 백인여성들은이렇게비백인이부재하거나투명인간취급을받는게순전히그들이백인이아나라서라는사실도잘안다. 미국의백인여성이라면누구나흰피부만으로도특권을가진범주에든다는사실을안다. 백인여성이이런사실을숨기고부정한대도그들이그사실을몰라서그러는게아니다. 다만인정하지않을뿐이다.

민권운동에적극적으로가담했던, 정치적으로각성한백인여성들의단체는백인여성들이만든그어떤단체보다자신들의지위가흑인여성의지위와다르다는사실을잘이해했다. 미국사에있어이시기에백인여성이쓴일기와비망록들이이를증명해준다. 그런데이들중다수가민권운동에서여성해방운동으로 옮겨갔고자신들이민권투쟁당시직접보고들었던그명백한차이에대한인식을숨기고부정하면서페미니즘운동의선봉에섰다. 그들이인종차별철폐를위해투쟁했다고해서그들이백인우월주의에서벗어난것은아니었다. 다시말해자신들이흑인여성보다우월하고, 더박식하고, 더잘배웠고, 더운동을‘이끌어나갈’만하다는의식에서벗어났다고보는것은오산이었다.

이들은많은면에서(백인여성과흑인을포함한) 모든사람에게투표권을줘야한다고주장했던노예해방론자선조들과비슷했다. 하지만성별이 다르다는이유로자신들에겐투표권이주어지지않는데도, 흑인남성들은투표권을얻을듯보이자백인여성들은백인남성들과연합해백인우월주의의기치아래모여들었다. 더많은권리를호전적으로요구하는흑인들의모습을지켜본백인여성들은이를발판삼아자신들의권리를요구하고자했다. 이들중일부는민권운동때문에성차별주의와그에근거한억압을인식하게되었다고주장한다. 하지만이주장이맞다면, 그들이새롭게인식한다름에대한정치적의식이현대페미니즘운동의이론화과정에도반영되었어야한다.

그들은페미니즘운동을시작하면서인종과젠더를나란히놓고고려한것이아니라전체 그림에서아예인종을제거하여차이를지우고부인했다. 젠더를앞세운다는말은, 백인여성들이무대중앙을차지할수있다는뜻이자여자라면누구든페미니즘운동에참여할수있다고하면서그운동을자기네것이라고주장할수있다는의미였다. 초기페미니즘운동은인종간격차나인종차별철폐를위한투쟁을진지하게고려하지않았기에그들이그리는자매애라는유토피아는대다수의흑인/유색인종여성들의공감을얻지못했다. 페미니즘운동이태동할때부터활동했던흑인여성들대부분의처지는별로나아지지않았다. 페미니즘운동이시작됐을때도여전히인종통합은거의이뤄지지않았다. 많은흑인들이난생처음으로백인과동등한위치에서소통하는법을배우기시작했던터라, 페미니즘을받아들인흑인여성들이인종에대한자신의인식을선불리털어놓지않았대도그리놀랍지않다. 백인여성을착취자와압제자로만경험했던세상에서백인여성들이자매애를외치는모습을보다니얼마나감격스러웠을까.

1970년대후반에서1980년대초반, 젊은흑인/유색인종여성들은백인여성의인종차별주의에이의의를제기했다. 윗세대흑인여성들과달리우리는대부분여전히백인우주이긴하나백인들과한교실에서함께교육도받았다. 백인여성과의관계에서예속된지위에놓인적도없었다. 우리는대부분취업전선에몰린적도없다. 우리는결코주어진자리에서취족은듯가만히있지않았다. 우리는여성운동내에서발생하는인종차별과백인우월주의를비판하는데있어적임자였다. 여성이일종의카스트같은성별계급에속해있다는개념을제시하며여성에대한억압을